



5

주체 89 (2000)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89(2000)년 제5호

(루계 제 631 호)

## ◆◆◆◆◆◆◆◆◆◆ 차 례 ◆◆◆◆◆◆◆◆◆◆

사랑의 축복 .....	4
승리의 봄 .....	5
세월은 멀리 흘러 왔어도 .....	5
신기한 번개와 《승리경》 .....	6
《한드레벌》의 새 전설 .....	8
백두의 고향집 .....	9
위인의 천품과 하루 .....	10
시대의 기상, 나래치는 서정 .....	12
명언해설 .....	15
장군님 계시는 곳.....	16
나의 출근길 .....	16
평론가적 재능과 열정, 예술적감각 .....	17
예가 바로 무릉도원 .....	23
아지랑이 피는 들.....	24
토성벌의 봄밤 .....	33
젊어진 고향벌에 첫씨를 뿌리며...(외 1 편).....	34
병사는 군화를 벗는다.....	34
백두산의 겨울 (외 1 편).....	35

노래하자 청천강 .....	35
정든 고향 .....	36
봄의 선구자 .....	38
봄날의 역두에서 (외 1 편).....	39
샘세기를 잊어버리고... ..	39
《조선인 부락》 .....	40
꿈인가 싶어 .....	48
깊이 더 깊이 (외 3 편).....	49
밤하늘의 처녀들 .....	49
너의 한줌 .....	50
메아리 .....	50
논둑에 대한 생각.....	51
대흥단의 미소 .....	52
고향아 나의 고향아 (외 1 편).....	53
사랑의 메아리 .....	53
출근길에서 (외 1 편).....	54
어머니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	54
비키라!.....	55
마지막 《배우수업》 .....	56
함께 있네 .....	67
재부 .....	68
광주이후 .....	80
집 씨 .....	80



## 사랑의 축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온 나라 인민이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즐기고있던 지난 2월 17일에 있는 일이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평범한 한 군인가정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르신다는 뜻밖의 소식에 접하여 엄복순동무네 군인가정이 감격과 흥분에 싸여 그이께서 계시는곳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더없이 반가와 하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그들 한명한명을 뜨겁게 맞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만면에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끝끝한 군인가족을 한품에 안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군관들인 손문규, 엄복순 부부가 조국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일념을 안고 자신들이 오래동안 조국보위초소에 서있을뿐아니라 아들딸들모두를 인민군대에 내보내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애국충정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이 동무네는 혁명적군인가정의 창시자들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며 혁명적군인정신과 함께 이런 혁명적군인가정들이 탄생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부모와 자식들모두가 하나같이 조국보위의 군복을 입고있는 모습이 장하고 기특하시여 대견하신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였다. 그들에게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 감나무중대로 소문난 녀성해안포병 손경실동무를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손경실이는 감을 쥐고있는 처녀라면 사람들이 다 안다고 따뜻한 애무와 믿음의 말씀을 하시였다.

순간 녀성해안포병은 감익은 계절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여 다시 오시였을 때 장군님께 드리고싶어 저도모르게 손에 꼭 쥐고있던 그 무르익은 감알에 평범한 병사가 없고 있던 진정을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소중히 여기며 잊지 못하시는 장군님의 깊고깊은 사랑에 목매여 흐느끼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손경실자매와 그의 부모를 위해 몸소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찬석상에서 오래전부터 품고 계시던 심정을 마침내 푸시게 된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왜 그렇지 않으랴. 여러해전부터 현지시찰의 길에서 만나신 엄복순동무네를 위해 친히 식사를 차려주자고 하시였으나 시간을 낼수가 없어 오찬을 마련하지 못하신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계시던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였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때의 일이 지금까지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식사라도 함께 하자고 오라고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상우에 놓인것은 국수였다.

산해진미면 이보다 더하랴. 오리마다 어려워있는 육친의 정에 가슴이 뚫어번져 엄복순동무네 가정의 떨구는 뜨거운 눈물이 식탁을 적시였다.

현지지도의 먼 길에서 시간을 내실수가 없으시여 그들에게 일군들을 보내여 자신의 명의로 음식상을 차려주신 장군님이시건만 자신께서 직접 차려주지 못한것이 늘 마음에 걸리시여 이날 이토록 자리를 같이하시였으니 그 은정, 그 배려의 뜨거움을 그 무엇에 비길수 있으랴.

엄복순동무네 가정이 한 일이 있다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웅당 해야 할 도리임에도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자신들뿐아니라 자식들의 손에 대를 이어 혁명의 총, 계급의 총을 잡게 한 그 정신과 제일 힘든 초소에 어머니의 뒤를 이어 혼연히 나선 자식들의 뜻과 혁명성, 용감성을 장하게 여기시였다. 하기에 이런 훌륭한 가정을 혁명적군인가정의 창시자들로 세상에 내세우고 고무해 주고 싶으시여 인민들이 즐겁게 쉬는 뜻깊은 2월명절의 휴식마저 뒤로 미루시고 이들과 자리를 같이하신것이였다.

정녕 우리 장군님은 이런 분이시다.

# 승리의 봄

리동수

봄이로구나  
파아란 하늘가에 종다리노래  
양지산 숲속에 산들바람 불어불어  
모질었던 한겨울도 어느덧 지나  
대홍단에 봄이로구나

봄을 맞은 이 마음에  
생각도 깊어지는 력사의 땅  
못잊어라  
항일의 혈전만리 헤치시며  
수령님 이끄신 조국진군의 길

압제에 짓밟혀 신음하며  
봄이 없던 가슴가슴에  
민족의 넋을 부어주시려  
위대한 수령님  
해방의 새봄을 안고 오셨나니

얼마나 준엄했던 진군길이었던가  
원썩들 살판치며  
혁명의 사령부를 해치려  
이리떼처럼 달려들던 그 길

안개 내린 첫새벽  
악착스레 달려들던 원썩 향해  
포연서린 결전장을 투사들은 내달아  
포악한 무리를 휩쓸어버릴 때  
넋을 잃고 덩구는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승리의 봄은 이렇게 왔다  
대홍단의 봄은  
원썩들 무찌르는 투사들의 총창에서  
놈들을 전몰케 한 폭풍에 실려  
만세의 환호성에 실려

붉은기를 휘날리며  
조국으로 조국으로  
투사들이 안고 온 봄은  
불멸의 위훈을 노래하며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으로 솟아  
5월의 창공 높이 빛나거니

그 봄빛아래  
길이 전해가라  
붉은별 빛나는 영광의 탑이어  
오늘도 준마 타고 내달리는 인민의 가슴속에

불굴의 신념을 안겨주며  
조국청사에 아로 새겨진  
아, 영원한 승리의 봄이여!

# 세월은 멀리 흘러 왔어도

김기철

이제는 반세기도 넘는  
긴긴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들려와라  
봄맞은 동강의 수림속에 울리던  
조국광복회창립선언이

전투와 행군으로 고달픈  
숙영의 밤  
사령부피창에 밝던 등잔불  
그 불빛아래서 무르익었더라  
10대강령의 구절구절이

2천만의 조선동포 총동원하여  
이 땅에 세우리라  
인민의 진정한 혁명정부를  
오랜 세월의 숙망을 밝히신  
항일의 청년장군 **김일성**동지!

봄물처럼 흘러갔다  
썩아 사품치며 노호하며  
혈맥처럼 이어지던 조국광복회  
천만의 피줄기 하나로 엮어  
반일성전으로 불러일으키며...

오, 기나긴 세월의 흐름에도  
스러지지 않았구나 그날의 불씨  
사라질수 없었구나 그날의 환호성  
민족재생의 새날을 불러온 기치는  
강성부흥의 새 시대로 이어 졌으니

년대는 바뀌어도 타고있어라  
사령부피창에 밝던 등잔불  
꺼지지 않는 당중앙 사색의 창가에서  
울리고있구나 동강의 환희는  
대진군의 장엄한 발구름소리에서

세기가 바뀐다고 하라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는 가슴가슴에  
소중히 품어져있으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기상으로  
력사에 길이 빛날 조국광복회여!

## 신기한 번개와 《승리경》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전연 시찰을 하실 때마다 인민군부대들에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기관총과 자동보총 그리고 쌍안경을 선물로 주시군한다.

이 선물무기와 쌍안경에 대하여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은 물론 피뢰군과 미군사병들속에서도 여러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피뢰군과 미군사병들은 《**김정일** 최고사령관이 인민군부대들에 주는 기관총과 자동보총은 총알 한알로 산을 통채로 날려보내는 신식무기이다.

그리고 쌍안경은 산을 뚫고 천리알도 손금보듯 환히 내다볼수 있는데 그것으로 한번 훑어보면 적진이 물먹은 담처럼 저절로 무너진다.》고 하면서 공포에 떨고있다고 한다.

어느 한 피뢰군부대에서는 합동참모본부에 올려보낸 보고서에 《**김정일** 장군의 전선시찰은 웅근 한 번의 전투를 치른것보다 부대에 더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고 한다.

얼마전에 의거입북한 피뢰군사병의 말에 의하면 우리와 맞서고있는 분계연선의 어느 한 피뢰군중대에서는 《최근 한주일사이에 실명자 둘, 귀가 먼자 하나, 까닭없이 손발이 떨다가 락상한자가 여섯.》이라는 보고를 상급에 제출하였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았다고 한다.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그 중대가 위치한곳이 351고지 맞은편이라고도 하고 대덕산 맞은편이라고도 하는데 일설에는 오성산이나 1211고지 맞은편이라는 말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이것은 분계선에 배치된 피뢰군부대들의 일반상황임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필유곡절이라 모든 사실의 뒤에는 까닭이 있을즉 이 이상한 사건의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지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피뢰군들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전설인것이다.

군사분계선의 어느 지점인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전연에 배치된 어느 한 피뢰군중대에는 박순길이라는 일등병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사병들처럼 그의 우에로는 병장이요, 소대장이요, 중대장이요 하는 상관들이 가득했다. 그우에도 대대장이요,련대장,사단장 하는따위들이 많았지만 박순길이로서는 너무 높아서 목이 부러지게 뒤로 제껴도 쳐다보이지 않을 정도이니 그에게는 중대장까지나 상관인셈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아서 중대장이요, 소대장이요, 병장이요 하는것들이 얼마나 달구어 대는지 《기합》속에서 날이 밝고 《기합》속에서 해가 지군하였다.

《야, 이자식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단겐 언제 천당행을 할지 몰라. 저앞에 보이는게 무엇인지 알아? 공산군진지란 말야, 공산군진지!》

그자들의 악다구니질과 행패는 잠시도 그치지 않았다.

최전연이여서 그런지 어디서 신통히도 악질장교들만 골라 배치하였다.

중대장으로 말하면 옛날 평강한 땅을 빼우고 공화국북반부에서 도망쳐온 어느 만석군의 손자이고 소대장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한테 처단된자의 손자녀석이었다.

그러니 이자들의 입에서는 하나같이 《간나새끼들! 공산군앞에서 도망칠 궁리나 하는놈들, 내 총알에 먼저 꿰질줄 알아!》하는 악담뿐이었다.

그놈들의 악행이 점점 더 극성스러워지던 어느해 3월초였다.

이날도 박순길은 중대장과 소대장의 살기쁜 눈길을 뒤로 받으며 참호에 엎드려 북쪽을 살피고있었다.

날씨는 구름 한점 없이 맑고 인민군진지는 보통 날처럼 조용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인민군진지가 보이지 않았다.

《응? 저건 뭐야?》

순길이 눈을 비비고 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안개가 인민군진지를 뽀얗게 뒤덮는것이였다.

이상한 일이었다. 청청한 날씨에 웬 안개가 구름처럼 질게 물러드는것일가?

인민군진지는 완전히 안개속에 묻혀 버렸다.

《야, 정신차려! 저 안개가 연막탄일수도 있단말이야.》

중대장이 법석 교아대는데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야, 이자식들아! 정신을 바짝 차려!》

이번엔 소대장의 악청이 울리였다.

이때였다. 박순길은 북쪽 인민군진지를 휩싼 안개속에서 무엇인가 번쩍!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웬일인지 온몸이 까닭없이 와들와들 떨리고 가슴이 얼어드는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팔과 다리에서는 힘이 송두리채 빠져나가고 손에서 총이 저절로 덜커덕하고 떨어졌다. 편이어 이쪽 저쪽에서도 덜커덕덜커덕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사병들도 모두 총을 떨어뜨리고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이었다.

순길은 중대장이나 소대장의 총알이 금시 뒤통수에 와 박히는 것만 같아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이 캥해지고 말았다.

그렇게도 기승스럽던 중대장과 소대장은 손에서 권총까지 떨어지고 학질에라도 걸린 것처럼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얼마후 인민군진지우에 서렸던 안개가 걷히었다.

그러자 온몸이 떨리던 증세도 없어지고 열이 나갔던 정신도 제자리로 돌아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민군진지에 안개가 서리고 무엇인가 번쩍! 하고 빛을 뿌리자 왜 팔다리에서 기운이 빠지고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을까?

사병들은 끼리끼리 모여앉기만 하면 수군거리곤 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 갑작스런 안개구름과 번개섬광에 꼭 무슨 연고가 있는 것 같았다.

이북에서 새로운 신형무기를 시험한 것이 아닐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없었다. 장교들은 이날 더 악청을 돋굴 힘이 없는지 온종일 겁먹은 눈을 멀뚱거리며 주눅이 들어있었다.

이튿날에야 장교들과 사관들은 밤새 힘을 돋군 듯 다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승을 부렸다.

《이자식들아! 오늘 공산군진지에 또 구름이 덮이면 일제히 사격을 퍼부으라! 알겠지?》

사병들은 서둘러 총질을 했다가 인민군진지에서 불벼락이 쏟아지리라고 생각하니 절로 목이 움츠러져 머리를 땅에 구겨박았다.

그런데 이날은 다행스럽게도 구름도 안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후 3시경 인민군진지에 한 전사가 나타났다.

그는 참호에 엎디어 목에 걸고있던 쌍안경을 눈에 가져갔다.

쌍안경의 렌즈들은 해빛에 번쩍하고 빛을 뿌렸다. 그것을 본 순간 박순길은 전호바닥에 엎디어 소리질렀다.

《번개다!》

중대장과 소대장은 권총을 뽑아 들었다.

《중대, 일제 사격준비!》

그러나 사병들은 모두 대방울소리를 들은 까투리처럼 전호바닥에 머리를 처박고 움직이지 않았다.

악에 반친 중대장과 소대장들은 인민군전사를 향해 총구를 쳐들었다.

조성과 조문을 통해 인민군전사를 겨냥하고 있을 때였다.

그 전사의 쌍안경이 그놈들쪽으로 획 돌아왔다.

또다시 해빛이 번쩍하고 빛을 뿌렸다.

그러자 갑자기 총을 겨누던 중대장과 소대장의 입에서 《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손에서 총을 떨어뜨리며 《눈이 안보인다! 눈이 안보여!》하는 비명이 들리었다.

웬일인지 그놈들의 눈이 멀었던 것이었다.

급히 뛰어오던 사관들도 영문없이 꼬꾸라지며 전호에 처박혀 머리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들을 모두 병원에 실어보냈는데 군의들은 《눈동자와 망막, 수정체가 심한 타격을 받았으므로 회복불가능》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내렸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시각에 전화를 걸던 대대장은 귀머거리가 되었고 명령을 내리려던 대대참모장은 갑자기 병어리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사병들속에서는 더 승승한 소문이 떠돌았다.

그들은 《이북에서 신형무기를 시험한 게 틀림없다.》고 수군거리었다.

그때로부터 며칠 지나서 그들은 바로 맞은편 인민군진지에 안개가 끼고 번개섬광이 일던 그 시각,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서 거기에 오셨으며 그이께서 쌍안경을 들고 피뢰군진지들을 살피실 때 그 렌즈의 빛발이 번개섬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민군전사가 끼고보던 쌍안경도 장군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

그후 피뢰군들은 인민군진지에 안개가 조금만 끼거나 구름이 한장 떠돌아도 얼흔이 빠져 사지를 와들와들 떨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피뢰군사병들속에서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이 이북 군인들에게 주신 쌍안경은 천리만리를 내다볼 뿐 아니라 신기한 빛을 뿌리는 승리경》이라는 말이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김우경

## 《한드레벌》의 새 전설

지금 온 나라 농장벌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원대한 토지정리구상에 의하여 옛날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대지로 그 모습을 일신하고있다.

지난 1월 24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눈길을 헤치시며 래천군 운흥리의 한드레벌을 찾으시였다.

새로 정리된 한드레벌의 전경은 참으로 장관이였다. 끝간데없이 아득히 펼쳐진 대평원, 하나하나가 다 운동장처럼 번듯하고 큼직큼직한 논배미들, 그 가운데로 비행장의 활주로마냥 곧게 뻗은 길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하나의 거대한 바둑판을 연상시키는 규격화된 새 대지를 굽어보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어제는 강원도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 토지정리의 생활력이 발휘되었는데 오늘은 평안북도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전변이 일어나 온 나라를 기쁘게 하고있다고 말씀하시는 그이의 만면에는 환한 미소가 흘러넘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훌륭하게 변모된 협동벌을 우리 수령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시면서 기계로 마음껏 농사를 지을수 있는 이런 땅을 가졌으면 하는것이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농민들의 그 소원을 풀어주시고 나라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평생 들길을 걸으시며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령님의 유훈을 실현해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장벌을 찾으시여 농사문제로 마음 쓰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오르고 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진눈까비 내리는 질척거리는 논판길을 걸으시면서 나라의 토지를 정리하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몸소 진두에서 지휘해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가 가슴에 마쳐와 눈시울을 적시였다.

일군들이 이곳 농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심정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한드레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된것만큼 벌이름도 고치었으면 하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드레벌》이라는 이름대신 뜻 깊은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벌이름을 고친단 말이 지...》 하시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무연한 대지를 이윽도록 더듬어 보시였다.

새 대지의 끝에서 끝으로 사색 깊은 시선을 옮겨가시며 묵묵히 누워 있는 기름진 땅과 마음속이야기를 나누시는듯 천천히 발머리를 건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윽고 말씀하시였다.

《내 생각에는 벌의 이름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부르는것이 좋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의아한 빛을 감추지 못하는 일군들을 바라 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었습니까. 조상대대로우리 농민들은 가난과 락후속에서 착취자들의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피눈물나는 고역의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한드레벌>이라는 원한에찬이름도 그 과정에 생겨 난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한평한평의 땅마다에 깊이 묻혀져 있는 힘겨운 로동과 눈물겨운 생활의 흔적을 파헤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마음속에 한드레벌이 안고 있는 먼 세월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실어왔다.

지난날 이고장 농민들은 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와 천대속에서 몇마지기의 폐기논에 명줄을 걸고 말그대로 마소와 같이 시달렸다. 가대기나 겨우 댈수 있는 손바닥만큼씩한 논밭들은 장마때이면 큰물에 잠겨 아우성이였고 가을철이면 거북등처럼 갈라터져 농민들의 속을 태웠다. 물을 댈수가 없어 웅덩이의 감탕물을 드레박으로 한드레 두드레 퍼올리었고 물지게를 지고 밭이 닳도록 논배미들을 오르내리며 논판을 적시였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농사를 지었던만 가을이면 온갖 빚값에 빈털터리로 나앉아 농민들의 밭치엔 늘 피눈물이 드레박으로 고이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언제인가부터 운흥리 농민들은 원한과 피눈물이 습배인 자기네 고장의 벌을 《한드레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농촌의 기막힌 과거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를 해방시켜주신 후에야 우리 농민들이 난생처음으로 제 땅에서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흥겹게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기계농사의 새 시대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농민들은 물론 군대와 인민들 그리고 후대들이 수난에 찬 과거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한드레벨>이라는 이름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눈물을 자아내던 지난날의 한드레벨과 기계농사를 마음껏 지으며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 오늘의 한드레벨을 대비해보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간직하고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켜가게 하여야 합니다.

<한드레벨>이라는 이름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과거와 현재가 비낀 역사의 대명사입니다.》

일군들은 한 농촌마을 별의 이름을 놓고 우리 인민의 지나온 역사를 분석하시며 투철한 계급의식과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커다란 감동에 휩싸이였다.

우리 농촌이 조상대대로 물 받은 가난과 락후의 마지막흔적인 패기논밭을 영원히 털어버리는 세계적인 변혁의 오늘에 와서 더욱더 뚜렷해지는것이 자본주의에 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절대적인 우월성이며 다시는 노예살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야 한다는것이 력사의 진리임을 깨우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일군들은 한드레벨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아보았다.

지난날 땅땸기마다에 피눈물이 드레박으로 고이던 한드레벨.

이제는 이랑마다, 고랑마다에 로동의 희열과 생활의 행복이 열드레, 백드레로 넘쳐 흐르게 된 로동당시대의 새 대지-한드레벨.

이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한드레벨》이라는 이름은 변하지 않을것이니.

한드레벨,

우리 사회주의협동벌의 천지개벽의 력사와 더불어 깊이 새겨진 그 이름은 이 땅위에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의 밑천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영원히 지켜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전하여 줄것이다.

본사기자

## 백두의 고향집

올레그 나우모브

은빛눈 덮인 백두의 고향집  
눈서리에 청송아지 휘늘어졌고  
잠든 밀림속 눈보라 낮추 떠도는 변두리에  
거목들 혁명의 성지 지켜섰네

울창한 밀림속 이 작은 집에서  
온갖 재난과 시련을 박차고  
숫아올랐네 삶과 자유에 대한 희망  
친근하신 수령님 해방의 서판을 안아오셨네

태고연한 백두의 수림속  
밀영의 귀틀집에서 **김정일** 그이 탄생하셨네  
온 세상 인민이 자랑하는 그이  
세계는 아노라 그이 계시는곳에 승리가 있음을!

백두의 밝은 태양 **김정일**동지  
자기 조국 위한 성업으로 인민을 부르시네  
위대한 령도의 그 손길아래  
번영하는 조선 공산주의아침노을 맞이 하리라!  
(필자는 로씨야사람임)

## 위인의 천품과 하루

리영삼

### 장군님의 하루

바뀌는 계절이  
부지런히 오가는 길  
저물녘 길손을 반겨  
창공에 새뿔 날아오른다

지쳐 쓰러진대도  
심려가 큰  
조국의 운명 한몸에 안으시고  
노을 비낀 령을 넘으시는 분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힘이고 기적인  
장군님의 하루가  
한세기보다 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럭바위우에서  
드시는 끼니는 쟁기밥  
아니면 삶은 감자 몇알

식찬은 절인 오이에 무우오가리  
까나리가 전부이다

첩첩 쌓인 재난을 털고 시작된  
락원의 행군을 이끄시여  
밝은 새날에로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 가시는 분

사색의 크고작은 재부모두  
시대앞에 리정표로 잡아 주시고  
전환의 강성대국을 일떠 세우시는 분  
여기엔 허구가 필요치 않구나

경적 없이 멀어지는 뒤모습 따라  
저도 몰래 외우는  
안녕이란 말 한마디  
전사의 가슴을 치는구나  
아, 지금은 어디쯤 가셨을까?

### 위대한 평민

늘 수수하시고  
겸허하신 분  
허물이 없으시다  
한치 간격도 없으시다

곳은 일 마른 일  
가림없이 몸 잠그시고  
승고한 복무정신으로  
존경을 받으시는 분

친히 웃이며 신을 손질하실 때  
누군들 머리숙이지 않으랴  
그저 허물없이 찾고 부르라고  
주시는 타이름에  
산천도 초목도 목메인다

기쁨도 슬픔도 다 맛 보시며  
특전과 특혜를 멀리 하실 때  
사양하신 박수와 꽃다발은 그 얼마  
보내주신 감사와 인사는 또 그 얼마

진실을 미덕으로 간주하시기에  
험난한 길을 웃으며 가시기에  
배심 든든히 맺어지는  
열렬한 인연을 어이 숨기랴

나는 간밤에  
꿈을 꾸었구나  
그이가 가리키시는 복받은 미래로  
기러기되어 훨훨 날아 갔었다

## 다함없는 흠모

차창에 돋는 별을 보아도  
허리 잘린 강토  
갈라진 겨레를 두고  
한밤을 뜯눈으로 지새우신다

구름 너머 평양이 있다며  
마음 다잡는 남녘을 못잊어  
서리발 얼음우에  
차바퀴 밀어올리신다

새벽녘 쪽잠마저 아끼실 때  
뿌려지는 흙탕에 옷깃이 뒹어질 때  
조여지는 죄송함이 어떤것인지  
속시원히 터놓고싶구나

하늘의 심장인 태양처럼  
꺼질줄 모르는 열정 지니시고  
불철주야 뒹잉킨 날에  
어이 눈비가 없었으랴  
풍량이 적었으랴

꿈조차 어지러운 시름을 두고  
칼날같은 식량사정을 두고

이슬을 헤치시며  
서리를 밟으시며  
길 아닌 길 가실 때마다  
손에 가득 땀이 돋힌다

빠짐없이 보고 들으시며  
분과 초를 쪼개여  
세기를 호흡하신다  
살아 다 배울수 없고 다 오를수 없는  
인류지성의 정점을 굽어보신다

술이 왜 푸른지  
단풍이 왜 붉은지  
눈물겹도록 아끼시는 삼천리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신을 넘어  
겨레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실적에  
언제 한번 마음 편한 날 있었던가

《봉쇄》와 압력의 쇄사슬을  
맞받아 끊어 내치시며  
무자비한 정면대결로 세상을 놀래운  
위대한 심장이 지닌  
위대한 지혜

잠자던 폭풍을 불러  
장검이던 신념을 세워  
위기일발을 딛고  
불후의 생명을 지켜 주셨구나  
승리의 감동만을 마련하시였구나

아, 고통을 두려워 않는 인민이  
때없이 장군님이라 찾는  
친근한 부름속에  
조선이란 짧은 그 이름  
얼마나 자랑 높이 솟았느냐

## 위인의 천품

세심히 보살피시는 분

사나운 물 건너 수십리  
고인의 령전 찾아  
전사의 이름 불러 주시며  
끝끝내 눈물을 흘리신 분  
동지를 위함이라면  
죽음이 있다 해도 주저가 없으신 분

아, 위대한 장군님 사랑 넘친  
창밖은 내 조국이여  
누가 막으랴  
장군님과 인민이 하나됨을  
태양엔 흑점이 있어도  
그이의 천품엔 흑점이 없구나

## 시대의 기상, 나래치는 서정

김해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해나가기 위해 총진격해나가는 시대를 뜨겁게 포용하고 격조높이 노래한 시들에서 우리는 시대의 숨결소리를 뜨겁게 느끼고있다.

운동회날 진행되는 매 경기종목들과 생활화폭들이 시로 되고 그 시들이 하나의 시초를 이룬 《승패에 대한 시》(김정근, 《조선문학》 주체 88년 5호)는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그것은 이 시초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효로 받들어가는 시대의 기상, 시대의 얼굴이 비껴있기때문이다.

시초를 읊으면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최전방을 종군하는 고도로 양양된 시인의 모습과 군민의 불굴의 기상이 눈앞에 뜨겁게 어려오고 이 땅을 진동하는 승리의 포성이 우리들의 심장을 쿵쿵 울리며 장엄하게 메아리치는것 같다.

이 시초가 어찌하여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확신을 안겨주는가.

그것은 이 시초에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이 일치된 군대와 인민의 힘은 제국주의자들에게 패전을 안기고 승전을 펼쳐갈것이라는 승패에 대한 철학이 뜨겁게 맥박치고있기때문이다.

시초중의 서정시 《행진》, 《바줄당기기경기》, 《달린다 달린다》, ... 《제목없이》, 《응원풍경》, 《승패에 대한 시》.

이 한편한편의 서정시마다에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생활기풍을 담고있는 시초는 백두의 붉은 냇으로 강성대국건설으로 총진군하는 조선의 기상, 불패의 위력을 강렬한 시적정서로 노래하고있다.

특히 시초의 첫 시인 《행진》에서 격조높이 터친 시대의 서정은 《제목없이》에서 굴절승화되어 마감시 《승패에 대한 시》에서 거세찬 대하처럼 굽이친다.

시인은 5월봄명절날 시중호에 원족을 가는 도학생소년회관 문학소조학생들이 회관작가선생님도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손목을 잡아 이끌어 그들을 따라 함께 가게 되었다. 그는 원족을 가던 도중 길옆 운동장에서 울려오는 우렁찬 환호성에 이끌리어 자기도모르게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가슴팍에 농장명찰을 달고 활개치며 행진하는 기세충천한 그들의 모습은 시인의 온몸을 사로잡았다. 원족을 가던 길이라는것을 까맣게 잊고 군민과 휩

쓸려 응원에 열을 올리는 작가선생님을 찾아 온 학생들의 성화도 마다하고 온종일 운동회에 참가한 시인은 커다란 감흥과 정서적충격에 휩싸였다. 간고분투하여 파종전투를 승리적으로 끝낸 기쁨과 긍지로 달아오른 군민의 가슴에 투쟁의 활력과 기백으로 차넘치게 한 운동회! 시인은 군민체육대회장에서 시대의 불굴의 기상과 의지,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한 힘을 보았고 강성대국으로 우뚝 솟아 일어난 조선의 래일의 모습을 보았다.

군민체육대회장은 시인에게 새로운 시상이 떠오르게 하였다.

시인은 체육대회장에서 울려오는 승리의 총포성을 한껏 터치고싶었다. 그는 자정이 넘도록 운동장에 홀로 남아 이 시초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 평범한 군민연합체육대회에서 시를 발견하고 주정화된 감정으로 생활을 노래한 시초는 심도깊은 생활철학과 혁명적량만이 넘치는 시적정서로 이채로울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가는 우리 시대 인간성격창조에 이바지한 성과로 하여 더욱 우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시초에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신심과 량만에 넘쳐 뚫고나가는 군민의 불패의 기상이 격조높이 토로되었는가 하면 혈연의 뉴대로 이어진 고상한 전통적미풍과 량만에 넘치는 생활정서를 펼쳐보인 생활화폭도 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에 매혹된 량심의 분출도 있다.

시초 《승패에 대한 시》는 먼 후날 우리 후대들이 선배들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 승리하였는가를 표상할수 있는 한폭의 생활화폭을 창조했다고 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는 선군혁명의 시대적숨결을 인상깊은 시적화폭으로 반영하며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전인민적감정으로 된 오늘의 시대적성격을 창조하는것은 당의 요구, 인민의 지향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하며 작가의 필봉은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야 한다.》**

시인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압살의 모진 광풍이 몰아쳐와도 온 세상이 보란듯이 이 땅에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포성을 울려갈 필승의 신념을 안

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군민의 모습을  
생활철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안겨오게 하였다.

《봉쇄》의 검은 장벽에서  
소리없이 무자비하게  
굶주림의 흉탄이  
불줄기없이 날아오고있으니

쌀! 쌀이  
원주의 《봉쇄》환을 끊어 팽개치며  
운명을 지키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인 전야

#### 시 《승패에 대한 시》 중에서

시에서는 오늘의 준엄하고도 간고한 현실이 안겨  
오고있으며 농업 전선은 제국주의자들과 맞서 사회  
주의의 운명을 지키는 최전선이라는것을 깊이 절감  
하게 한다.

시초는 엄혹한 시련을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이겨가는 군민의 불굴의 기상과 신심에 넘치는 랑  
만의 세계를 생동하면서도 진실하게 노래함으로써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을 잘 보여주  
고있다.

처창즈의 이랑끝에  
가슴들을 대어보며  
논둑에 놓인 쭉떡 한사발이  
해종일 축나지 않아  
세굽으로 논김 잡던 이네들

병사들 기상나팔에 맞춰  
벌로 함께 가며  
폭우 몰아치던 그 밤엔  
어깨어깨 성을 쌓아  
혁명이 함께 부르며  
푸른 배미우에  
노을빛하늘 엮어놓던 이네들

#### 시 《바줄당기기경기》 중에서

피어린 항일의 나날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싸운 선렬들의 그 넋을 이어 피끓는 가슴들이 성채  
로 뭉쳐 결사전을 벌려가는 군민의 군상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시초는 군대와 인민이 항일의 나날에 창조된 승  
고한 투쟁기풍, 고상한 전통적미풍으로 살며 투쟁  
하는 군민의 높은 정신세계, 혁명적인 우리 생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군대의 기상나팔에 맞춰 온 나라 인민이 군대를  
따라 서로 군민이 혁명이 높이 부르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시련을 맞받아나가는 이 장엄한 화폭은  
위대한 선군혁명령도가 낳은 자랑스런 시대의 모습이  
다.

이 혁명적인 시대적화폭에서 계급적으로 각성되  
여 하나의 사상과 투쟁기풍으로 일심단결된 군민의  
불굴의 기상, 백절불굴의 정신세계를 느끼게 한다.

시초는 군민의 불굴의 기상과 더불어 승리에 대  
한 신심과 랑만의 세계를 아주 생동하게 보여주어  
우리 시대 군민의 정신세계가 깊이있게 안겨오게  
한다.

...  
《1211고지》 전승춤  
가락 굴리는 장새납은  
고지를 흔들던 화선악기인가  
저 물결치는 목색치마는  
남강 건너온 너인들인가

#### 시 《응원풍경》 중에서

가렬한 전화의 나날 불의 고지인 1211고지에서  
승리의 축포가 터져오를 래일을 가슴에 안고 산 인  
민군전사들의 랑만의 세계가 오늘 그대로 우리 군  
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끓어 넘치는 혁명적력판으로  
불 타며 불 꽃을 날리고있다.

이 락판은 군민이 바줄 한끝으로 하늘을 툑툑 건  
드리면 가을의 로적가리가 덩실덩실 끌려 나온다,  
달리고달려 결승선 넘어 가을의 테프까지 끊고 말  
기세이며 군대와 인민이 맺은 정 날개를 펴서 오르  
고 또 올라 구름도 헤쳐 하늘도 툑 차서 구멍이 날  
무한한 담력과 의지로 충만된 승리에 대한 신심의  
세계이다.

피 어린 항일의 나날과 가렬한 전화의 그날처럼  
군대와 인민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어 일심단결된 불  
굴의 기상, 혁명적력판으로 충만된 승고한 사상정  
신세계는 얼마나 진실하고 인상깊은가.

그 진실성과 심오성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의 필승불패성을 생활의 진리로 체득  
하고 령도자와 군대, 인민의 혈연적인 호상관계속  
에서 삶의 보람과 의의를 찾고 헌신적으로 투쟁하  
는 군민만이 체험할수 있는 세계이다.

시초 《승패에 대한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정치의 위력을 심장으로 체득한 군대와 인민의 끓  
어 넘치는 충효심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적주정으로  
하여 생활적으로 진실하며 철학적으로 심오하다.

...  
석삼년 허리띠 조이면서도  
굴하지 않는 이 힘의 줄기가

어디서  
그 어디서 굶어온것임을  
이 마음이 더듬고있어

시 《제목없이》 중에서

우리 장군님  
북방의 언 고드름  
신발에서 녹이실새 없이  
또다시 고지로 오르시는 그 자옥을  
눈물 머금고 이랑에서 쓸어보며  
불이 되어 끓는 가슴들

시 《승패에 대한 시》 중에서

겹쌓이는 난관에 주저앉지 않고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더욱 기세충천해지는, 하늘을 찌를듯한 군민의 불굴의 기상, 혁명적락관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필승불패성에 그 원천을 두고있음을 얼마나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하는가.

우리는 이 시련들에서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서시여 풍찬로숙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옥을 눈물을 머금고 쓸어보며 불이 되어 가슴을 끓이는 그이에 대한 절대적인 승배로 온 심장이 뜨겁고 장군님과 운명의 피줄을 하나로 잇고 충효로 가슴을 불태우는 군민의 삶의 철리를 시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강성대국건설으로 총진군하는 군민의 불굴의 모습, 위대한 선군정치를 충효로 받들어가는 우리 시대 서정적주인공의 성격을 것처럼 감동적으로 표상하게 되는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평장을 모시고 충효로 불타는 군대와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에게 패전을 안기고 승전만을 펼쳐가리라는 시인의 격동적인 주정의 토로는 강성부흥의 새 시대가 도래할 래일에 대한 생활적 표상과 깊은 감명을 안겨주며 우리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경기장의 점수판처럼  
인류가 쳐다 볼  
지구의 축대우에  
력사는 승패의 판결을 새기리니  
제국주의연합세력이 내세운  
《봉쇄》와 《압살》에 패전을!  
우리 당이 키운 주공전선 기동선수들

군민의 힘에 승전을!

시 《승패에 대한 시》 중에서

군민의 이 혁명적신념, 불굴의 락관의 노래는 군민일치의 필승불패성을 확인하며 사람들에게 강성대국건설의 령마루에서 울려 올 승리의 함성이 이 땅에 힘차게 메아리칠 래일을 그려보게 한다.

지구의 축대우에 온 인류가 쳐다보게 승패의 판결을 새겨가려는 우리 군민의 필승불패성의 투지와 위력을 격조높이 노래한 시초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필승불패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 충효로 받들어가는 시대의 성격적특질을 생동하게 표상하게 하는 성과작이다.

실로 시초 《승패에 대한 시》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련전련승을 떨치며 이 땅에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우렁이 떠오르게 하고 그이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과 락관이 세찬 격량으로 솟아오르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이 시초의 철학적무게가 있으며 시초로서의 풍격이 있다.

이 성과는 시인의 시적발견, 시적기지가 깊은 철학적사색속에 시대적생활정서를 환기시키며 뜻깊은 사상으로 승화된데 있다.

이 시초가 우리의 주목을 끄는것을 군민의 사상정신세계를 주정화된 감정으로 채치있게 아주 생활적이면서도 형상적으로 잘 노래했기때문이다.

군민련합운동회의 매 경기장면들과 하나의 생활세부, 표현들에는 시대가 비껴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의 사상감정, 생활정서를 뜨겁게 호흡할수 있게 한다.

시초중의 서정시 《행진》에는 농업전선을 지켜가는 군민의 위력이 시위되고있는가 하면 시 《바줄당기기경기》와 《달린다 달린다》는 군민의 불굴의 의지의 세계와 함께 승리한 래일에 대한 확신의 감정이 복치듯 울려오고있다.

군민이 함께 쌓그네를 타면서 방울을 차는 생활세부와 뛰는 공, 나는 공을 서로 주고 받으며 뿔을 몰아가는 룡구생활세부, 응원의 춤세부들은 이 땅에 승전을 불려올 군민의 만만한 배심과 의지의 세계를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자각한 군민의 헌신성과 희생성으로 끓어 넘치는 애국적감정을 《푸른 배미우에 노을빛 하늘 없어 놓던 이네들》로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는가 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차넘치는 의지의 세계를 바줄 한끝으로 하늘을 툭툭 건드리며 가을의 로적가리가 덩실덩실 끌려

나온다 등의 시적환상으로 방불하게 노래하여 시적 일반화의 폭을 넓히고있다.

군민의 혈연의 감정을 《배추 한포기도 군민이 나누어 먹으며》, 《된장 한사발도 군민이 같이 풀어먹으며》, 《논둑에 놓인 쭉떡 한사발이 해종일 죽나지 않아》로 재치있게 노래하여 군민의 정으로 차넘치는 시대의 모습을 절감하게 한다.

이처럼 시초는 역사적체험을 통하여 터득한 생활의 진리를 고도로 양양된 생활철학적인 주정으로 노래하여 오늘의 시대적성격을 창조하고 시대의 사상정서를 가슴 벅차게 느낄수 있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성과는 시인의 시적기지가 깊은 사색속에 심화되어 생활의 진리를 드러내며 시의 사상정서를 승화시키는데 이바지하였기때문이다.

즉흥적인 충격, 즉흥적인 기지가 서정시창작에서 체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화발전되지 못하면 의의가 없다.

정서적충격, 시적기지가 즉흥적인 단계에 그치지 말고 철학적사색으로 심화발전되어야 훌륭한 시가 나올수 있다.

시인 김정곤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시를 발견하고 범상한 세부에 시대를 담을줄 아는 시적기지와 생활을 섬세하면서도 생동하게 정서적으로 그릴줄 아는 재간있는 작가이다.

시인의 이러한 개성과 특기가 충분히 발양된 편시 《위대하신 품에 안겨》로 그는 우리 문단에 널리 알려졌다.

토지개혁의 혜택으로 분여받은 소중한 땅을 두고 그냥 갈수 없어 땅을 안고 누운 녀인의 심정을 노래한 이 시는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도 범상한 생활의 한 장면을 포착한것 같지만 시를 읽노라면 땅과

함께 걸어 온 이 나라 인민의 피눈물나는 수난의 역사와 함께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에 목메인 이 나라 농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면서 뜨거운 감정이 가슴에 차오르게 한다.

첫 애기를 잠재우던 그 밤처럼 마음은 속삭이고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가 어머니가 가슴을 헤쳐 대지에 젖을 물리고 싶다는 그 착상과 표현이 기발하고 생동하며 감각적이다.

당에 대한 고마움이 농민들의 순결한 순정이고 모성애의 극치임을 시로 확증한 이 모든것들로 하여 시가 발표된지 20여년이 흘렀지만 독자들은 이 시를 기억하고있는것이다.

시인은 이 편시를 발표한 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올린 시 《당이며 내 그대를 따르는것은》을 비롯하여 《사랑에 대한 편시》 등 우수한 서정시를 창작발표하였다.

이 시인이 창작한 가사 《장군님과 아이들》은 세부적인 생활속에서 선군혁명령도로 불면불후의 나날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풍찬로속속에 행복이 꽃피나는 오늘의 시대가 비끼게 한 그의 시적기지, 철학적사색을 충분히 엿보게 한다.

시초 《승패에 대한 시》는 그의 수십년간 창작과정에 시인의 개성과 특기가 세련되어 원숙한 경지에 오르고 시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더욱 승화된 결과에 도달한 하나의 정점이라고 할수 있다.

필자는 이 시인이 앞으로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를 뜨겁게 포옹하고 기량을 더욱련마하여 시창작의 총결이라고 할수 있는 시대의 명작들을 창작하리라것을 기대하여마지 않는다.

## 명언해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이다. 조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하루빨리 앞당기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

려있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데서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줄수 없다. 오직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조국통일성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만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 가사

# 장군님 계시는 곳

김철혁

어제는 철령을 넘어 전방초소 찾으시더니  
이 아침엔 갈매기 나는 군항에서 웃고계시네  
아 그 어데인가 우리 장군님 계시는곳  
병사들이 있는곳에 장군님은 계시네

간밤엔 북방의 흑한 눈보라를 헤치시더니  
이 저녁엔 포전을 찾아 기계농사 의논하시네

아 그 어데인가 우리 장군님 계시는 곳  
인민들이 사는 곳에 장군님은 계시네

이 땅에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 세우려  
쉬임없는 로고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  
아 그 어데일가 우리 장군님 계시는 곳  
조국땅 그 어데나 장군님은 계시네

# 나의 출근길

진춘근

이른 아침  
오늘도 출근길에 오르니  
기다린듯 가까이 울려 오누나  
영예군인 나의 일터  
피대를 물고 돌아가는  
웅글은 기대소리

병사로 시작한 삶을  
병사로 끝까지 빛내라고  
오늘도 이 가슴에 속삭여주는가  
절로 빨라지는 걸음  
앞서 달려가는 마음

혁명의 불바람 뿔어 칠  
나의 로라를 한가슴에 안아본다  
필필이 밀어낼  
꽃비닐의 흐름도  
눈앞에 그려본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어려움을 덜며  
나와 함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기대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네 동음소리 높이며  
시련의 천만고비  
우리 함께 굴함없이 넘어섰거니

오, 평보를 구보로  
웃으며 간다 웃으며 간다  
나의 출근길

키보다 긴 보총을 메고 진격하던  
병사시절의 그 젊음을 안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강성대국건설에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니  
군복은 벗었어도  
군복 입은 마음으로  
전호를 떠났어도  
전호를 지켜 섰던 그 군인정신으로  
오늘도 나는 건설의 초소로 간다

아직은 채 가시지 않은 어려움  
우리앞을 막아 선대도  
이미 최후승리는 우리의 것  
이미 우리가 가는 길은  
락원의 행군길

내 쌓아가는 비닐제품  
더 아름답게 아롱질 꽃무늬마다에  
내 조국의 래일이 활짝 웃으리  
내가 쏟아 낼 비닐박막의 흐름  
풍만한 물결우에 실려  
**김일성** 민족의 부강한 래일이 오리

오, 나는 영예군인!  
해빛 넘친 구내길로  
활개치며 들어선다  
위대한 장군님 손길을 따라  
빛나는 또 하루의 새날을 마중한다

## 평론가적 재능과 열정, 예술적감각

—엄호석의 평론활동에 대한 몇가지 추억—

최길상

평론가로서 엄호석의 이름은 현대 우리 문학평론계에서 독자적인 개성과 풍격을 가지고 알려져있다. 그는 거의 40년에 가까운 평론활동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모든 재능과 탐구와 열정을 우리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투쟁에 바쳤으며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재치있고 능란한 필치로 문제성있는 평론들을 창작하여 독자들의 기억속에 생동하게 살아있다.

평론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역사에 남긴 그 어떤 공헌에 대한 역사가의 기록이 아니라 창작가의 재능과 정열에 대한 역사이다.

엄호석의 경우 평론활동세계가 광범하며 그만큼 그의 평론가적 재능과 탐구도 다방면적이며 다채롭다. 그의 평론가적재능이 다방면적이고 다채롭다고 할 때 평론가로서 문학현상의 여러가지 부문에 대하여 많은 평론을 썼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만일 그의 평론가적재능을 이런 견지에서만 논한다면 너무나 일반적인것에서 벗어날수 없다.

평론가의 기질과 열정, 재능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이 모든것의 산물인 그의 평론에 대하여, 그를 평론가로 되게 한 요인과 평론가적재능의 독창성과 개성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평론가의 이름은 그가 산 시대의 문학과 떨어져서는 있을수 없다. 평론가의 기질과 열정, 재능은 문학현실자체를 떠나서는 발휘될수 없다. 그러므로 평론가에게 있어서 문학현실은 평론활동의 저수지이며 체험의 원천지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론가에게는 작가에 못지 않은 예술적감각과 형상적환상력이 있어야 한다. 생활과 작품을 형상적으로 파악하는 예술적감각이 무디고 환상이 없는 평론가는 추상적인 일반론리만 따지게 된다.》**

평론은 작가들의 창작에서 나타난 참신한 시도와 발기를 민감하게 찾아내어 적극 지지해주고 조장발전시켜야 한다. 작품에서 새롭게 시도한 긍정적인 싹을 발견할줄 아는 평론가가 참된 평론가이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노리고 품을 들여 창조해낸 좋은 점은 물론, 작가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써넣은 좋은 점까지 꿰뚫어볼줄 알아야 한다. 하기에 평론가는 작가들 못지 않은 예술적환상과 창작적재능,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문학은 평론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어왔다. 평론은 문학작품을 감수하는 예민한 촉각이어야 하며 창작의 성과를 종합일반화하는 폭넓은 개괄력을 가지고 문학발전을 떠밀어주어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있는 문제를 새삼스레 상기하는것은 우리 평론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표징에 원만히 이르지 못하는 실태도 있거니와 현대 우리 문학평론에서 자기의 자옥을 뚜렷이 남긴 평론을 다시금 음미하는것이 경험적인 교훈으로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이다.

평론가의 재능은 능란한 필치와 분석력에만 있지 않다. 평론가의 재능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여 작품을 예술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감각의 깊이에 있다. 이러한 능력의 깊이자체는 문학작품에 대한 평론가의 미학적 분석과 판단력, 즉 평론가의 세계관의 성숙에 많이 달려있다. 세계관의 성숙과 그로부터 문학현실로서의 깊이 있는 침투, 그에 대한 예술적파악의 능력만이 평론가에게 환상을 내려치게 하며 평론의 사명으로 되는 창작의 선도성을 낳게 한다.

평론가 엄호석의 평론활동을 추억하는 필자의 의도도 여기에 있는바 그의 재능을 조건지어 준 그의 사회적, 인간적 성장과정과 평론창작과정의 내적련계를 분석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엄호석을 현대조선문학의 저명한 평론가로 키워낸 토양은 시대와 문학이다. 그가 평론활동의 시작과 개화기를 맞은것은 조국해방후 1940년대 후반기부터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자기의 한 수기에서 《8.15해방은 일제경찰에게 항상 쫓겨다니며 신변의 위협과 생활난으로 허덕이던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삶의 출로를 열어준 사변이었다.》고 환희에 넘쳐 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을 이룩해주심으로써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불우한 생활을 강요당해야 했던 엄호석에게도 삶의 활로가 열렸으니 이때부터 그의 눈부신 평론활동이 활기있게 진행되었던것이다.

조국해방후 그가 처음 쓴 평론은 반동적인 문학서적 《문장독본》을 비판한 《<문장독본>은 왜 반동적인가》이다. 여기에서 평론가는 《문장독본》이라는 책이 우리 인민들의 건전한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 새 조국건설을 저애하는 반

동적인 독소를 품고있는데 대하여 예리하게 발가놓고 분석비판하였다. 그의 평론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했는지 당시 《문장독본》을 편찬한 반동적인 문인 모기윤이라는 자의 형인 모기성 (당시 이자는 흥남에서 의사를 하였다고 한다.) 이라는놈이 칼을 품고다니면서 엄호석을 죽이겠다고 날뛰기까지 하였다.

엄호석의 평론활동은 시작부터 자기 당과 수령의 문예로선을 철저히 옹호하며 온갖 반동적인 문학 조류와 경향들과의 날카로운 대립과 투쟁으로 일관되었고 이것은 그의 평론활동에 줄기차게 관통되어 있다.

평론가의 이러한 미학관은 그가 소년시절과 청년시절을 지낸 1920년대 말과 1930년대의 사회현실을 체험하면서 골격이 형성되고 세계관화되었기였다.

엄호석은 주체원년 (1912년) 2월 22일 함경남도 흥원에서 출생하여 향리에서 소학교를 졸업한후 함흥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주체18(1929)년 말 광주학생사건 연고로 출학당하였다. 그후 일본 도쿄에 가서 1년간의 고학을 하다가 생활고로 다시 향리로 돌아와 주로 농민조합과 련계를 맺고 지하공작에 참가하였다. 그는 주체20(1931)년 5월에 발생한 흥원농민폭동사건에 관계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도부성원이 거의 체포된 뒤를 이어 농민조합재건위원회를 조직하고 농민조합을 지하에서 재건하는 사업에도 관계하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약 4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었다.

출옥후 그는 소년시절부터 애호하여 온 문학에 몸을 바칠것을 결의하고 서울에 가서 6~7년간 문학을 수업하였다. 당시 주로 문학평론과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였다.

평론가 엄호석은 주체35 (1946) 년에 함흥에서 발간된 함남도문예총기판지 《예술》의 주필로, 또 함남도 문예총 부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주체36 (1947) 년부터 평양에 올라와 문예총기판지 주간 《문화선전》과 월간 《문학예술》의 부주필로, 주체37 (1948) 년 말부터는 내각 서적출판지도국 단행본 부장으로 일하였으며 그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사업하다가 주체43 (1954) 년부터는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책임주필로 일하였으며 당시 출판사의 개편에 따라 《청년문학》 주필로 사업하였다. 그는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이며 평론분과위원회 위원이었다.

저자 엄호석은 해방후 문학평론을 활발히 전개하여왔는바 그의 주요 저작으로서는 《문학소론》 (1950년 문예총출판사 발행), 《문예의 기본》 (1951년 국립도서출판사 발행), 이외 많은 공동저서들을 발표하였으며 각종 신문, 잡지들에 70여편의 문학평론과 수필을 발표하였다.

이상이 평론가 엄호석의 저서 《조명희연구》에 기록되어있는 저자의 약력이다.

문학활동의 견지에서 간단히 추려 쓴 저자의 약력만 보아도 그가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하는 제1선에 서있었다는것을 직감할수 있다. 그는 주체35(1946) 년 5월에 공산당 후보당원으로 입당하였고 그해 7월에는 정당원으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을 이룩해주시고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평론가 엄호석은 희망과 열정에 넘쳐 착취계급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대오에도 앞장서고 흥원군 인민위원회 교육문화계장으로 있으면서 문학동맹도 조직하고 연극단도 조직하여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온 뉘과 열정을 다 바쳤다.

그런데 모기윤과 같은 반동적문인들이 《문장독본》을 내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려드니 그의 격분은 얼마나 고조되었겠는가.

이와 같이 평론가 엄호석이 해방후 첫 명필을 버려 우리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첨단에 서게 된데는 그의 체험과정에 형성된 세계관이 작용하였고 이것이 그후 그의 평론활동을 힘 있게 안받침하는 바탕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평론가 엄호석의 평론가적 기질과 재능에 대하여 고찰했다고 볼수 없다.

평론가로서의 엄호석의 자질은 그가 활발히 쓴 많은 평론들에 력력히 비껴있으니 이제 그의 평론가적 면모와 개성을 반증하는 평론의 일단을 다시 상기해보려고 한다.

다른 모든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평론가에게 있어서 사상정치적대, 옳은 미학관을 가지는 문제는 매우 예리한 요구로 제기된다. 결국 평론에 의하여 한때 이름없이 파묻혀있던 작가가 세계적인 문호로 이름을 떨친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사람의 주목을 끌었던 작품이 평론에 의하여 그 진가가 드러나 력사의 버림을 받은 경우가 있는것은 평론가의 정치사상적준비와 미학관에 의하여 작품이 분석평가되기때문이다.

평론가 엄호석은 이에 있어서 건전하였고 투철하였다. 엄호석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가 쓴 작가론 《조명희연구》 (그의 인간과 예술) 의 갈피에서 새겨 볼수 있다.

모두 9개 체계로 된 이 작가론에는 두번째 체계로 《2. 타끌이나? 고리끼냐?》라는 소제목이 놓여 있다.

여기에서 평론가는 예술에 대한 조명희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조명희가 활동하던 1920년대 중엽에 《예술의 특수성》의 간판밑에 숨어 예술의 사상적내용을 거부하는 형식주의자들과 자기를 예리하게 구별하고있는 조명희를 뜨거운 애정으로 품는다 하면서 형식에만 치중하는 《기교파 예술가》와 내용에만 편중하는 《생명과 예술가》

(이것은 조명희의 표현임—필자)를 다같이 반대하면서도 내용의 우위에 대하여 강조한 그의 미학관에 동조하여 다음과 같은 조명희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 생명의 짧은 때와 같이 신홍하는 예술에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충실하여야 할것이다. 일찍 병들어 떨어지는 실과가 되지 않고 거칠고 감상굿으나마 큰 성숙을 예기하는 풋실과와 같이, 급계 분발라놓는 형식에만 기울어지지 않고 씩씩하고 기운찬 내용을 요구할것이다. 그것은 위대한 성숙이 앞으로 저절로 움을 예기할것이다.》

평론가는 특히 조명희의 미학관에서 예술의 민족적특성에 대한 옳은 견해에 대하여 뜨겁게 동감하면서 《하늘 높고 물 맑은 이 땅에 산은 물결같이 구부러지고 길도 굽이굽이 감도는데 이 산 저산 넘어가며 우는 빠구기가 우리의 소리일지며 아침해 봉우리에 솟고 작은 안개 흩어질제 하늘끝을 바라보고 우는 두루미가 우리의 소리일것이다.》라고 쓴 그의 글을 매우 귀중히 여기었다.

평론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조명희는 이와 같이 시에서 조선의 목소리로 노래할것을 요구하면서 외국의 시인들을 흉내내는 그릇된 경향을 규탄하였으며 <우리는 보드레르가 될 수 없으며 타고르도 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여야 할것이다.》라고 주장하여 나섰었다. 그는 이에 관하여 계속하여 붉은 장미가 어떻고 당신의 레이쓰가 어떻고 하는 서유럽사람들의 노래를 본따려하지 말고 산비탈길 돌아들며 지게목발 두드리며 노래하는 초동에게 향하여 들으라고 모든 시인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호소하면서 다만 서유럽시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것만을 반대한것이 아니라 동시에 조선사람들에게는 인연이 없는 서유럽의 부패하고 저속한 부르조아상층의 생활과 소위 <문명>에 공감하는 시인들을 조소하고있으며 실지의 조선사람들이 처한 현실의 생활에 접근하여 거기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발견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적평론가로서의 엄호석의 철저한 미학관과 참다운 작가, 참다운 혁명적인 문학에 대한 견해와 립장이 표명되어있다. 당시 시인으로 행세하는 부르조아퇴폐시인들은 보드레르와 프랑스의 상징파를 본따며 인민들이 이해할수 없을뿐아니라 인민의 지향과는 인연이 없는 백치와 정신착란자들의 넋두리와 같은 무사상적인 반봉어리의 말로 시를 꾸며내고 서유럽생활양식에 도취하면서 조선사람들의 생활풍습을 멸시하는 《세계주의》에 물젖어있었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시단을 구원하며 조선사람들의 생활처지에서 빚어지는 모든 비극적현상들과 일제통치하의 제도가 선량하고 근면한 조선의 평범한 인민들을 중독시키는 모든 사회적, 인간적 악덕에 낮을 돌려 비판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현실을 공상한 조명희가 퇴폐적인 시인들에 도전한 것에 대하여 평론가가 열렬한 공감을 가진것은 얼마나 궁지로운 일인가.

더우기 오늘날도 미제의 《세계화》책동에 의하여 남조선과 일부 나라들에서 민족성을 거세한 형식주의의 별의별 사조들이 자주적인 문학을 어지럽히려고 허우적거리고있는 실정을 놓고 볼 때 엄호석이 조명희의 창작에서 섬광처럼 비친 미학적견해를 그처럼 귀중히 여기며 격찬하여마지 않은것은 우리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한다. 평론가의 견해는 본질에 있어서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주장한 매우 투철한 혁명적미학관의 집중적인 표현인것이다. 우리는 특히 평론가의 이러한 강렬한 주장이 1950년대에 쓴 평론에서 뿜어져 나왔다는데 대하여 궁지롭게 추억하며 감동하게 된다.

평론가 엄호석의 재능과 개성은 풍부한 예술적환상력과 감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이에 대하여 그의 평론의 한 대목을 통해 상기해보자.

엄호석은 《시대와 시인》이라는 리상화작가론에서 시 《금강레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 《금강레찬》은 시인 리상화가 3. 1인민봉기의 불길을 겪고나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기를 체험하고 민족해방투쟁의 정열이 더욱 솟구치며 투쟁에 열기한 인민대중의 머리위에 총검의 세례를 퍼붓고 피를 흘리게 한 일제에 대한 증오와 3.1인민봉기의 실패에서 오는 울분으로 심장이 떨릴 때 쓴것이다. 그때 리상화는 억제할수 없는 이 모든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배재중학교를 출학당한 그달음으로 집을 뛰쳐나와 무전러행의 길을 떠났다. 그에게는 집이 그의 정신적지향을 구속하며 위축시키는 답답한 동굴처럼 느껴졌기때문이다. 이 무전러행 도중에 그는 시 《금강레찬》을 썼다. 그런데 《금강레찬》은 자료가 없기때문에 작가론에서 소개할수 없는것을 매우 아쉬워하며 엄호석은 이렇게 썼다.

《그것은 이 시가 리상화의 시창작에서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한 중요한 서정시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다. 자연은 고래로 서정시인들의 예술적기교의련병장이였으며 그 시험대이기도 한때문이다. <금강레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인에게서 자연묘사의능수를 발견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특히 그것은 금강산이다. 화조월석을 노래한 소위 강호시인들의붓을 비웃기나 하듯 그 호화찬란한 자연의 의상을떨쳐 입고 우뚝 솟아 천하의 시인들을 전률케한 금강산, 이 산은 자연의 온갖 기교와 미를 모아 한몸에 지니고 시인들의 붓을 시험이나 하는듯 하다.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금강산앞에서 붓대를 꺾고낫을 불히면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지나간 세기에 우리 나라 시인들중 금강산을 묘사하고가장 성공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철을 알고있다. 그러나 금강산의 미가 없이 정철의 재능 하나만으

로 그에게서 <관동별곡>이 나올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관동별곡>의 그 아름다운 상과 표현은 금강산이 시인에게 암시하고 그의 재능을 깨우쳐준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가. 금강산의 미에 경탄한 시인의 심정에 불길이 타오른 열정, 즉 아름다운 조국의 자연에 대한 공지와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노래하려는 조국애가 없이는 정철조차 <관동별곡>의 시인으로 될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애국적열정이 없는 어떠한 평담한 자연묘사의 능수도 금강산을 노래하러 갈 생각을 그만두어야 한다.

<금강레찬>으로서 리상화가 금강산을 레찬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무엇인가 의미하지 않는가. <금강레찬>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것은 자연묘사의 시인-화가의 숨씨뿐이 아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말없는 조국의 령산 앞에서 빼앗긴 조국을 생각한 시인의 비통한 눈물자욱을 볼수도 있을것이다. 그는 빼앗긴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일제강점자들의 총칼앞에서 항거한 얼마전의 3.1인민봉기를 체험하고 울분을 안고 여기에 온것이 아닌가. 말없는 금강산은 조국의 운명을 두고 우는 시인에게 너무나 많은것을 말하여주었을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평론가의 예술적환상의 도움으로 비록 시 《금강레찬》을 볼수는 없지만 서정적주인공의 감정과 시의 읊조를 느끼게 되며 천하절승의 금강산을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기고 유린당하여 애통어 통절한 마음을 부여안고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며 타래치는 울분을 참을길 없어 금강산의 절경과 흐느끼는 시인의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아직 이것만으로 평론가 엄호석의 예술적환상력과 평론가적재능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금강레찬》에 대한 그의 감수는 시인 리상화가 3.1인민봉기의 실패앞에서 절망하고 인민의 장래운명에 대하여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비감의 경지에 머물러있기때문이다.

평론가 엄호석은 무전러행의 나날에 시인 리상화가 동해안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도래하여야 할 혁명의 태동을 랑만적으로 갈망하였다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리상화가 후일에 창작한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나 《바다의 노래》와 같은 혁명의 도래를 갈망한 혁명적시편들의 서정세계와의 련관속에서 《금강레찬》의 서정을 감수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론가의 환상에 의하여 분석음미된 시 《금강레찬》의 시행들에 굽이치고있는 미래에 대한 지향, 아름다운 조선의 금강산의 천하절승이 인민들의 가슴속에 공지와 자부, 환희를 안겨줄 그날을 열망하는 시인의 절절한 느낌을 상상하게 된다.

엄호석의 평론가적기질을 두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인생체험이 가져다준 《혜택》이라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엄호석의 면모를 우리는 《시대와 시인》이라는 저서에서 더욱 생동하게 비쳐볼수 있다.

우선 그의 기민하고 예민한 평론가적 감각과 재능을 직감적으로 느낄수 있게 하는것으로서 《시대와 시인》의 분제목들을 더듬어보자.

서문

1. 《사람과 개, 돼지와 의 싸움》
2. 그의 창작열정과 예술적견해
3. 창작의 초기
4. 개탄, 분노, 항의
5. 투사-서정적주인공
6. 농민-서정적주인공
7. 자유시와 기교

보는바와 같이 분제목자체에 기지와 재능이 번뜩이기도 하거니와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게 하며 감미로움을 느껴 어서 내용을 맛 보고 싶은 충동을 준다.

다시 그의 체험과 사색이 평론에 어떻게 침투하고있는가를 되새겨보자.

엄호석은 우의 저서의 분제목 1. 《사람과 개, 돼지와 의 싸움》에서 3.1인민봉기의 심각한 체험을 통하여 새 시대에 자각하고 자기의 빛과 정열과 사색을 조국의 운명과 결부시키려고 지향한 시인 리상화가 복잡한 심정으로 동해안의 어민들과 어촌의 굶은 생활에서 당시 조국의 얼굴을 보고 일제와 착취사회에 대한 증오를 금치 못했으며 동해안의 파도소리에서 새 시대의 태동과 혁명의 도래를 동경함으로써 미래의 무산계급의 시인으로 될 정신적 깨우침을 받고 무전러행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복잡다단한 생활과 정신적고충을 체험하며 주체 14(1925)년에 쓴 수기 《출가자의 유서》에 대하여 그렇듯 애정과 공감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론가는 최서해의 단편소설 《기아》와 《탈출기》의 문제성과 결부하여 분석하면서 《최서해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적생활의 체험이 곧 문학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이에 반하여 리상화에게 있어서 개인생활은 문학으로 곧바로 통한 길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밀어내는 알곡은 장애물이었다. 이 장애물은 리상화가 출생하여 자라난 지주계급의 가정환경, 가법과 체면의 탈을 뒤집어쓰고 낡은 관습의 기동뿌리에 사람들을 얹어매고 그 주위를 온갖 새것에 팔꿈치질하는 봉건적요귀들이 어지럽게 춤추고 돌아가는 집에 장치되어있었다.》(방점은 필자의것)라고 썼다.

리상화의 집으로 말하면 5만석의 대지주인 4촌형을 비롯하여 농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는 지주들의 봉건적인 가문이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옹호하는 일제의 착취제도와 그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 마련된 사람들의 소굴이나 같은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리상화에게 있어서 시대에 자각하고 일제가 강점한 조국의 현실을 반대한다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집을 반대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리상화에게 있어서 새 시대의 려명을 갈망하여 시를 쓴다는것은 곧 자기 집과의 충돌이었을뿐아니라 그 집에서 자라난 그의 소부르조아적의식, 그의 낡은 정신적잔해와의 투쟁이었다. 그의 수기 《출가자의 유서》는 이렇게하여 씌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리상화의 사상정신상태를 반영한 수많은 시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가 굳이 이 수기에 대하여 그처럼 정력을 기울여 붓을 달렸는가. 여기에 바로 평론가의 체험과 생활이 그의 평필활동에 작가 못지 않은 내적편란을 가지고있음을 확증해주는 근거가 있다.

평론가 엄호석은 비교적 유족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할아버지는 말총으로 갓을 만들어 파는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근근히 살았으나 아버지는 닭장사, 소장사를 하여 집안을 일떠세웠다. 그리하여 엄호석이 자기의 자서전에 쓴것처럼 《내가 출생하여 19살때까지 아버지는 논 3,000평을 소작으로 주고 밭 약 3,000평을 머슴 한사람을 고용하여 소 한마리를 매고 자작하였다. 그러므로 나의 미성년시절에는 형의 아들까지 16명 내외였으나 계량은 되었다. 그우에 아버지는 약 15리 떨어진 방진이라는 어촌에 배 한척과 자금을 대주고 해사를 하여 잡은 명태를 판매하곤하였다.》 그러므로 엄호석은 중퇴는 하였으나 중학교도 다닐수 있었다. 그는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던 8살때에 3.1인민봉기를 목격하였으나 아직 어린 평론가에게는 그것이 일본놈들을 반대하는것이라는 정도의 희미한 인식이 있을 뿐이었다. 그후 그는 소학교 6학년때에 흥원에서 무어진 소년동맹에도 참가하였다가 탄로되어 싸리채에 종아리를 얻어맞고 피도 흘렸으며 선진적인 반일사상을 가진 청년들의 영향을 받으며 점차 일제노예교육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당시 흥원 일대 특히 엄호석이 자란 마을에는 원래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는바 이런 환경에서 그는 막연하게나마 반일사상에 눈뜨게 되었으며 혁명가요도 배우고 봉건적인 구속으로 자기를 얹매여놓고 있는 집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엄호석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장을 훔쳐 입학청원서에 찍고 함흥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비밀독서회에도 가입하여 반일학생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그의 청소년시절의 세계관적성장에서 중요한 계기는 광주학생사건의 폭발이었다. 엄호석은 주체 18 (1929) 년 12월 어느날 광주학생사건을 계기로 민족적울분을 참지 못하여 학생군중시위운동을 조직하는데 적극 참가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숙에서 밤을 새며 배라를 준비한 5명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일제경관놈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시위조직이 탄로되어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불의의 정황에 대처하여 그들은 교

장실을 습격하여 《일제를 타도하라》, 《일제노예 교육제도를 반대한다》, 《체포된 광주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등 구호와 만세를 웨치며 거리로 뛰쳐 나왔다. 이때 엄호석은 5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일제경관놈들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삽시에 과급된데 당황한 일제놈들은 소위 《폭력취체법위반》에 걸린 12명의 학생들만 남겨 놓고 석방하였는바 엄호석은 계속 갇혀 있었다. 그후 20일만에 놓여 나온 엄호석은 일제에 대한 울분을 참을길 없어 다시 흥원에서 뛰쳐 나와 광주학생사건의 여파가 아직도 세차게 일고 있는 서울로 갔다. 허나 거기에서도 뜻을 이룰수 없고 또 선진사상을 섭취하려는 그의 지향을 여러가지 생활고가 겹겹이 다가서며 가로 막히되자 일본 도쿄로 건너 갔다. 거기에서 노동운동자들과 려계를 맺고 소조에 망라되어 맑스-레닌주의서적을 접하게 되었다. 주체19(1930)년 7월에는 무산자신문지국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체포되어 구류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진사상을 동경하고 일제에 대한 증오가 소용돌이치는 청년 엄호석에게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 뒤따랐다. 이국땅에서 돈이 없어 뜻을 실현할수 없게 된 그는 주체20 (1931) 년에 다시 귀국하였으나 일제식민지통치의 악착한 현실은 아버지가 하던 일마저 망하게 하였고 그가 바라던 집은 완전히 련락되어 버렸다. 하여 그는 흥원농조에 망라되어 야학운영, 계몽사업 등에 열중하면서 지하투쟁에 나섰고 출판선전물도 만들어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그러다가 일제놈들의 앞잡이의 밀고로 기마경찰에게 체포되어 악형을 당했으며 서대문형무소와 그후 대전형무소에 이감되어 약 4년간 감옥생활을 하였다.

평론가 엄호석의 청년시절에 있었던 사실의 일단을 여기에 소개하는것은 작가의 체험이 그의 창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것을 반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다시 리상화의 《출가자의 유서》에 대한 엄호석의 평론으로 돌아가자.

그는 리상화의 《출가자의 유서》에서 《나가자! 집을 떠나서 내가 나가자! 내 몸과 내 마음아 빨리 나가자! 오늘날까지의 나의 존재를 유지하여 준 고마운 은혜만 사해해 두고 나의 생존을 비롯하여 집을 떠나고 말자!》라고 한것을 인용하면서 《리상화에게 있어서 자신과 자기 녀과의 오랜 자체투쟁은 이 글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기의 부유하고 안일한 생활환경에의 자족과 소부르조아의식에 의한 미봉, 즉 소극성과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명백한 바와 같이 이 자족과 미봉과의 리상화의 투쟁은 그에게만 의의가 있는 내심의 심리적파동도 내면적탐구도 전혀 아니다. 자족과 미봉과의 투쟁은 리상화에게 있어서는 그자체와의 투쟁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소시민적지식인과의 투쟁이었다. 그

리고 그 투쟁의 전체 념원은 바로 일제와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지향되어있었다. 미봉과 자족이란 말자체가 일제와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의 소시민적도피를 의미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족과 미봉을 반대하는 리상화의 자체투쟁은 그에게 있어서 그대로 일제와 당대 사회와의 투쟁의 한 측면을 의미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리상화에게 있어서 자신안에 있는 자족과 미봉을 반대하는 자체투쟁은 곧 일제하의 현실을 반대하며 그것을 개혁하는 혁명투쟁으로의 지향의 표현이었다.》라고 썼다.

평론가가 분석한바와 같이 리상화가 한때 현실에 대한 자족에 빠져 오래동안 침체해있었다가 3.1인민봉기 이후부터 량심의 심판에 비추어 자신의 이안일나약한 생각을 추악한 정신적오물로 느끼기 시작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이 정신적오물을 퇴치하는 길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시대로부터 자기를 떼어놓는 장벽으로 느껴진 집을 결별하는 길이였다. 집을 결별하는 길만이 리상화로 하여금 자만도취의 소부르조아적속물근성을 없애며 그가 지향한 투쟁의 길로 나아갈수 있게 하기때문이었다. 하기에 리상화는 《출가자의 유서》에서 《참으로 사람이 될라면 미봉과 자족으로 개도야지노릇을 하는 가운데서 모든 기반을 끊고 나와야 한다》고 썼다. 이 생활이 자족과 미봉의 생활이 안일하게 향락적인데 비하여 얼마나 극절많은 수난의 체험이었겠는가. 그러나 리상화는 이 생활을 스스로 택하고 자신안에 있는 온갖 소시민적인 속물근성과의 투쟁, 즉 자신안에 있는 《개, 도야지와 투쟁》을 하였으며 그 길을 택하였다.

자기의 산 체험으로 《출가》의 의미를 체득한 엄호석이었기에 그는 《시대와 시인》에서 첫 제목을 《사람과 개 돼지와와의 싸움》으로 달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놓고 보면 리상화나 최서해는 물론 평론가 엄호석에 있어서도 청년시절의 탈가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며 그것이 평론의 용기를 돋구어주며 분석되었을것이다. 최서해나 리상화의 시대정신과 지향의 공통성과 심오성에 있어서 아무리 가깝고 또 출가의 경로를 다같이 걸쳤다 하더라도 두 작가의 체험의 세계에는 너무나 대조되는 두 통로가 나있었다고 볼수 있다. 최서해에게 있어서 현실에 대한 반항과 비판의 정신이 그의 생활체험의 직접적이며 솔직한 표현이었다면 리상화에게 있어서 그것은 복잡한 사상적모색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것은 이 두 작가의 대조적인 처지의 차이인바 최서해가 자신이 당대 시대의 밑바닥에 깔려 신음하면서 온갖 빈궁과 무권리와 학대를 겪은 사람이라면 리상화는 그것을 전혀 겪지 못한 착취계급의 출신이었다. 그러기에 최서해에게는 개인적생활의 체험이 곧 문학으로 통하는 길이였고 리

상화에게는 개인의 생활이 문학으로의 길에서 질곡이었다. 그러므로 최서해는 자기가 직접 당한 비참한 현실의 비판을 위해 《탈출기》를 썼고 리상화는 개,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자신의 생활에서 뛰어나 진정한 삶을 지향하여 《출가자의 유서》를 썼다. 마찬가지로 평론가 엄호석도 체험을 통하여 청년시절에 출가를 단행했던 생의 흔적이 있기에 이전 작가들의 탈가에 대한 작품에 예리한 사회적 문제와 예술적의미를 부여하여 뜨겁게 공감하며 흥분의 평필을 달렸을것이다.

평론은 창작이다. 체험과 생활을 쌓지 못한 작가가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심금을 울리는 작품을 쓸수 없듯이 생활체험이 빈약한 평론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활의 철학인 문학을 분석평가할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엄호석의 평론의 일단을 상기하며 그를 소중히 추억하는것이다.

평론가 엄호석은 예술적감각이 예민하며 뜨겁다. 그의 평론을 보면 어떤 때는 작품을 쓴 작가 자신도 무색할 정도로 작품을 감수하고 그 미학적의미와 형상의 신비로운 감화력에 대하여 터득하게 된다. 작가 못지 않은 예술적감각, 이것은 평론가 엄호석의 면모를 표상하는 하나의 특징이다. 엄호석의 작가론적인 평론 《시인 박세영》에서 시 《산제비》에 대한 분석의 한 측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그의 감수력을 찾아 보자.

평론가는 《산제비》를 시자체에만 매달려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생활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며 시의 창작동기요, 계기요 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름아닌 시인의 세계관의 반영인 작품을 통하여 시인의 창작적충동과 그로부터 배태된 《산제비》의 서정의 신비로움을 간파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시인 박세영은 주체22(1933)년에 빈궁에 이기지 못해 충청북도 보은에 있는 어느 친우에게 돈을 구하러 갔다. 친우는 그의 뜻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대신 속리산을 구경시켜주었다. 이 속리산의 인상이 그후 시인에게서 《은폭동》, 《오후의 마천령》, 《산제비》 등 세편의 시를 낳았다. 그런데 《오후의 마천령》과 《산제비》는 무려 3년동안의 긴 세월을 두고 구상되었다고 한다. 시인은 주체25(1936)년에야 《오후의 마천령》을 썼다고 한다.

평론가는 《산제비》의 서정을 《오후의 마천령》에서부터 가슴깊이 받아안았다.

《밀림을 헤치고 토막토막 끊어진 길을 찾아 시인은 홀로 마천령의 깎아지른 준령을 향하여 산정을 오르고있다. 해질무렵이 멀었건만 산허리는 이미 암흑에 휩싸이고 골짜기는 어둡다. 그러나 산정은 광명을 머리에 인듯 흰하지 않는가. 암흑을 헤치고 광명을 찾는 심정으로 우로만 바라보며 오르는 시인의 마음, 그것은 현실의 온갖 구속을 한꺼번에 벗어버리고 인간에게 인간의 본래의 위광을 도로 찾



아주는 저 자유의 왕국에로의 바쁜 걸음과 같았다. 령이 급하고 길이 험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도달될 자유로운 인간의 위광에서 시인은 물러날수 없다.》(평론 《시인 박세영》중에서)

얼마나 방불한 시인의 모습인가. 우리는 평론가가 채색하여 준 시인의 낭만적모습을 보며, 또 평론가가 되살려 준 시인의 지난 세월의 발걸음을 따르며 자유의 산정으로 오르기 위하여 온갖 난관을 헤치고 갑옷을 입은 전사와 같이 쿵쿵 산을 울리며 시인과 함께 마천령의 산정에 오른다. 그리고 모든 초라하고 어지러운 현실을 눈아래에 떨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웅한 산정만 응시하고 치달아오르는 시인의 영웅적인것의 체험에 자기의 감정을 용해시킨다.

평론가는 산정을 정복한 시인의 영웅적인것의 체험과 그로부터 울려나온 낭만주의적서정이 《오후의 마천령》의 마지막인 동시에 《산제비》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속리산의 상상봉에서 하늘을 누비며 날으는 제비를 자유의 화신처럼 느끼며 내려치는 제비들로부터 선망의 눈초리를 떼지 못하는 시인을 평론적으로 재현하고있다.

《문장대 (속리산의 산정. 이곳은 산제비의 령지로 되어있다고 한다. 필자 주)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와 천하를 내려다보고 악착하고 부자유한 현실을 떨시의 눈으로 흘기는 시인의 마음은 그로부터 울려나온 자유의 감정으로 자랑차며 또 암흑을 헤치고 광명의 상상봉에로 도달한 영웅적인것의 체험으로 그득찼다. 그러나 그의 머리우에는 그의 그러한 자유의 감정과 영웅적인것의 체험을 비웃으며 산제

비가 자유를 노래하면서 자유 그것처럼 날아 다니고 있지않는가. 시인은 몇시간후에는 다시 인간을 속박하는 현실의 암흑속으로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산제비만은 이 상상봉에 남아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 아닌가. 시인이 혹독하고 착잡한 산아래의 현실에서 부자유와 고난을 겪고있을 때 산제비는 <창들을 꽃은듯 희디흰 바위에, 아침 붉은 해발이 비칠제, ...그 꼭대기에 앉아 깃을 가다듬을것이요, 산의 정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를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휘정거리며 씻을것이요, 원시림에서 흘러 나오는, 세상의 비밀을 모조리 들을것이다.>》

선명한 자태로 안겨 오는 시인의 모습을 표상케 하는 평론가의 이 분석은 진한 묘사로 형상된 작품의 한 대목과도 같다.

평론가 엄호석은 이처럼 작가이상으로 또는 작품에 형상된 그자체이상으로 예술을 감수하고 미학적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을 가지고있었다.

하기에 그와 함께 문학활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로부터 문학수업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재능있는 평론가로 회상하며 궁지롭게 추억하고있다.

참으로 평론가 엄호석은 우리 당의 문예 사상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주체적인 문학건설을 선도하는데 적극 기여한 공로있는 당의 문필전사였다. 격동의 20세기를 추억하며 우리의 문학평론단에 엄호석과 같은 실력있는 평론가를 자랑스럽게 기록할수 있는것은 고마운 우리 당의 품이 있었기때문이다. 그 품에서 우리는 선배들이 주체문학운동에 선도의 기치가 되었던것처럼 새 세기의 주체문학건설에서 척후병이 되겠다는것을 굳게 다짐하게 된다.

## 가사

# 예가 바로 무릉도원

## 리호

기슭엔 정향나무 꽃향기에 내 맘젖고  
 풀안엔 호수 맑아 이 가슴도 설레이네  
 장군님 다너지신 우리 고향 정든 산천  
 그림같이 아름다운 예가 바로 무릉도원

물우엔 발전기의 노래소리 흥겨운데  
 물속엔 칠색송어 꽃무지개 펼쳤구나

병사들 땀을 바쳐 행복을 가꾼 산전  
 기쁨절로 넘쳐나는 예가 바로 무릉도원

애국의 한맘으로 보배산천 펼친 자랑  
 사랑의 손길어려 온 나라에 더 빛나네  
 이 강산 그 어디나 잘 가꾸면 무릉도원  
 장군님 뜻을 안고 내 조국을 꽃피우세

## 아지랑이 피는 들

리성식

## 1

영농지도를 내려왔던 군농촌경영위원회 농산과장을 바래주던 김정희작업반장은 호— 한숨을 내그었다. 자기가 일을 쓰게 못하여 정든 고장을 다녀가는 옛 제자를 마음 어둡게 해보내는것이 죄스러웠던 것이다.

승용차가 산굽이로 사라진 다음에야 김정희는 언덕길에서 내려와 종자처리장안으로 들어갔다.

종자용감자알을 선별하던 농장원들이 정희의 눈치를 살피며 서성거렸다. 오늘 불어친 찬바람에 얼뼉해진 기색들이다.

《정신들이 있소? 정신들이…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요? 정말 한심들 하구만.》

농산과장과 함께 왔던 군책임일군의 추궁이었었다.

허둥거리던 정희의 눈길은 창밖으로 옮겨갔다.

산등이며 발치뚝을 덮었던 흰눈은 벌써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한낮의 해별이 굵기는 논밭속의 흙밭은 시루떡처럼 부풀어 있었다. 당장 강냉이영양단지안에 종자알을 박아넣고 팽상모판들엔 벼씨를 뿌려야 할 농번기가 눈앞에 닥쳐온것이다. 그런데 키큰모 앞그루작물인 감자종자를 마련하느라 또 두벌농사에 필요한 진거름을 생산하느라 당면과업이 잔뜩 밀려 끝안밭들은 아직 영양단지를 찍지조차 못했으며 벼모판 바람막이는 엮어쥘은 그대로였다.

(내가 그때 경솔하게 처신한게 아닐가?)

1월초, 농장 초급일군협의회때였다.

새해 영농계획을 토의하던중 관리위원장 홍광남이 불쑥 놀라운 소리를 꺼냈다.

《다들 알다싶이 확산, 정주갈은 바다가군들에서 지난해에 논 두벌농사를 하여 많은 식량을 증산했습니다. 그래 우리 농장에서든 올해 서른정보가량의 논에 경험삼아 키큰모를 내고 앞그루작물을 심어볼려고 하는데…》

농장 기사장이 그의 말허리를 끊으며 귀뻘했다.

《우리 송암리는 그곳 별방농장들보다 년평균기온과 해비침률이 낮은 중간지대라 두벌농사를 하기 힘들겁니다.》

광남은 대뜸 눈살을 세웠다.

《올감자로 파종하면 앞그루 뒤그루작물의 생육기일을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습니다. 자, 어느 작업반에서 한번 말아 해보겠습니까?》

웅성웅성하던 소음이 삽시에 잦아들었다.

(원참, 성미두…)

정희는 집행석에 우뚝 틀고 앉은 홍광남을 은근한 눈매로 지켜 보았다. 이제는 먼 추억으로 되어버린 중학시절 학급장이던 광남이 덜렁거리며 콩밭에 서슬치듯이 덤벼치곤 하여 자기한테 추궁을 받곤 하던 일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1작업반장동무—》

광남이 기다리기가 답답한듯 지명하자 몸집 다부진 청년이 《옛—》하며 패기 있게 일어났다.

《동무가 꽤 할것 같은데… 어떻게 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리 담보받을건 만약 실수하여 수확고가 낮아져도…》

《됐소, 앓거나 하오. 동문 생각부터 글렀소. 만약이 뭐요, 만약이… 농사도 운명을 걸고 하는 전투나 같은데, 2반장동무—》

중년녀인 조심스레 일어났다.

《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운명을 건 일앞에서 심사숙고하는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려야 할 요즘 같은 땀 초급일군들의 결심채택도 되도록이면 빠르게 좋습니다. 4반장아바이—》

늘수그레한 남정이 늘어진 웅대를 앞세우며 일어났다.

《거 우선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게 우에서 내려 보면 계획인가요, 아니면 농장 자체 생각인가요?》

《군에서 정식계획을 준건 없습니다.》

《허… 거 보시우. 우리 지방실정에 맞는 농법이라면 왜 군에서랑 가만 있겠수. 쟁도 먹고 알도 먹자고 파악없는 농법을 도입하다간 쟁도 농치고 알도 깨버리는 격이 될수 있수다. 차라리 벼농사 하나를 착실히 하여 쟁이든 알이든 정확히 걷어잡는게 상책이지요.》

광남위원장의 얼굴에 그늘이 비끼었다. 그는 더 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 어떤 기대가 담긴 눈으로 한사람한사람 둘러보았다. 자제할수 없는 갈망과 애끓는 호소가 실린 그의 눈길은 문득 정희의 얼굴에 이르어 못박혔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말아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속삭임이 느껴지는 눈길을 정희는 슬며시 피웠다. 서둘러 결심할 일이 아니였기때문이다. 아직 파악이 없는 중간지대 두벌농사의 과학기술적

담보, 알그루감자재배에 필요한 정보당 열톤의 진거름 장만, 두차례의 논갈이, 종자확보...

정희의 얼굴에서 떨어진 광남의 눈길은 여기저기로 방황하였다.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한 그 눈길은 천정의 어느 한점만 멎더니 더듬었다. 정기가 스러들던 눈에 돌연 섬팡이 병꽃 일었다.

《다들 알다싶이 지난 해 우리가 농사를 잘못 지는데다 자연피해까지 입어 식량사정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형편에서 가능성만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그 침울한 음성은 정희의 귀안에서 드르릉— 공명을 일으켰다.

정희는 저도 알수 없는 충동에 떠밀려 일어났다. ...

삐그득— 문 열리는 소리가 정희의 상념을 깨치었다.

1분조장 리보금 (옛 청년분조원) 이 종자처리장 안에 들어왔다.

농장원들의 불안한 거동이며 정희의 어두운 얼굴 표정을 살피던 그는 조심히 정희곁에 다가섰다. 온통 흙매닥질이 되고 땀에 젖은 보금을 말없이 마주보는 정희의 마음은 좋지 않았다.

홍광남관리위원장이 결심한 30여정보의 키큰모재배를 말아나선 김정희는 작업반의 매 분조에 몇 정보씩 도입하려다가 생각을 바꾸어 대답하게 어느 한 분조에 전면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여러면에서 합리적이었기때문이다.

정희는 자기가 그중 믿어오는 옛 제자인 보금이 한테 키큰모재배를 맡겼다.

쓰다달다 대답이 없던 보금은 며칠후에야 나직한 한숨끝에 응해나섰다.

《해야지요 뭐. 선생님의 요구인데.》

보금은 정희와 맞잡고 1월 소한추위때부터 개바닥파기, 읍거리분토실어내기 등 진거름 장만을 힘차게 내밀었고 다른 도에까지 다니면서 감자종자도 구해왔었다.

(내가 괜히 보금이란 고생시키는게 아닐가?... 그러지 않아도 맘고생이 많은 녀잔데...)

작업반 기술지도원을 하던 보금의 남편 서용준 (옛 청년분조원) 은 병으로 두해전에 사망했었다. 린접리의 판상에서 나오는 《흰돌》을 원료로 하여 자급비료를 생산하는 연구를 다년간 해오던 서용준은 자의대로 그걸 벼모판에 쳤었다. 푸르싱싱하기를 바랬던 벼모들이 일시에 죽어버리는 일이 빚어졌다. 안타까이 뛰어다니던 용준은 시름시름 앓다가 잘못되였다. 그때 사람들속에서는 용준이 공명심에 들떠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고 본인도 제명을 다 못살았다는 뒤소리가 돌았었다.

런민의 정에 초롭히 젖은 정희의 시선을 슬며시 물리치며 감자종자앞에 쭈그리고 앉던 리보금이 강인한 어조로 뇌였다.

《어떻게 하나 우린 성공해야 합니다. 아니, 난 실제로 증명하겠어요.》

《...증명해야 한다.》 그 말마디가 왜서인지 정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희는 연구소에 《흰돌》의 비밀을 밝혀 줄것을 남모르게 의뢰했었다. 허나 아직 소식은 없었다.

## 2

3월말... 절기는 어느덧 춘분을 넘었다.

산등에선 봄의 선구자인 진달래들이 연분홍색 봉오리를 터뜨리고 들판에선 프락프락들이 분주히 논밭을 갈아엎기 시작했다.

...김정희반장은 소후치로 이랑을 짓고 있었다.

웃저고리며 로동화를 씨원히 벗어 논머리풀밭에 놓은 그는 종아리가 드러나도록 바지가랭이를 걷어 올리고 완만한 동작으로 이랑, 깎길 소를 몰아갔다. 누렁황소의 몽툰한 발통이 쿡쿡 박히는 기름기 번지르르한 검은 흙을 무죽하고 뽀죽한 보습날로 슬쩍슬쩍 들추어 량쪽 이랑둑에 뒤갈라 붙이는데 그 숨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스름스름 부풀어 오른 팔보숭이같은 흙밥을 밟을적마다 발바닥에 마쳐온 야릇한 촉감이 피줄을 타고 온 몸으로 흘러 퍼져 정희의 땀맺힌 얼굴에는 흥조가 연연히 비껴 흘렀다. 오룩이 빠근하도록 일손을 놀리니 마음은 편안해지고 흥겹기만 했다. 흥겨우면서도 한편으론 앞에 놓인 허다한 일감으로 하여 은근히 긴장되였다. 그 긴장은 어느새 걱정으로 변했다. 걱정은 흥에 뜨고 피로에 지쳐 느적느적 옮겨지던 걸음을 조급하게 재촉하는지라 숨 한번 돌리지 않고 소후치를 돌려 세워 맞은편의 논두렁을 겨냥하여 힘껏 내달았다. 앞가슴을 한껏 풀어 헤친 대지는 보습날로 살거죽을 간지럽히자 허득허득 흐드러지도록 기지개를 켜다. 호함진 입새로 뿔어져 나온 허연 땅김이 비단필마냥 칠칠이 발목을 휘감고 눈시그러운 아지랑이는 느물느물 기름진 들판을 굼닌다.

《그러다 앓아눕겠네...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고랑에 종자감자를 쟁싸게 묻어 나가던 리보금은 은근한 어조로 뇌였다.

《쉬엄쉬엄?... 앞으로 할머니가 되면 그러지.》

정희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자 보금은 울상을 짓는다.

《이제 보십시오. 사흘같이 하루에 다 갈고 열흘 앓는 격이 되질 않나.》

작업반들의 봄씨불임정형을 돌아 보다가 이곳에 이르러 한숨 돌리던 홍광남이 말을 하였다.

《동문 본전도 못찾을 소릴 하면서 그래. 설사 열흘 앉아놓는한이 있어도 하루에 다 안하곤 못견디는 선생님의 성미를 몰라?》

《어마, 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본전과 리득금에 대한 견해가 왜 그래요.

거기 서서 보지만 말고 어서 와 두엄이나 좀 뿌려줘요.》

보금은 생글거리며 광남의 손에 삼태기를 쥐여주었다.

광남은 웃으며 두엄을 담아 왔다.

그가 두엄을 뿌리고 다시 가 담아오기 바쁘게 보금은 두엄놓은 고물에 감자쪽을 묻어치웠다. 보금의 일숨씨가 어찌나 여무지고 날랜지 광남은 한사람도 당하기 힘겨워 숨이 턱에 닿아 뛰여 다녔다. 그럴수록 보금은 《빨리요, 빨리요.》하며 재촉하고 광남은 땀을 흘리면서도 좋다고 히죽 웃었다.

다른 너인의 고풍에 두엄을 나누던 남정(옛 청년분조원)이 그 모양을 보고 웃어댔다.

《분조장동문 이번 초급일군회의때 욱사발대접을 받겠는걸. 관리위원장한테 잘못 보였으니.》

《호호, 뭐래요. 욱해주면 다음번엔 더 세계 시키겠어요.》

《여, 동무들- 쓸데없이 앉은방아만 찼지 말고 어서 따라 오라구- 저 앞산에서 삐죽새가 알을 낳았으니 빨리 오라고 삐죽삐죽해-》

정희는 혼자 웃었다. 40고개에 올라선 옛 제자들이 어떤 때는 50대의 장년들처럼 무겁고 원숙하다가도 이따금 저렇게 옛 시절때처럼 무뎠없이 룡을 하며 웃는걸 볼 때면 애뜻한 감정에 젖어들어 시름있고 웃는 그였다.

광남이가 정희한테로 다가갔다.

《선생님-》

정희는 당황하여 주변의 농장원들을 살폈다.

《관리위원장이 일개의 작업반장아낙네한테 자꾸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머리를 긁적이니 어디... 그러지 말고 <반장동무->, <해야겠소->이래요. 그래야 나도 따분하지 않고 서로 사업상 편리하지요.》

《원 선생님두...》

광남은 뒤머리를 긁적거렸다.

《제가 두벌농사를 주장한 바람에 선생님만 고생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줄은 몰랐는데...》

《왜 후회돼요?》

《후회하는건 아니데 어쩐지 막연한 생각만 드누만요.》

《너무 우려할건 없어요. 시작이 절반이라는데 이런 이렇게 벌써 앞그루를 심지 않나요.》

월참에 정희는 방쪽너머 달래천으로 내려 갔다. 맑고 시원한 내물속에 발벗고 들어 서서 활짝 세수를 하였다.

손바닥을 오그려 물을 떠 올리던 정희의 손이 허공에서 주춤 굳어졌다. 수면에 나타나 어룡거리는 너인의 모습에 눈길이 미쳤던것이다. 이마에 잔주름살이 덮이고 허리가 동식해진 농촌너인, 두엄내가 물씬 풍기는 허름한 작업복...

(내가 언제 이렇게 됐는가? ...)

허거픈 느낌이 가슴 한끝을 스치는 순간 그 낮설은 너인을 가리우며 한 처녀가 나타나 생글생글 웃는다. 동자가 까만 반달눈, 미출한 몸매, 향수내 짙은 미색양복... 교원시절의 자기 모습이었다. 아, 잊을수 없는 그 소중한 시절...

정희는 농촌에 있는 외가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었다. 어린 정희는 옛말을 들으려 즐겨 동네 좌상로인네 집을 찾아 갔다. 좌상로인은 조무래기들을 곧잘 동화의 세계로 이끌어 가곤 했다.

《먼 옛날 한 착한 소녀가 살았단다.》

...그 소녀가 들에 홀로 앉아 울고 있었다.

그때 젖빛운무가 드리우더니 하늘에서 학을 탄 신선로인이 내려 왔다.

《애야, 넌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할아버지, 전 황금동산을 찾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황금동산엔 어이하여 가는고?》

《풍년이삭을 가져다 마을사람들한테 줄려고요. 난 우리 동네를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사는 락원으로 만들고 싶었했어요.》

《그 마음 실루 가룩하도다.》

신선로인은 한쪽에 쇠불이가 달리고 다른 한쪽에 나무막대기같은것이 달린 별나게 생긴 물건을 소녀한테 주었다.

《이 보물지팡이가 너에게 황금동산으로 가는 길을 알려 줄것이로다. 그걸로 아지랑이 피는 들판을 두드리며 이랑아, 이랑아, 문열어라-하거라.》

소녀가 보물지팡이를 받아 발이랑을 두드리자 켜갈라지면서 별의별 이삭들이 주렁진 황금동산이 나타났다. ...

정희는 그 착한 소녀가 되고 싶었다.

희망이 하늘을 날던 시절 그는 자주 공상에 잠겼다. 흰 위생복차림의 너학자가 꽃다발을 받으며 비행기에 오른다. 비행기는 창공을 훨훨 날은다. 너학자가 행복의 씨앗을 뿌리자 잡초 우거졌던 땅에선 곡식포기가 키를 솟구고 황금바다가 펼쳐진다. 집집의 터밭마다엔 절구통같은 강냉이이삭이 주렁지고 동이만한 호박이 처마끝에서 데룡거린다. 나비

들은 좋아라 춤을 추고 새들은 뻗뻗쭙쭙 노래를 부른다.

그 꿈이 후날 대학의 교정에 들어섰을 때 생물학부를 택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정희는 교원이 되었다. 교단!... 보다 더 의미있고 아름다운 창공으로 꿈의 비행기는 날아갔다. 그 비행기안은 착한 소년소녀들로 가득찼다. 녀교원은 미래의 주인들에게 아름다운 희망을 열심히 심어준다.

《종의 번식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열매는 푸른 잎이 있어야 하고 푸른 잎은 뿌리를 품어주는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양이 바로 넓은 들의 밭과 논인것입니다.》

어린 녀들이 그 토양에 깃을 내리기 시작한다.

《선생님, 강냉이이삭은 독만하고 벼알은 호박만 하게 만들수 없습니까? 그러면 배불리 먹으며 잘 살수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착한 소년소녀들은 황금동산을 찾아 길을 떠났다.

읍중학교에서 수십리 떨어진 외진 농촌 송암리로 집단진출을 펼기했던것이다.

담임교원 정희와의 작별을 앞두었을 때 제자들은 석별의 정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보였다.

《우리 선생님과 헤어지고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갑시다!》

날개가 채 돋지 않은 제비새끼들을 대공에 내놓는것만 같아 근심을 못놓던 정희는 저도 모르게 그들을 꼭 품안았다.

《나도 동무들과 헤어지고싶지 않아요!》

제자들이 농촌에 나가 구실을 하도록 함께 나가 도와주고싶었다. 자신도 옛말속의 착한 소녀가 되어 힘찬 로동으로써 풍년이삭을 마련해오고싶었다. 농촌제제를 받아안고 전당, 전국, 전민이 농촌에 려량을 집중하던 격동하는 시대의 흐름은 정희를 선뜻 그 길에 나서도록 충동했었다.

꿈의 비행기는 공상의 하늘에서 내려와 현실세계인 농장벌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 농장벌에 곡식꽃이 피었다 지기를 스물두번...

말다툼소리가 정희의 추억을 멈춰세웠다.

《관리위원장으로서 권세를 쓰자는건가요?》

《권세가 아니라 권고요, 남편 친구로서...》

방쪽너머 논머리에 광남이와 보금이 마주서있었다.

정희는 신을 신고 방쪽우로 올라갔다.

《왜들 그래요?》

보금은 황망히 일하던 곳으로 가버리자 머쓱해서 있던 광남이 사연을 터놓았다.

《보금동무가 용준동무가 하던 <흰돌>가공을 계속 한다기에(군 토양분석실 기사를 통해 알았다고 한다.) 제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용준동무가 그것때문에 지금도 좋은 소릴 못듣는데 이제 또 그걸 들고 나오면 굶어 부스럼이라고 세상 떠난 남편의 명예만 더 어지럽히지 않겠습니까.》

《?! ...》

뜻밖에 알게 된 문제로 하여 정희는 마음이 번잡해졌다.

《보금동무가 홀몸에 안팎으로 고생이 많은데...

참 선생님, 요즘 구룡산에 가 있는 보수반사람들에게 보금동물 생각해서 땀나무 두어차를 해 오도록 파업을 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저녁무렵 땀나무단을 가득 실은 달구지 석대가 보금이네 집앞에 와 벗어 섰다.

정희와 광남은 흐뭇한 심정을 안고 달구지뒤에서 있었다.

천만뜻밖의 대접이 그들을 맞아 주었다.

《난 이따위 동정은 달갑질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건 이런 선심이 아니예요.》

보금의 눈에선 원망의 눈물이 번뜩거렸다.

### 3

...

연분홍치마저고리를 입은 리보금과 양복차림의 서용준이 나란히 산등성이를 오른다. 등성이우의 공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웃고 희귀한 열매들이 주렁져 있다.

그 행복의 동산으로 함께 가려고 정희도 용준이네를 부지런히 뒤따른다.

보금이가 갑자기 돌아 서더니 정희를 흘겨본다.

《당신은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담임선생이지. 동무네 부부를 소개해준...》

《우릴 따라 오지 말고 판곳으로나 가 보세요.》

정희가 아연하여 굳어진새 보금이네는 흰 구름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린다....

머칠전에 끝 꿈이었다.

정희는 작년에 논두벌농사로 소문을 낸 바다가 농장을 찾아가 재배경험도 듣고 또 20여년간의 논농사체험에 기초하여 벼의 생육기일만 단축하면 중간지대에서 얼마든지 두벌농사를 성사시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었다. 생육기일을 단축하는 근본문제는 벼의 초기생육을 좋게 하는것이였다. 그래야 논판에 옮겨진 다음 인차 뿌리얹이에서 깨어나 왕성히 자랄수 있는것이다. 더구나 키큰모란건 잎이

열두어개씩 들고 아지까지 한껏 찐 다음에야 옮겨 심게 되니 모판에서의 비배관리가 아주 중요했다.

모판의 벼모가 한창 푸르러가자 정희는 조급해나기 시작했다. 연구소에서 아직 소식도 없으니 그것도 문제였다.

어느날 아침, 작업배치때문에 보금이네 집을 찾아갔던 정희는 놀라운 광경과 맞닥들었다.

연기가 뿔양게 서린 창고안에서 보금이 《흰돌》을 불에 굽고있었다. 뜨락에 들어서는 정희를 보자 황황히 창고문을 닫고 시침을 따는것이였다.

벼뿌리성장을 촉진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한다는 그 《흰돌》이 정희의 마음을 끌었다.

그것으로 키큰모재배에 리용할 결심을 가진 정희는 관리위원장을 만났다.

《보금동무가 성과를 보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서용준동무를 위하는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남편이 하던 일을 그가 성사시키면 좋지 않나요.》

《어쨌든 선생님이 잘 알아서 하십시오. 두벌농사에 리용하겠더니 더 막진 않겠습니까.》

광남은 선선히 승낙하였다.

본인인 보금이라도 은근히 기뻐하는 눈치였다. 생산은 자기가 맡겠으니 그후의 일만 책임져달라고 했다.

수십리 먼곳에서 무거운 광석을 운반해다 불에 구워야 하는 힘든 일을 그한테만 맡길수 없어 정희는 맞잡고 하자며 나섰다.

그러자 보금은 막 짜증을 냈다.

《만드는건 참견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그런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 ...》

그날밤 바로 반갑지 못한 꿈을 꾸었던것이다.

생각할수록 섭섭하고 노여웠다.

...정희는 오늘 소달구지를 몰고 가서 《흰돌》을 실어왔다. 벼모는 한잎, 두잎 자꾸 자라는데 보금이한테만 자급비료생산을 맡기고 있자니 속이 끓어 견딜수가 없었던것이다.

어슬넙에야 집에 들어선 그는 서둘러 저녁을 지었다. 광석을 한삼태기 아궁안에 담아다 넣고 장작불을 지켰다. 미구하여 시뻘건 불덩이로 변했던 광석이 푸시시 가루로 변하여 흩어지곤 한다. 류다른 냄새가 아궁안에서 새어나왔다.

정희는 반찬도 볶아내고 집집승묵이도 가공하느라 그 냄새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저녁을 다 짓자 방바닥 물걸레를 놓는데 별스레 속이 흐리흐리해왔다. 종일 피로에 지친 몸이 막 노그라 들었다. 옷입은채로 누워 관리위원회 축산지도원인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외동딸이 대학에 가 기숙사생활을 하는지라 내외간 둘이서 살았다.)

아침에 깨어나니 남편은 근무를 서는지 그때까지도 안들어 왔었다.

아침끼니도 하고 돼지물도 끓여야했기에 또 불을 땀다. 얼마후 불길과 어울려 노르스레한 연기가 날름거리고 엿저녁과 같은 냄새가 다시금 코를 찌른다. 앞이 어질거리고 속이 메스메스해왔다.

이상한 예감이 정희의 뇌리를 쳤다.

(물질이 열분해되면서 배출하는 유해가스가 아닌가? ...)

불을 다 때고 방안으로 들어 가는데 머리가 핑돌았다. 가까스로 벽을 짚고 들어 가 풀썩 주저앉았다.

불현듯 2년전의 그 피골이 상접했던 용준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늘 뻔뻔하게 피발쳐 있던 눈, 별로 맥을 못추고 허둥허둥하던 행동거지...

(용준동무가 저 유해가스의 피해로?! ...)

언젠가 그와 나란히 걷던 일이 떠올랐다.

《얼굴색이 말이 아니예요. 병원에 한번 가 종합검진을 받아 봐요.》

《병원에 가야 소용없는 병입니다. 허허.》

비장하게 들러 오던 그 음성...

(아, 그래서 그가...)

충격에 놀라난 심장이 쿵쿵 흉벽을 두들겼다.

서용준이 자기가 만든 자급비료를 모판에 뿌리겠다고 제의했을 때 정희는 단마디로 막아 버렸다. 파악없는것을 쳤다가 농사를 망치면 어쩌랴 하는 생각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이젠 진짜 행정일꾼이 다 되었구만요.》 웃으며 물러난 용준이 제 고집대로 일을 벌였다가 술한곡식을 죽였을 때 속으로 얼마나 그를 욕했든가... 허공을 방황하던 정희의 눈길은 맞은편 바람벽에 가 못박혔다. 액틀을 곱게 짜서 넣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정희의 결혼사진이였다. 손재간이 있던 서용준이 청년분조합숙생활을 할 때 정성들여 만들어 걸어 준것이다.

스물일곱명의 처녀총각들이 하루새에 새각시로 변한 연분홍치마저고리차림의 옛 담임교원을 에워싸고 활짝 웃고 있다.

말 타고 싱글벙글 새서방

가마 타고 얹전 빼는 새각시

옛 제자들은 스물일곱잔의 축배를 부으며 저저마다 애원하였다.

《선생님, 이젠 학교로 돌아 가십시오! 선생님은 다시 교단에 서야 합니다.》

그 눈물어린 청원을 정희는 조용한 미소로 받아들였다. 《식량은 행복의 첫 조건이라고들 말하지요. 바로 그 식량을 생산하는 투쟁의 선두가 내 인

생의 교단이에요. 그 길에서 나의 희망은 곡식포기의 이삭으로 주렁져 조국의 푸른 하늘에 향기가 되어 날을것이고 나의 사랑은 행복의 등불이 되어 동무들의 가정에 웃음으로 뿌려질거예요.》...

헌데 오늘 뜻밖의 회오가 그 궁지를 여지없이 깨버린것이다.

늦은 아침.

부엌문이 벌컥 열리었다.

보급이가 숨가빠 들어섰다. 어제 정희가 《흰돌》을 실어온걸 알고있는 그는 정희가 늦도록 출근하지 않은것을 알고 그달음에 뛰여온것이다.

가스냄새도 맡고 아궁안도 들여다보던 보급이 울상을 지었다.

《야, 정말... 어찌자고 이럽니까? 이 물건은 외딴 곳에서 태워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하는건데.》

정희는 매시시 다붙여졌던 몸을 가까스로 다잡았다. 담담한 눈빛으로 보급을 내다보다가 나무람을 썼다.

《보급인 앞으로 다신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아. 그저 이웃집 명심이네 엄마라고만 해. 제속도 담대로 줄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선생님이로 삼겠어. 옛날에 배운적이 있다고 선생님이라 하는건 한갓 말치레에 불과할뿐이지.》

그 소리에 보급은 얼굴을 싸쥐었다.

《차마 선생님을 어떻게 이런 일에까지... 선생님만은 안됩니다.》

정희는 그의 웅심에 눈곱이 저려왔다. 했으나 그의 심장에 자기라는 존재가 들어있지 못했음으로 하여 노염을 누를수가 없었다.

《이 김정희가 도대체 무슨 존재야? 나도 쌀이 있어야 살 사람이고 그 쌀을 얻자고 일하는 농민이 아니야. 보급인 벌써 <고난의 행군>때를 잊었어?...》

목이 꼭 잠기여 정희는 말을 더 잊지 못했다.

...보급은 정희앞에 남편의 실험일지를 내놓았다.

손때묻은 두툼한 책에는 값죽고 질좋은 자급비료원료를 얻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바쳐온 흔적이 여려있었다.

※《흰돌》... 80도이상의 열에서 유해가스 발생, 위험! ...

정희의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가스피해를 받지 않는 가공법을 택해야 했으나 그인 식량난이 어려워진 때 제 한몸만 생각할수있는가고 하면서 투신하더니 끝내...》

눈물에 젖은 보급의 음성이 울리는 순간 용준의 얼굴이 실험일지우에 나타나 정희를 올려다보았다. 《선생님, 자급비료생산을 부탁드립니다!》

그 절절한 웨침은 정희의 마음속에 메아리를 일으켰다.

(용준동무, 이 담임선생을 믿으세요.)...

김정희는 고심끝에 용준의 경험에 기초하여 《밀페된 방에서 저열가공법》을 완성하였고 곧 자급비료생산에 들어 갔다.

어느날 군농촌경영위원회 농산과장인 최윤철(옛 청년분조원)이 송암마을에 나타났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선생님.》

윤철은 애원조로 충고를 하는것이였다.

《군당에서는 송암리 옛 청년분조원들을 농장들과 군의 책임일군감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걸 쳤다가 또 사고가 나면 용준동무의 과오가 되풀이될건 물론이고 보급동무나 광남동무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토막의 일화가 정희의 눈앞을 스치였다.

...천성적인 약질인 용준이 감기로 앓아 누웠다.

그의 입맛을 돌구자고 호실장인 윤철이 대낮에 물고기잡이를 하였다. 그러다나니 그날 작업과제로 맡았던 면적의 강냉이밭 비료주기를 수행할수 없었다. 일 안하고 놀았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했기에 말은 이랑의 량컨머리에만 주고 남은 비료는 슬그머니 창고에 가져다 쏟았다. 작업조를 책임졌던 광남은 그걸 알고도 물고기잡이목적을 생각하여 모르는척하였다.

그 사실을 안 정희는 되게 문제를 세웠다. 작업총화를 끝낸후 비료주머니를 차고 나가 비료를 치지 못한 구간의 강냉이포기들을 세여 가며 말끔히 비료를 주었다. 따라 나와 잘못을 비는 윤철이와 광남을 눈물이 나도록 질책했다.

《량심을 속이다니?! 부정행위를 한 동무넌 영락없는 락제생이예요. 교실안에서의 락제는 나머지공부를 한후 재응시로 퇴치할수 있어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오늘에 와서 락제는 만회할수 없는거예요.》

...

윤철이 농업대학으로 떠나던 날 부르던 노래소리가 귀가에서 울리는듯 싶었다.

아-아- 언제나 잊지 말자 우리 우정

정희는 윤철의 간절한 눈길을 물리치며 오금을 박았다.

《동무들을 위하여는 그 마음은 귀중한거예요.

하지만 나라의 리익을 외면하는 그런 우정은 사심에 불과할뿐이예요. 자기 동창생들이 시대의 주인으로 살도록 진정으로 도와 주고 힘껏 밀어 주는 것이 참다운 우정이 아니겠나요.》...

정희는 누가 뭐라든 주저없이 자급비료를 여러판의 벼모에다 시험적으로 주었다.

뜻밖의 결과가 다시금 사람들을 놀래웠다.



벼모들이 시들시들 병들기 시작한것이다.  
《뚱뚱지갈은것》을 착안했던 서용준이며 그의  
일을 되풀이한 김정희반장에 대한 뒤소리가 돌았다.

#### 4

풀잎 깔린 늪에선 물고기 뛰어놀고  
벼들 솟은 언덕엔 기러기떼 날아드네  
밭이랑 벼모판엔 곡식포기 푸르르고  
점심밥 주머니엔 달래반찬 향기롭네

김정희가 청년분조장을 하던 어느해 봄철 논머리  
풀밭에서 휴식참 오락회를 할 때 읊은 즉흥시였다.

그때의 그 풀밭에서 《고난의 행군》시기 농업전  
선을 탄원해온 새 세대 청년분조원들이 군중무용을  
벌리며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었다.

흔들레벌이 한눈에 안겨오는 달래천방쪽에서 정  
희는 옛 생활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 유쾌한 광  
경을 하염토록 바라보았다.

손풍금을 안고 쿵짜, 쿵짜짜... 《웅헤야...》의  
음률을 건드리지게 이어가던 단발머리 청년분조장  
이 정희를 띄여보고 생글 미소를 뿌린다.

《반장동진 우리가 공부한 읍중학교의 생물교원  
이었다지요. 아이, 우린 그런것도 모르고... 이제부  
턴 반장동질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어요!》

선생님!... 그 정다운 부름소리는 정희를 창조와  
혁신으로 부단히 떠미는 원동력이었고 마음의 채찍  
이었다.

정희는 바빠 걸음을 옮겼다.

앞그루작물을 심은 논배미들만 내놓고 모든 논들  
에 모내기를 끝낸 작업반은 며칠전부터 김매기전투  
를 벌리고있었다.

개굴개굴  
조-울 조-울

개구리들의 경쾌한 음향에 박자를 맞추며 종종걸  
음치던 정희는 주춤 멈춰섰다.

논머리에 우두커니 서있는 홍광남을 띄여본것이  
다.

광남은 두령너머의 앞그루 감자포기들을 내려다  
보며 담배만 뺨뚝뚝 빨아댄다. 무척 속이 타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엇그제 군에 불리위가 상태가 씨  
원치 않은 키큰모모판때문에 귀야픈 욕을 먹었고  
《삼십정보의 논을 묵이는 경우 용서받지 못한다》  
는 운명의 선고와도 같은 추궁을 당하고 왔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광남이 고개를 든다. 자기를  
지켜보는 정희를 띄여보고는 얼른 담배불을 끈다.

광남의 입에서 부지중 한숨이 새어나왔다. 정희  
는 그한테 신심을 주자고 일부터 웃음을 지었다.

《키큰모모판에 비료를 주니 상태가 한결 좋아지  
는듯 해요. 병든 모(흰돌가루를 친것)는 내가 책임  
적으로 호전시킬테니 너무 걱정하진 말아요.》

광남은 고개를 수그리더니 물숨을 꺼지게 내 분  
다. 실망과 근심이 무겁게 실린 한숨이다.

지금 자기 심리도 그와 다름이 없는지라 정희는  
더 다른 말을 못하고 그자리를 뜨고 말았다.

분조원들과 김매기작업을 끝내고 키큰모모판에  
들어 서던 정희는 쪽잠을 자는 보금을 보았다.

무슨 속상한 꿈을 꾸는지 실그러진 눈가에 눈물  
이 방울져 있었다.

잘름한 허리며 예쁘장한 얼굴 그리고 보라빛내의  
를 부풀면서 보기 좋게 두드러진 앞가슴... 시샘이  
날 정도로 젊고 매력있는 보금을 애모뻔 여겨보던  
정희는 웃저고리를 벗어 그의 어깨우에 씌워 주었  
다.

보금은 잠결에도 중얼거렸다.

《...증명하고야 말겠어요.》

(그래, 증명해야 하구말구. 연구소에서는 어떤 결  
파가 나왔는지.)

다음날 중낮무렵 이였다.

배불룩한 가마니들을 실은 트랙토르가 작업반실  
마당에 들이 닥쳤다.

홍광남관리위원장이 차에서 내렸다. 주변을 두루  
살피던 그는 축사건설때문에 작업반실가까이에서  
돌아치는 정희한테로 정정정정 다가 왔다.

《하지강냉이를 실어 왔습니다.》

《아니 그건 왜요?》

《키큰모상태도 씨원치 않지 또... 만약을 생각해  
서...》

《그럼 논에 강냉이를 심겠다는거예요? 원참...》

《일이 아차하는 경우 논을 그냥 묵일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내기 끝난지도 오래니 벼모 얻어올데  
도 없지... 오늘아침 또 전화가 왔는데 우에선 막  
야단입니다. 법기관에 넘기겠답니다.》

정희는 어이없이 웃고 말았다. 저 사람이 홍광남  
이가 맞긴 맞는가?! 떡메같은 주먹으로 허공을 췌  
흔들며 《농사도 운명을 걸고 하는 전투나 같다!》  
하고 웨치며 생소한 논두벌농사를 시작한 그 관리  
위원장이 웬단 말인가?!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전 지금 선생  
님이 홍광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신념이 없는 일꾼, 배짱이 약한 사내, 의리가 없는  
제자... 하지만 전...》

(이왕 운명을 걸고 시작한 일인데 끝장을 봐야지  
그렇게 중도에...)

《끝장을 봐야 옳다는걸 모르는건 아니지만 전...  
농장책임일꾼으로서의 량심이 그걸... 수십정보의  
논을 묵인다면 그이상 나라앞에 큰 죄악이 어디 있  
겠습니까.》

《그런 말로 자신을 변명하지 말아요.》

이런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정희는 겨우  
삼켰다. 서둘러 타매할수가 없었다. 자기앞에는 옛  
날처럼 생각 나는대로 말하고 맘대로 닦아 세우던  
애송이학생이 아니라 구레나룻 거뭇한 관리위원장

이 서있었기때문이다. 하지까지는 모든 종자가 땅에 들어가야 할 계절의 법칙이 머리속을 회오리쳤던 것이다.

안타까움을 속에 품고 모태기느라니 가슴이 활랑거리고 숨이 가까왔다.

《농장의 호주는 이 홍광남이 아닙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으니 선생님은 하라는데로만 하십시오. 논두벌농사를 주장하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만해요-》

정희는 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

달래천 풀밭에 이른 그는 풀썩 주저앉아 얼굴을 찌푸렸다.

(광남이... 동무가 그럴줄은 차마 몰랐구나.)

분하고 안타까운 감정은 눈물로 변해 흘러나왔다. 두어깨가 잔가락으로 오르내렸다.

송암마을 동구인 달래천 건늌목... 바로 이곳에서 농업대학으로 떠나는 윤철이와 광남을 바래주던 날 정이 들대로 든 그들을 영영 놓아버리는것 같아 주저 앉아 남몰래 운 정희였다. 5년후 그들이 대학 졸업증을 안고 나타났을 때는 여기서 그들을 맞으며 반갑고 기뻐서 눈물을 보였었다.

기뻐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울지 마십시오, 선생님. 운다고 만사가 해결되겠습니까.》

누군가의 음성이 정희를 놀래였다.

환각의 안개발을 더듬는 정희의 시야에 불현듯 스물일곱명의 얼굴이 확대되어 안겨 들었다. 아, 그 별같은 눈동자들... 향학열에 불타는 스물일곱쌍의 눈길들은 정희를 어제날의 교단으로 떠밀어간다.

《식물의 빛합성은?...》

《해빛을 받은 잎의 엽록체에서...》

또랑또랑 막힘없는 대답을 올리던 그들!

정희가 《아-》하면 일제히 《아-》하고 정희가 웃으면 저희들도 신이 나서 들까불고 정희가 눈물지으면 덩달아 눈물짓던 제자들이다.

문득 정희의 귀가에서는 요전날 전화를 걸어온 최윤철의 침울한 음성이 되살아 울렸고 눈앞에서는 모판머리에 시름겹게 앉아 졸던 보금이며 비판에 빠져 동요하는 홍광남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군과 농장들에서 그리고 작업반들에서 책임일군, 초급일군으로 사업하는 제자들이 이 시각 스승의 기분상태를 따라 실망에 잠겨있으리라는, 하여 온 농장이, 온 군이 동요하고 시대의 흐름이 잠시나마 정지된다는 자각이 정희를 놀래웠다.

정희는 애써 자신을 다잡고 일어 났다.

## 5

걸어서 하루, 렬차로 이틀...

농업과학분원 ○○연구소로 찾아가는 길은 멀기도 했다.

피곤보다도 시간에 대한 생각이 더 정희를 괴롭혔다. 배낭속의 지함안에 넣은 병든 키큰모며 뿌리흙만 아니었다면 그는 도중에 당장 되돌아 가 곡식밭의 김을 한포기라도 더 잡아 뽑았을것이였다.

물론 그는 《흰돌》로 만든 자급비료가 논두벌농사를 성사시키는데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거나 근본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 자급비료의 실용성을 확증하는것이 이미 세상을 떠난 한 기술일군의 곡해당한 량심도 빛내여 주고 한 젊은 관리위원장의 잃어 버린 신념도 되찾아 주는 일이라는 자각으로 멀고 힘든 길에 서슴없이 나섰던것이다.

더구나 보금의 일로 하여 둘가 설수가 없었다.

서용준에 대한 뒤소리를 들은 보금은 정희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었다.

《선생님이 보증 좀 서십시오. 그래 우리 은덕아 버지가 혼장을 탐내 그런걸 만들었나요? 유해가스 속에 생명을 내댄 그이를 어쩌면...》

보금은 더이상 못참겠다며 남편의 실험일지를 들고 리당과 군당을 찾아 다녔다.

정희는 그를 꾸짖었다.

《보금이가 지금껏 증명하겠다고 버르어 온게 고작 그거였어? 제 남편 하나의 청백성이나 확증시키려는... 용준동무가 지금 살아 있다면 보금의 귀뺨을 후려쳤을거야.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우린 한시 빨리 누구나 뺨심들여 일하면 내 나라의 강성대국으로 된다는걸 증명해야 해.》

정희는 자연히 마음이 서글퍼 졌다.

자신이 그들한테 심어 주고 가꾸어 온 뉘이란 과연 어떤것이었던가? 조국이란 무엇이였는가였고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가 아니었던가! 하여 그들이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는 그 애리에리한 목에서 소년단넥타이를 풀고 청년조직에 가맹을 시켰고 사회에 진출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의 자국을 찍었을 때는 조선로동당입당 보증도 썼었다.

강성대국이 될 때 조국이 내어 주는 인생의 《성적증》에 최우등점수만이 새겨 있도록 옹기 살아야 할텐데...

달각달각 울리는 렬차의 동음마저도 담임학생들을 최우등생으로 키우느라 아글타글 애쓰던 옛 시절때의 그런 책임감을 정희의 가슴에 굳혀 주는듯 싶었다.

...연구소에서는 그새 키큰모의 병원인을 밝혀냈다.

《그러지 않아도 연락을 하려던 참입니다. 모판자리가 산성화된 땅이다나니 <흰돌>성분이 토양과 반응하며 배출시킨 알카리가 가는 뿌리를 파괴했구

만요. 소석회를 약간 섞어 주면 아무 탈도 없을겁니다.》

《흰돌》을 원료로 하는 자급비료가 농업생산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아주 좋은 비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눈에선 눈물이 핑 돌았다.

벽차 오르는 환희로 하여 숨이 막힐것만 같았다. 다시금 렬차로 이틀, 걸어서 하루…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갈 때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지루하진 않았다.

군소재지역에서 내려 역전광장을 빠져나오던 정희는 읍거리 한복판에 아담히 들어앉은 중학교 정문앞을 지나다가 저도모르게 멈춰섰다.

옛날 자기가 교원을 하던 중학교였다.

금시라도 저 다층교사의 2층 5호실문을 열고 들어 서면 옛시절의 숨결이 그대로 어려있을 교탁이며 칠판이며 책걸상들이 반기여 맞아줄것만 같았다. 만약 생활이 허락한다면 이 걸음에 당장 작업복을 치마저고리로 갈아 입고 흙물은 로동화대신 하이얀 구두를 신고 농쟁기대신 두툼한 책을 끼고 그날의 교실로 사뿐히 들어서고만 싶었다. 허나 지금은 그럴수가 없는 몸이다. 식량!… 그 이루지 못한 소원이 그리고 너무도 허다한 일감이 정희를 교실로가 아니라 들판으로 부르고 있었다.

백양나무잎사귀들이 바람결에 설렁이며 추억의 속삭임을 실어온다.

《선생님, 우리가 이다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이 앞을 지나다가 무성한 나무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무가 크면 가지를 슈아다가 보물지팡이를 만듭시다. <이랑아, 이랑아, 문열어라->하는…》

추억의 나무숲너머 교사안의 교무부 문서고안에 정히 보관되어있을 스물두해전의 그 출석부를 정희는 마음속으로 번져나갔다.

홍광남-학급장…(송암리관리위원장)

리보금-초급단체위원장…(송암마을 분조장)

최윤철-벽보주필… (군농촌경영위원회 농산과장)

박홍범-초급단체부위원장… (송태리 기사장)

끝끝한 모습들이 눈앞에 우뚝우뚝 솟아나며 《옛-》, 《옛-》 우렁찬 대답을 울린다.

서용준-…(송암마을 기술지도원)

누군가의 목메인 음성이 바람결에 실려온다.

《서용준동무는 <고난의 행군>시기 보람찬 생을 마쳤습니다.》

아픔이 가슴에 젖어 들었다. 빠져런 상실감에 정희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저… 어느 학급을 찾아 오신 학부형이신가요?》

지나가던 처녀교원이 멈춰 서서 정희를 지켜본다.

《아, 아니예요.》

정희는 당황히 손을 내젓고 그자리를 떠났다.

밤이 이슬해서야 마을에 들어 섰다.

밤의 들판… 이른 여름철의 열광적인 애무속에 온 하루 생의 기운을 분출하던 대지는 곡식포기들을 품 안은채 조용히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고요한 들, 밤의 정적을 흔들며 키큰모모판에서 쾌활한 웃음소리가 울리었다.

세사람이 모닥불을 피워 놓고 마주앉아 있었다.

보금이, 광남이, 윤철이…

○○연구소에서 군농촌경영위원회로 걸려온 전화내용을 안고 내려 온 윤철은 돌아 가지 않고 광남이네와 함께 병들었던 모판두둑들에 소석회물을 풀어 주고 나서 밤늦게까지 정희를 기다리는중이었다. 락관적인 전화소식이며 정희가 없는 며칠새 몰라보게 호전된 키큰모의 상태는 사뭇 기분들을 들뜨워 그들을 옛 시절로 이끌어 갔다.

하여 지금 《돌, 가, 보》를 해 지는 사람이 터발 감자를 캐다가 불에 구워 바치는 내기를 하고 있었다.

《돌! …》

《가! …》

《보! …》

《에잇, 빈판이다, 다시…》

《돌가보-》

왁자르르 터지는 웃음속에 윤철이가 엉겨주춤 일어 난다.

《과장님한테 버릇없긴 하지만 어찌겠어요. 동무가 팔찌를 했으니 어서 가서 캐 오세요.》

보금이가 들까불며 독촉하자 윤철은 할수 없이 감자밭으로 향한다.

《젠장, 군에 회의만 올라와 봐라. 배 터지도록 옥사발을 먹이지 않나. 가만, 이거 감자를 캐 오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면 야단인데… <왜 함부로 터발 감자에 손대요?>하며 뺨뺨이 세워 놓고 닭아 대면 어쩐다야?… 여, 광남동무- 선생님이 오면 동무가 캐왔다고 하라이.》

정희는 키큰모에 대한 걱정속에서도 웃지 않을수가 없었다. 동요를 이겨 내고 비애를 털어 버린 그들이 말썽많은 키큰모모판에 여유작작하니 틀고 앉아 유쾌히 놀음을 벌리는걸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고 느닷없이 흥취가 살아 났다. 이 땅의 주인, 시대의 담당자답게 밤의 들판을 지켜선 그 미더

운 모습들은 정희의 가슴에서 온갖 시름이 가셔진  
패활한 소리를 자아냈다.

호호호...

보름후인 6월중순... 앞그루감자를 수확하는 날  
이 왔다. 땅바닥이 보이지 않게 흐드러진 감자포기  
를 뽑고 짝 벌어진 이랑둑을 헤치니 밥바리같은 알  
들이 디굴디굴 굴러나왔다. 야하아!- 하늘공중 솟  
구쳤던 그 홍취의 웨침은 좌르륵 폭포쳐내려 이랑  
이랑을 굽니었다.

벌써 수로넘어 옷배미에서는 감자를 다 캐내고  
키큰모를 내기 위한 씨레작업이 한창이다. 씨레를  
치는 프락포르의 덧바퀴가 해빛에 번쩍거리고 버모

를 실어 내는 소의 구성진 영각소리가 창공에 메아  
리쳐 울린다.

그 가슴 흐뭇한 광경의 포전머리에서 오늘 군안  
의 모든 관리위원장, 기사장, 작업반장, 기술지도원  
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간지대에서의 논두벌농사방  
식상학이 진행되었다.

김정희작업반장의 키큰모채배경험담은 방식상학  
의 실용성을 한층 돋구었다.

옛 청년분조원들은 새 농법을 설명하는 김정희의  
모습을 경건한 심정으로 바라 보았다. 인생의 높은  
교단에 올라 서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  
아가는 영원한 담임선생의 어깨너머로는 풍성한 들  
판이 행복의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며 끝없이 펼쳐  
져 있었다.

## 토성벌의 봄밤

김명철

래일부터는 버씨 뿌리기라  
새 규격포전들에 첫 모를 붓다니  
이 밤 생각도 많아  
논머리에 앉은 령감  
따라나온 아들이 등뒤에 다가서도  
아는듯 모르는듯 마라초만 뻥-뻥

압록강 맨 아래기슭  
토성벌이라면 그 옛날  
《또아리동》에서 생겨난 이를  
조금때는 썰물따라 나가며 동을 막고  
살이때는 밀물속에 그 동을 지켜내며  
한뼘기 또 한뼘기 논을 부쳐온 고장

동마루들이 높아 프락포르가 용을 쓰나  
논바닥들이 깊어 비물을 뺄수 있나  
속이 탔는데  
이제는 눈앞이 탁 트인 벌에서  
기계소리 물소리에 기분이 등- 뜨겠으니  
허어, 살다 살다 이런 락을 볼줄이야

어이 잊을가 원, 지난해 그날  
저 고진강 건너 신암리 언덕에서  
이 벌을 바라보신 장군님  
별방인 여기선 동쪽들만 다 밀어도  
강원도보다 더 멋있을게라고  
또 한번 만세를 부를수 있다시고

무더위속에 다시 오시여선

남신의주건설사판앞에서  
글쎄 여기를 가리키시며  
토성리에 문화주택 좋은 집들을  
재간껏 잘 지어 주자고  
그처럼 뜨겁게 말씀하셨나니

그 뜻을 받들고 달려온 사람들  
벌을 뒤덮은 술한 불도젤이  
그 많은 《논물동》을 밤낮 뒤샴고  
그 긴긴 《한숨동》을 다 설거졌는데  
이제 저 등성이에 새 마을까지 서면  
집난이들 친정 찾기 험치 않을가 보군

우리 장군님 그 고마운 손길에  
흙으로 막은 동이 다 없어졌다고  
아무럼, 토성벌이 그저 번번해서야 되나  
우리 늙은이들은 거름산을 무지고  
농장젊은이들은 로적봉을 가려서  
그 은덕에 보답을 해야 하구말구

이 궁리 저 궁리  
잠을 다 잊은 령감  
온밤 풀더미를 쌓았다 헐었다.....  
아버지의 뒤에 서서  
대지를 그리 안는 아들의 가슴에서도  
탐스러운 벼단들이 동가리를 치고 있네

(신의주시 토성협동농장에서)

## 젊어진 고향벌에 첫씨를 뿌리며...외 1 편

고남철

젊어진 고향벌에 첫 씨를 뿌리려  
새벽들길을 걷는다  
금씨앗 무겁게 가슴에 안고  
흙냄새 구수한 논머리에 나는 섰다

시원스레 넓어진 논판앞에서  
로동화 신고 나서던 첫 봄처럼  
울렁이는 가슴...  
기껏 감이 들어 흙발 고운 모판우에  
후두둑 떨어지는 더운 눈물...

땅이여 어머니대지여  
숯부드러운 네 흙발을 살결로 지니고  
맑은 너의 물은 피되어 흐르는  
나는 너의 아들  
그 아들도 퍼주지 못한 허리 굽은 논두렁  
주름질은 쪼박논을 시원히 털어버리고  
웃음 환한 너의 젊음 꿈같아!

꿈만 같아 뜨거움에 젖는 마음에  
우렁이 솟는 달맞이령  
눈보라 맴판 대한의 새벽  
이 별을 마음에 안고 가신 장군님  
최고사령부 작전대우에서 새 모습 그려주시며  
새롭게 변모시켜주신 한드레벌아

장군님 보아주신 설계도를 명령서로 받들고  
금별이 번쩍이는 차수가 달려 왔다  
기계화군단이 고일령을 넘어 왔다  
도면을 꼭꼭 짚어 가는 장령들의 지휘따라

낮과 밤이 불타며 흘러 왔다  
하늘땅에 우뢰치는 전변의 불길앞에  
아버지들의 땀이 습배인 논두렁을 박차며  
땅속에서 땅이 솟아 오르고  
어머니들 매일씩 허리 굽게 하던  
쪼박논은 큰벌로 억세게 일어난  
중간지대의 대평원이여, 태천땅이여

넓어지고 젊어진것 땅만이라  
눈비속에 언땀을 깨물며  
무엇이 없으면 생을 바치면서도 가는  
투쟁의 걸음법을 네 우에서 배웠다  
사람도 산천도 새롭게 태어 나  
생활은 더 높은 봉우리에 올라 섰다

의젓하게 잘 생긴 대지여  
튼튼하게 젊어진 향토여  
기계화의 흥겨운 노래우에 실려  
백년대풍이 네우에 물결치리라  
풍요하고 아름다운 백과의 열매가  
천년세월 네우에 주렁지리라

장군님 펼쳐 주신 새 대지  
젊어진 고향벌에 첫 씨를 뿌린다  
백번 태를 묻고 살다  
천번 뼈를 묻고 가고 싶은  
오, 나의 향토에  
나는 심장의 피방울같은 씨앗을 바친다

## 병사는 군화를 벗는다

푸름푸름-  
한물씩 색이 바래는 새벽어둠을  
툭 툭 쥐여박으며 울리는  
나의 군화자국소리  
그 대답처럼 련이는 집집의 대문소리  
흙신 이슬젖은 군화를 보며 눈을 습벅이는  
몸매 실한 모관관리공처녀 놀람소리 흥겹다  
그 모양 보는 박아바이 향아리같은 웃음은

이슬풀 뜯는 등글소 뿔우에 걸리고  
선잠 깬 개구린 감자잎아래서  
통방울눈 데굴데굴  
들가에 떨기지는 웃음을 싣고  
중얼중얼 흐르는 보도랑 물소리에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는 뜸부기소리  
벼 강냉이 잎새가 어이  
땅에 움트고 땅우에 잎새 편다 하랴

땅에 먼저 벅찬 생활속에 큰 움 트고  
 있는 질푸르러  
 그 생활을 억세게 안아 일으키며  
 나는 이 아침  
 남먼저 들길에 군화자국을 새긴다

×

병사인 나에게  
 군화는 한갓 신발이 아니다  
 총창이 번뜩이는 총대와 함께  
 군화는 나의 무장이였거니  
 눈비 내리는 산밭을 날아 넘으며  
 행군길의 설참에도 벗은적 없고  
 명절의 한밤에도 신고 자던 군화였다  
 락원의 총계에 철 따라 꽃신자국 엇바뀔 때도  
 병사가 새기는 자국은 언제나 군화의 한자국  
 짙으면 바위도 부서지고  
 천리길도 한걸음에 주름잡히는 군화를 두고

한생 군화를 신고 걸어온 런대장은 말했다  
 병사는 연백, 호남의 대지에 군화를 벗고  
 푸른 모를 정히 심는 그날 위해  
 군화를 신고 사는 사람  
 그래서 병사의 발은  
 처녀의 살결보다 깨끗해야 한다고...  
 이 아침  
 해살이 곱게 수를 놓은 논판에 들어 서니  
 철철 휘감기는 흙발은 나의 살결인듯  
 사무치는 훈향은 대지의 숨결이나  
 내 심장의 고동이나  
 이 땅의 천만이랑에 살결을 합치고  
 억만 벼포기에 심장의 피줄을 이으려...  
 지켜온 이 땅우에 풍요한 이삭을 엮어 주려...  
 피가 고여도 벗지 않던 군화를  
 나는 논두렁앞에서 벗는다  
 오, 병사는 군화를 벗는다

## 가사

### 백두산의 겨울 외 1 편

김봉운

백두의 겨울은 장엄하여라  
 몰아치는 눈보라 밀림의 파도  
 붉은기의 녀를 안고 폭풍쳐 설레이는  
 백두산의 겨울을 장군님은 사랑하신다

백두의 겨울은 아름다워라  
 타오르는 노을에 붉은 서리꽃

선렬들의 마음처럼 깨끗한 은빛세계  
 백두산의 겨울을 장군님은 사랑하신다

백두의 겨울은 성스러워라  
 모진 광풍 길들이는 조선의 기상  
 혁명할 억센 신념 한가슴에 새겨 주는  
 백두산의 겨울을 장군님은 사랑하신다

### 노래하자 청천강

흘러서 백옥인가 고여서 청옥인가  
 맑고맑은 청천강 때목에 오르니  
 아름다운 산천경개 물속에 춤을 주고  
 크고작은 물고기들 떼지어 흐르누나  
 어야라 띄어 어허야 노래하자 청천강  
 물길 따라 어서 가자 키 잡고 노 저으니  
 기나긴 때목도 흥에 겨워 꼬리치네

기쁨이 실렸는가 행복이 실렸는가  
 굽이굽이 청천강 때목을 몰아 가니  
 강반에선 기계소리 정답게 울려 오고  
 골짜마다 양떼 흘러 구름바다 펼쳤구나

어야라 띄어 어허야 노래하자 청천강  
 때목에 몸을 싣고 향산 개천 안고 도니  
 청천강 오백리길 지척인듯 가까워라

옥에다 비길소냐 천만금에 비길소냐  
 은혜로운 해빛 받아 구슬같은 청천강  
 물 한방울 흐릴세라 금광마저 멈춰세운  
 수령님의 사랑 어려 방울방울 맑아라  
 어야라 띄어 어허야 노래하자 청천강  
 전설같은 그 이야기 후손만대 전해가며  
 때목 싣고 자랑 싣고 흘러라 청천강아

## 정든 고향

석유균

노을이 붉게 퍼져간 서녘하늘아래 편편히 펼쳐진 푸른 숲은 볼수록 장엄하였다. 키높은 이깔나무와 푸른 잎 설레이는 잣나무들이 울울창창하게 자란 골짜기를 내려오느라니 20년전까지만 하여도 잡관목조차 뿌리내리기 저어하던 불모의 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도 내가 써야 할 작품의 원형인 한 인간이 이 땅을 수려한 푸른 락원으로 변모시켰다는것이 도무지 가슴이 가지 않았다. (인간의 노력과 열정도 한계가 있는 법인데 이런 엄청난 변혁을 이룩하다니. 진정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그런 정성이 아니고서야 엄두라도 내겠는가. 먼 북방에까지 가서 이깔나무, 잣나무모들을 등짐으로 지고와서 애지중지 키웠다니... 그래도 애써 심은 나무모가 죽으면 땅과 마음을 함께 묻으며 또 심고... 참으로 이 돌박산들에 푸른 옷을 입힌 그의 고생과 수고를 다 헤아릴수 없다. 알고보면 그는 남달리 건장한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근무중에 당한 심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제대된 그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안정과 휴식을 보장해주었지만 그는 수도에서의 보장된 생활이 아니라 불편한 몸으로 여기에 뿌리를 내리었으니...)

생각이 깊어갈수록 나는 오리무중속에서 헤매이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 인간의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인 창조물일진대 어떤 힘과 의지가 그를 만들어주었는지?...

《무슨 생각을 깊이 하십니까? 숲에 대한 소설을 쓴다는데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한것 같군요.》

유정하게 들리는 골개울물소리와 어울려오는 말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마가 흰칠하게 벗어진 50대의 리옹찬이었다. 이 숲의 주인인 그가 바로 강동군 대리 로동자구 산림감독원으로 내가 써야 할 작품의 주인공이었다. 새벽이슬을 차며 숲으로 나갔던 그는 저녁이슬을 밟으며 돌아오고있다.

《허, 제가 뭐 한일이 있다고 기자선생들이 왔었는데 작가선생까지 찾아오니. 참 웅색한 생각뿐입니다.》 산골사람답게 수더분하게 웃으며 지난해 여름 신병이 도져 입원했을 때 웅색했던 일도 스스로 없이 터놓는것이였다.

(몸이 아프면 입원치료를 받기마련인데 웅색하기까지야 원...)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내 생각과는 달랐다.

《동발때문에 탄광에서 채탄중대장이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더니 또 소년단원들이 산열매를 따가지고 오는가 하면 가두아낙네들까지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어른아이 할것없이 이 대리 사람들이 저마다 병문안오는데 오금이 쭈서나서

원.》 (하기야 이 고장사람이라면 누구든 숲의 덕을 톡톡히 볼테니까 아무려문 그만한 일은 레상사지.)

마음이 흥그러워진 그는 인심후한 제 고장 사람들에 대한 자랑으로 번져나갔다.

《하루는 낮참에 웬 할머니가 잣죽을 쑤어가지고 찾아와서 부러 권하는것이였습니다.

<식기전에 들라구. 몸을 추세우는데 잣죽이 제일 이야. 하루이틀도 아닌 허구많은 세월 숲을 자래우느라고 고생이 여간만이였다. 언제봐야 숲에서 사니 찬밥으로 끼니를 에우기가 십상이지.

제 고장 사람들도 숲의 덕을 볼줄만 알았지 나무 한대 제대루 가꾸지 못해 벌거숭이로 만들었는데 타고장에서 와서 그렇게두 극성스레 숲을 가꾸다니. 참 임자 고향은 어딘가?> 이렇게 묻는 할머니에게는 <제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정든 내 고향이지요.>하고 스스로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잣죽을 정히 쑤어온 할머니의 모습에는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이라도 앓으면 입맛을 돌려세우느라고 당반우에 깊숙이 간수했던 잣을 까서 죽을 맛나게 쑤어주던 어머니의 정성이 그대로 안겨왔으니까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고향의 모습으로 련상되기 일쑤여서... 아무튼 난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혀 내젓던 할머니가 <내 이 고향에서 70년나마 살다보니 여기 매력이야 손바닥처럼 환하지.>하며 또다시 다그쳐 묻는것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며 퍼그나 난감해하는 그의 기색을 살펴보면서 나도 은연중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고향말입니까? 내 고향은 숲이 울창한 회령입니다. 그래서 이 고장도 내 고향처럼 숲이 무성하게 하려고 마음먹었지요.》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한다면 나로서는 저으기 마음이 허전하였다. (낯선 고장을 제 고향처럼 푸른 숲이 무성하게 하려고 진한 땀을 흘리며 오랜 세월 정력을 쏟아부었다면 거기엔 필경 그럴만한 사연이 깊이 깔려있을것이다. 어쩌면 남다른 인맥관계라도 있을지... 그렇다면 작품의 구성도 인간관계도 흥미있게 꾸려나갈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그 내막을 다그쳐 물었다. 《아닙니다. 제가 이 고장과 남다른 인연이나 또 말할할 인맥관계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당의 높은 신임을 받고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 사업에 참가했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라 없이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우리 수령님께서는 울창한 숲을 보

시면 바쁘신 길도 멈추시어 그리도 기뻐하시었습니다. 한번은 벌거숭이된 산을 보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몹시 가슴아파하시었다는것을 알게 된 저는 제대되자 나라에선 저의 건강상태에 맞춘 자리를 여러곳에 권고하였으나 굳이 산림감독원이 되었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국토건설을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여기시고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까. 제 미력하나마 그 높은 뜻을 받들고 이 땅도 내 고향으로 꾸려지고 힘썼을뿐입니다. 사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겨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박하면서도 결국한 그의 심중을 읽느라니 나는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지만 가슴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땅을 고향으로 안고사는 그였기에 한 인간으로서는 자연의 면모를 수려하게 전변시키는 어렵고도 아름다운 일도 해낸것이 아닌가!)

저녁먹이를 찾는 새소리가 정가롭게 들려오는 무성한 숲을 그윽한 눈길로 둘러보는 그는 더 말이 없었다. 그럴수록 나는 그가 한 소박한 말을 깊이 음미해보게 되었다.

생의 뿌리를 내린 고향, 인생의 젖줄기와 같은 정다운 고향을 누구나 사랑하며 자랑한다. 한것은 발가숭이몸으로 도래굽이 모래불에서 덩굴던 동요시절에도 친지들이 손저어 바래주는 뜨거운 배웅을 받으며 멀리 초소로 떠나가던 청춘시절에도 고향은 추울세라 찬바람 가려주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처럼, 배고플세라 알알이 골라주던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넋을 심어준 토양이다.… 그래서 수룩만리 지구 한끝에서도 로년기에 다시 찾아오는것이 바로 인생의 첫자욱이 찍힌 고향이다. 세월이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동심에 새겨진 고향에 대한 추억은 흐려지지도 사그라지지도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머나먼 길을 손저어 이끌어주는것이다. 하기에 우리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과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 없이 바쳐 위훈을 세운 영웅들을 그들의 고향에 영생의 모습으로 세워 주시는것이 아닌가!

예로부터 정들면 고향이라 하였지만 타고장을 제고장처럼 꾸리려고 품을 들이고 공을 들인 우리 시대 주인공들과는 거리가 먼것이다. 고귀한것이 인간의 창조물일진대 거치른 이 고장을 고향의 수려한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 오랜 세월 나무 한대 한대를 정성들여 심으며 힘과 열정을 묵묵히 쏟아부은 그야말로 우리 시대 새 인간의 참모습이다.

나는 다시금 그를 눈여겨보았으나 산림감독원제복을 입은 그는 너무도 수수하고 소박하였다.

풀개울이 합수된 산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것이였다.

《먼저 내려가시우. 달포째나 가물이 계속되다보니 어쩔지 집에 내려가야 발편잡을 잘것 같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루밤만이라도 뜨끈한 구들에 마주앉아 이야기를 듣고싶은 나의 의향을 비쳤더니 그는 송구스러운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하루밤새 무슨 일이야 있겠소마는 숲에 정을 붙이면 숲을 떠나선 마음을 놓을수 없지요. 그러다보니 노상 숲에서 살게 되지요.》

(저렇듯 강렬한 열정을 지닌 인간일진대 그가 지닌 소원 또한 남달리 뜨거울것이다. 그의 소원은 과연 무엇인지?) 내 물음에 진중해진 그는 담담한 어조로 자기 속내를 터놓았다.

《제가 무슨 남다른 소원이야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안고사는 한가지 생각뿐이지요. …이제라도 머나먼 전연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숲을 보시고 잠시라도 시름을 푸시었으면 하는 외람된 생각입니다.》

나는 저도모르게 터져나오는 탄성을 누를길 없었다. (아! 그는 그토록 절절한 소원을 가슴 가득 안고 온몸을 불태우지 않았는가! 한점의 재도 없이 온몸을 오직 열과 빛으로만 발산시킨 초불처럼… 그 어떤 풍상고초에도 꺾이지도 굽히지도 않는 철석의 의지로 오직 충성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온 그였기에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애쓰며 무궁한 힘으로 사람들을 놀래울 엄청난 일도 해제였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지금에야 비로소 탐과 열정으로 땅을 걸군 그의 참뜻이 석연히 그려졌다. 거치른 땅이지만 간절한 그 소원을 꽃피우기 위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새겨진 고향의 모습 그대로 푸른 숲을 자래웠다. 그 누가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수십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이 땅에 자기의 진정을 땅속깊이 묵묵히 묻으며 정을 들이였다. 정든 내 고향으로 이 땅을 가꾸면서…

진정 남모르는 가혹한 그 소행을 깊이 헤아려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를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어 만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하시였다.… 나는 그와 함께 온밤 숲을 거닐며 정든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싶었다. 그것은 비단 작품창작만이 아닌 내자신을 고결한 그의 정신세계에 따라 세우고 싶었던것이다.

성큼성큼 앞서 걸어가는 그와 보조를 맞추며 따라나선 나는 온 숲이 들썩하게 마음속으로 소리높이 웨쳤다.

(사람들이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싶은 간절한 그 소원을 현실로 꽃피우려면 자기의 진정을 묵묵히 바치시라! 시대의 영웅들처럼…)



## 봄의 선구자

한영애

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준엄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봄을 맞은 이 땅 그 어디에나 싱싱한 활력이 한껏 넘친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돌지만 계절은 속일수 없는 것이어서 산기슭에는 파스한 봄벌아래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기고 거리를 씩씩하게 활보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새봄을 맞이한 기쁨과 환희가 가득 어렸다.

강산에 차넘치는 봄날의 훈향에 취해 모란봉기슭을 거닐던 나는 활짝 피어난 한 떨기 진달래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소소리 키높이 자란 나무들사이에 수줍은듯 얼굴 붉히며 피어난 연분홍진달래.

살랑대며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결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아지에 잎도 피기전에 먼저 꽃망울을 터치고 봄소식을 알리는 진달래.

우리 인민은 누구나 진달래를 사랑한다. 비록 그 모습 화려하지는 못해도, 또 짙은 향기는 없어도...

나라 없던 그 시절 진달래는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모습 그대로였다.

계절의 흐름을 타고 해마다 봄은 찾아 오고 진달래는 남먼저 피어나 새봄을 알리었건만 나라를 빼앗겨 봄마저 빼앗긴 우리 인민에게는 봄을 맞아 보습을 댈 제 땅도 없었고 봄을 즐길 마음속 여유도 없었다.

찬바람부는 산기슭에 반기여주는 사람 하나 없이 남모르게 피었다 차디찬 비바람에 속절없이 스러지고마는 진달래의 청초한 모습, 그것은 그대로 당국노의 설음을 통탄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 인민의 모습이였다.

봄이 왔다고 진달래는 피어나 웃음 지어도 웃음 짓는 그 모습이 더더욱 눈물만을 자아내 어느 한 시인은 백일홍처럼 붉게붉게 피지도 못하고 국화처럼 오래오래 피지도 못하는 그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불들고 울고 싶다고 울분에 차 부르짖지 않았던가.

정든 고향을 떠나 이국살이의 서러움에 눈물짓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에도, 해방의 새봄을 안고 그리운 고향에 돌아갈 그날을 그리며 피어린 혈전만 리길을 헤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가슴속에도 고향과 조국에 대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는 고향의 진달래, 조국의 진달래!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꽃이기전에 두고온 고향의 한 부분, 그리운 조국의 살점과도 같은 것이었거니.

하지만 진달래는 결코 연약하고 나약하기만 한 꽃이 아니었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혁명투사들을 반겨 맞아 활짝 피어나 향기를 풍기던 진달래.

그날부터 진달래는 정답고도 사랑스러운 꽃으로 남먼저 봄을 알리는 선구자의 모습으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졌다.

겨울이 제아무리 사납게 기승을 부리어도 봄이 오는것을 막을수 없는 법이다.

키를 넘는 눈속에 묻혀서도, 모진 추위와 사나운 눈보라속에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고야 말 새봄을 곳곳이 기다려 남먼저 꽃을 피우는 진달래- 봄의 선구자.

올해에도 진달래는 남먼저 피어나 봄소식을 알린다.

중중첩첩 겹쌓이는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강성대국건설에로 내달리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안고 피어나 강산을 붉게붉게 물들이는 진달래.

오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을 이겨내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제 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사나운 겨울을 이겨낼 수 없는 법이다.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반드시 봄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 진달래는 눈속에서도 겨울을 이겨내고 계절을 앞당겨 꽃을 피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고 있는것은 오늘의 고난과 시련이 제아무리 엄혹하다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여 우리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며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반드시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철의 신념과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진달래를 사랑한다. 떨기떨기 피어나 강산을 물들이는 그 모습에 우리의 마음 어려있기에.

진달래, 진달래-봄의 선구자.

## 봄날의 역두에서 외 1 편

박영

들뛰는 심장의 박동을  
새 군복속에 맡긴 청춘들이  
조국보위초소으로 떠나는 이 봄날  
작별의 열기로 뜨거운 역두에서  
내 터치는 시가 있노라

떠나는 열차를 따라 서며  
군복입은 자식들의 그 모습을  
눈물도는 두눈에 다시 담으며  
축복의 손저음을 내릴줄 모르는  
저 너인들...

저들이 아니나  
올겨울만 지나면  
중학을 마친 끝날같은 자식들을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떠나 보낼  
이날을 안고 있는

그래서 첫갈픔도 골라 가며  
김장도 품놓아 담그고  
돌이라도 삭일 나이의 자식들앞에  
무엇이든 다 놓아 주리라  
마음속 다짐도 깊었던

허나 더워서 차던진 자식들 이불깃을  
밤새도록 여며 줄수 없었던 그 밤들에  
어설픈 밥상을 마주하고도 짓는

철든 자식들의 그 웃음앞에  
되려 피가 떨어지던

오 원쑤 미제 그놈들이 몰아 온  
이해따라 더 기승친 그 흑한을 박차며  
모진 겨울의 아픔 무섭게 삭이며  
돌배낭 메고 고속도로건설장으로  
땀발 돌쳐가던 너인들이여

저이들한테 바로 오늘이 있었구나  
녹을줄 모르는 복수의 성에 허영게 불린  
그 총대를 잡을 최전연전호가로  
부디 자식들을 떠나 보낼  
이 봄날이

이 봄날에 우리의 어머니들  
꽃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구나  
그저 떠나는 열차를 총총히 따라 서며  
내릴줄 모르는 전송의 저 손저음은  
말없는 어머니의 꽃 한송이...

아 그렇게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렇게도 혼연히 조국앞에 내세울줄 아는  
혁명하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봄은  
성스런 조국보위초소와 잇닿아 있는  
뜨거운 역두의 봄이구나 !

## 썸세기를 잊어버리고...

하나, 둘...  
영웅고지 나무에 무수히 박힌  
파편을 세다가  
내 절로 썸세기를 잊어 버리고  
하는 이 생각  
미제 그놈들이 다시 덤벼 든다면

이 파편나무를 뽑아 들고  
내 복수전에 나서리라  
그저 마지막한놈까지  
썸세기도 잊고 무자비하게 짓조겨덜  
영웅고지의 파편철폐전에...

## 《조선인 부락》

김선환

《문공대》(문화공작대)를 인솔하고 온 하마마쓰 조선초중급학교교원 리명석은 차츰 더해가는 초조함에 후 한숨을 지었다.

교편을 잡은지 두해밖에 안된 그는 예견한것보다 너무나 난처한 현실앞에서 자신심이 세찬 바람 맞은 등불마냥 위태롭게 너울거리는것을 막을길 없었다.

분회장하고 첫인사겸, 료해겸 돌아본 여기 《조선인 부락》동포들의 생활형편은 최하층의 최하층이었다.

한끼한끼의 끼니마저 에우기 힘겨워하는 이곳 동포들한테 지원을, 조선학교증축건설자금을 어떻게 바란단말인가? 이런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마음은 연등어리매달린듯 무겁기만 하였다.

이럴줄 미리 알았다면 한주일전에 있었던 총련일군들과 분회열성자들까지 참가한 확대교직원 회의때 아예 생각을 솔직히 터놓고 물려서지 못했던것이 두고두고 후회되었다.

허나 이젠 행차후 나발이었다.

회의에서는 조선학교증축건설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지난해 겨울 소담하게 내리는 눈송이를 헤쳐 어머니조국으로 향하는 첫귀국선이 배고동을 울리며 니이가다항에서 닻을 올렸다.

동서고금 류례없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대이동의 력사적사변은 재일조선동포들의 삶에 폭풍같은 반향을 던지었다.

가고파도가가고파도 갈수 없었던 그림고그리운 어머니조국의 품이 현실적으로 이국땅의 한끝 기슭에 잇닿은것이다.

어머니젖품에 파고들어 어리광부리는 애기의 마음인듯 재일동포들의 망국살이 차디찬 바람에 꿈꿈 얼었던 가슴은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갈망에 사무쳤다.

일주일도 못되는 어간에 귀국신청자의 수는 대홍수의 물처럼 불어갔다.

아울러 조국을 더 잘 알려는, 조국에 더 가까와지려는 동포들의 열망은 용암처럼 뿜어올라 조선학교로 입학하는, 전학하는 학생들이 해일처럼 밀려들었다.

급격한 학생증원으로 일본전국의 조선학교증축문제는 시간을 다투는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그리하여 이 지방에서는 학교증축건설위원회가 부랴부랴 조직되어 활동의 막을 올린것이다.

회의에서 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총련지부위원장은 상공인들을 말았고 20대의 팔팔한 리명석에

겐(리명석을 제외한 교원들은 다 50대의 교원들이었다.) 《조선인 부락》이 맡겨졌다.

그것은 정치사상교양만이 아닌 증축자금을 모아야 할 실적을 요하는 사업이었다.

리명석은 《조선인 부락》에 대한 파악도 백지였고 동포들속에서 단독공작해본 경험도 없었기에 안개를 잡을듯 막연하였지만 자기보다 알맞는 책임자가 없는것이 뻔하였기에, 또 이런 중대사를 외면할수도 없었기에 말없이 수궁안할수가 없었다.

《<문공대>를 이끌고 가야하니 그 지도교원인 선생님이 적절하고 또한 외지에서의 육체적부담도 이겨내야할 일이기에 청춘의 활력에 넘친 선생님이 나서주었으면 하오. 힘겨워도 아마 보람이 있을거고 앞으로의 선생님의 교육사업에도 도움이 될거요. <조선인 부락>동포들의 생활은 몹시 궁핍하지만 민족정신과 단결력은 강할거요. 그들의 심장에 불씨만 지펴준다면 끝내는 활활 타 번질거요.》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지부위원장의 검실한 얼굴에는 리명석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확연히 어려 있었다.

그의 얼굴을 그려볼수록 리명석은 밤꿈전에 부락을 돌아본 일이 눈에 삼삼 떠올랐다.

리명석은 분회장이 허리굽혀 들어간 첫집으로 자세를 낮추며 따라들어갔다.

밖의 밝은 해살에 익숙되었던 그의 눈앞은 갑자기 새까맣졌다.

머리끝이 천정에 부딪칠듯한 낮은 판자집이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었다.

리명석은 하마트면 분회장의 잔등을 들이받을뻔했다.

파리가 무리지어 앵앵거리다가 이마에 부딪치기도 했다.

《난 쌀밥 먹을래. 이젠 고구마가루빵 싫어, 싫어. 안먹을래, 안먹을래.》

《너 정 그렇게 예미속 태우겠니. 쌀밥소리 할러 거던 썩 나가 똥져!》

찰싹 뺨치는 소리와 동시에 아이의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야 리명석의 눈에는 방안툼팍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패질도 하지 못한 터실터실한 판자바닥은 때물이 올라 거무튀튀했다.

사방 둘러보아야 눈에 띄우는 물건이란 별로 없었다. 쭈글쭈글한 신문지우에 새까만 고구마떡 두개가 놓였는데 일곱살쯤 되는 까까머리소년이 흠뻑 젖은 손으로 눈물을 뺨 씻고있었다.

《아아, 부산택 그러지 마오. …명길아, 용한애가 그러면 못쓴다.》

분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아이가 영영 소리내어 울었다.

《없는 쌀밥 내놓으라니 어찌우. 끼때면 에미속 박박 굶지않소. 후유-》

너인의 땅이 꺼질듯한 한숨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리명석의 마음은 비구름덮인 하늘처럼 흐려졌다. 분회장은 조선학교에서 온 선생이라고 너인에게 겨우 리명석을 소개하고 쫓기우듯 집을 나섰다.

리명석은 무안하여 너인에게 고개숙여 인사를 하였다.

너인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어울린 눈빛으로 알릴듯말듯 고개를 숙이었다.

두번째 집에서는 누더기를 걸쳐입은 앓는 아이에게 물인지 죽인지 분간키 어려운 거무스레한 물을 떠 먹이는 초췌한 너인을 보았다. … 판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리명석은 골목길에 나서서 무척 미안해하는 분회장에게 《어찌겠습니까. 궁한 살림 일제탓인데…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하고 제마음 달래는 심정으로 말했다.

그의 발걸음은 쇠덩어리가 달린듯 무거웠다. 그는 자꾸 한숨이 새어나가려는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

《선생님, 래일부터 우리가 할 일과표입니다.》

《문공대》대장인 영희의 청고운 목소리에 리명석은 깊은 상념에서 벗어났다.

눈처럼 흰 저고리를 입은 말쑥한 영희가 들어선 방안은 한결 환해졌다.

방안의 모든것들이 일제히 생기를 뿜는듯했다.

리명석은 영희의 꿈꿈한 성미가 그대로 비진 일과표를 간간히 살펴보았다.

기상시간, 조기체조, 주변청소, 돼지우리청소, 학교 못가는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문공대》련습, 마을어머니들에 대한 방조, 짹짹이 진행할 선전선동사업, 조선노래보급시간, 총화시간과 그 내용, 《문공대》대원들의 이번 공작기간 취해야 할 태도와 립장, 마을어른들을 대하는 언행까지 빠짐없이 적혀진 나무랄데 없는 일과표는 리명석을 무척 감동시켰다.

15살 어린학생이 작성한 일과표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특히 자기들이 할 사업에 대한 신심과 용기에 넘친 일과표는 방금전에 동요했던 리명석의 약한 마음을 타매하며 채찍질하는듯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듯한 영희의 수정처럼 맑은 눈동자앞에서 리명석은 마음이 켕기였다.

중대한 임무를 맡아놓고 동요부터 한 자신이 멋적었다. 영희가 명리한 눈으로 자기마음을 속속 꿰뚫어보는듯해서 얼굴이 뜨거웠다.

《영희학생, 일과표를 잘 작성했소. 그대로 해보고 미흡한 점이 생기면 그시그시 의논합시다.》

《알았습니다. … 선생님, 오실 때 많은 짐을 도맡으셔 피곤하실텐데 잠시라도 쉬십시오. 남은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섬세하고 진정어린 영희의 말에 리명석은 마음이 후터워졌다.

어른인들 이보다 더 다심하라. 내가 어린 영희만도 못하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누나! 빨리!》

벌칙 나들문이 열리더니 까만눈동자의 여덟살 되나마나한 까까머리 마을소년이 얼굴만 쑥 들이밀며 오라고 손시 놓하면서 말했다.

소년의 스스럼없는 모습에는 벌써 누나를 허물없이 따르는 순진한 동심이 어려 있었다.

영희가 생긋 웃으며 껌장치마를 나풀 춤추듯 방에서 나갔다.

리명석은 어느새 어떻게 저토록 마을애들과 친해졌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

리명석은 다음날 새벽 5시정각에 학생들을 기상시켰다.

해가 긴 계절이어서 사위는 흰하였다.

동녘하늘가에 피어난 연분홍빛 아침노을이 이슬 젖은 집집의 판자벽들을 빨갛게 물들였다.

게딱지같은 추너났은 판자집들이 무질서하게 울창울창 늘어서 있었다.

얼핏보면 집이라기보다 판자무지처럼 보이었다.

키낮은 지붕우에는 소대가리만한 큰 돌들이 엮혔는데 그것이 한층 더 집높이를 낮추어놓은듯한 감을 주었다.

그 돌들은 이 지방특유의 강한 바다바람을 막기 위한것인데 리명석에게 그것이 일제의 조선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압박처럼 느껴져 마음이 묵직하였다. 또한 그 광경은 이역땅 동포들의 지지리 놀리운 고달픈 인생을 상징한듯하여 숨막힐 지경이었다.

인가있는 곳에서 수십리 떨어져 있는 이 부락은 마치 망망한 바다우의 외진 섬과도 같았다.

강바닥안의 부락이어서 이 마을공기는 노상 젖어 있었다.

부락에 500미터가량만 접근하여도 돼지거름내가 구역질나게 코를 찌른다.

장마철엔 개구리들이 집안에까지 경충경충 뛰어들어 개굴개굴 울어대는것이 레사로운 일이라 한다.

이 이채로운 《조선인 부락》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곳에 생긴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있다. 하지만 이 부락이 일본정부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민족적멸시와 차별정책이 낳은 산물인것만은 사실일것이다. 일본정부는 조선사람의 인권, 생존권을 남김없이 무자비하게 박탈하였다. 국가기관은 물론 개인 회사들이나 공장들에서 조선인들을 일체 채용하지 않는것을 법으로 삼았다.

조선사람들이 고정된 직업을 얻는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았다.

일자리없는, 나라잃은 재일조선동포들의 생활은 일본의 그 어디서나 기아선상에서 허덕이였다.

끼니를 건느는것을 식은죽먹듯하던 구차한 살림살이는 집 지을 한폐기의 땅조차 구할길 없었다.

그런 가궁한 조상들이 흘러오고흘러와 모이고 모여 주인없는, 땅세없는, 버림 받은 불모의 이 강바닥에 정착한것이라. 류랑인들이, 방랑인들이 신통히도 한사람같이 조선동포들이어서 언제부터 그 누가 명명하였는지 《조선인 부락》이란 류다른 마을이 생겨났을것이라. 시행정구역에 속해있지 않는, 주소도 번지도 없는 이 부락에 서신거래가 시작된것도 어느 우편배달원(통신원)이 랑심의 표시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것이라는 눈물겨운 설이 있다.

그 늙은 우편배달원은 번지없는 이름석자가(일본사람의 이름은 석자가 거의없음)적인 조선사람의 편지를 모조리모아 제손으로 《조선인 부락》이라 밝혀 날라다 주었다고 한다. 그 일이 시초가 되어 그후부터 이곳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주소란에 《조선인 부락》이라 적어넣게 되었다는것이다.

침략의 력사가, 식민지의 력사가 빚어놓은 증견자와 같은 이색적인 이 마을은 어찌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가집개만도 못한 망국노의 설움을 차분히 던져주었을것이라. ...

부락한복판의 스무평방가량되는 공지에서 《문공대》학생들은 줄지어서서 《하나, 둘, 셋...》하는 힘찬 구령에 따라 조기체조를 씩씩하게 하였다.

어느새 달려나왔는지 부락의 조무래기들이 체조를 하는 학생들의 돌레를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또 록또록 반짝이는 눈으로 무슨 신기한 구경을 하듯 웅성웅성거렸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아래도리에 뺨뜨갈기도 하고 반바지갈기도 한것을 걸쳤고 웃도리는 흘랑 벗었는데 런닝그자리만 도려낸듯 하얗게 남기고 살이 드러난데는 해벌에 새까맣게 탔다.

어떤 애들은 체조를 따라하느라고 팔다리를 어리광대처럼 놀려 웃음꽃을 피웠다.

야-야-소리치며 학생들 돌레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애들도 있었다.

체조를 마친 학생들은 한사람같이 미리 준비한 마당비로 부락의 골목골목을 박박 쓸었다.

췌-췌-비질소리가 아침고요를 흔들며 부락의 구석구석에 울리어갔다.

반시간도 못되어 어지러웠던 골목길들은 비자루자리만 선명히 남기고 정갈해졌다.

아침동자질하다가 나온 녀인들은 《아유-기특도 해라. 어찌면...》하고 탄성을 질렀다. 인생의 종착점인듯 버림받고 잠잠했던 부락이 발각 뒤집어진듯 활기에 넘치였다.

《선생님, 이러지 마시오. 어제 먼길 와 피곤할텐데 꼭 쉬시오. 우리가 미안하지 않는가요.》 사람좋은 분회장인 류동기의 진정어린 만류의 말이였다.

《분회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조기운동과 청소는 학생들의 건강에 좋은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리명석의 노을 물든 얼굴은 활력에 넘쳐있었다.

분회장은 감격어린 얼굴로 푸른소나무처럼 싱싱한 젊은 교원과 조선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입은 녀학생들을 찬찬히 지켜보았다.

녀인들은 조선옷을 몸에 꼭맞게 입고 《밤새 안녕하십니까?》하고 류창한 조선말로 공손히 인사하는 녀학생들을 보고 눈굽을 훔치였다.

참으로 꿈같은 일이였다.

멀리 나서자란 정든 고향마을이 이역땅 한끝인 쓸쓸한 이 마을에 통채로 옮겨진듯한 희한함에 가슴을 들먹이였다. 저저마끔 두고온 고향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뒤산 소나무숲 그 정다운 설레임, 수양버들 춤추는 송아지떼 풀뜯는 맑은 시내가, 푸른모 야들야들 떨며 자라는 풍요한 들판, 주렁주렁 붉은감 열린 트랙, 새벽녘 녀인들의 웃음꽃 피어나는 노을물든 우물가...

리명석은 오전을 동포들의 살림살이를 돕는데 술선 나섰고 학생들도 발동했다.

《문공대》가 온것으로 부락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준다면 공작의 의의를 상실한다는것을 명심했기때문이다.

부락사람들은 거의가 돼지기르기와 고된 품팔이로 곤란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돼지기르기는 생명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어느 집에서나 두세마리의 돼지를 길렀다. 리명석은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돼지를 길렀기에 돼지기르는 일에 익숙되어 있었다.

그는 학생들의 앞장에 서서 돼지우리청소부터 시작하였다.

돼지는 많이 먹고 그만큼 배설하는 짐승이기에 돼지우리청소는 가장 품들면서도 지저분한 일이였다.

《아이구, 그 험한 일을 선생님이 하다니...제-발 그만두시오!》

어머니들은 큰변이 났다고 필쩍 뛰였다. 그러나 리명석은 빙그레 웃으며 《어머니, 걱정마십시오. 조선학교학생들은 글만 배울것이 아니라 일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땀 흘리며 일한다는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하고 더더욱 일손을 다우쳤다.

밝게 웃으며 조선노래를 흥얼거리며 알심있게 일하는 선생과 학생들을 보고 어머니들은 혀를 차며 감탄하였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젊은 조선학교선생에 대하여 더더욱 친근감을 느끼였다.

그 어떤 곳은일도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선뜻 도와나서는 리명석한테서 뜨거운 동포애를 감수한 것이다.

리명석에겐 고양이손도 빌리고 싶을만큼 할 일이 많았다.

돼지우리청소를 비롯한 마을사람들의 일손을 돕는 일, 《문공대》 연습과 그들에 대한 학과학습지도, 마을어린이들에 대한 교양과 학습지도, 동포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 본회장에 대한 방조사업, 마을청년들의 《조청》가맹사업 등등...눈코뜰새도 잠잘 시간도 없었다. 그는 다람쥐 채바퀴 굴리듯 부지런히 달렸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시간이었다.

학생들이 다 식사를 마쳤는데 영희가 보이지 않았다.

리명석은 부락사람들과 학생들에게 다 물어보았는데 영희의 행처를 누구도 몰랐다.

그는 자유주의적인 행동을 조금도 하지않던 영희이기에 겁이 더럭 났다.

그는 학생들을 총동원하여 밤늦도록 영희를 이곳저곳 찾아다녔다.

그러나 허사였다. 그가 근심에 싸여 다음날 계획을 모색하는데 자정이 지나서야 영희가 불쑥 나타났다.

영희의 얼굴엔 땀이 비오듯했고 동그란 어깨는 물결처럼 오르내리었다.

흰 운동화에는 거뭇한 흙먼지가 게발렸고 흰 발목까지 흙투성이였다.

그는 파란 보자기를 무슨 보물이나 든듯 두팔로 꼭 껴안고있었다.

《선생님, 근심끼쳐 미안합니다. 이걸 구해오느라고...》 영희는 뒤말을 흐리면서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속에는 흰 가제천통구리가 있었다.

영희는 의아해하는 리명석에게 《이걸로 애들에게 개구리잡이구력을 만들어주자고 합니다.》하고 조용히 말했다.

리명석은 영희가 가제천을 구하느라 왕복 삼십리나 되는 시내의 사촌언니네집을 다녀왔다는걸 알고 가슴이 뭉클하였다. 지금 이 부락은 식용개구리잡이가 한창이었다. 어느 일본 수출상사에서 미국회사에 개구리통줄임을 수출하는데 수입이 대단하여 매일 화물차를 끌고와서 개구리를 사갔다.

부락어린이들은 째만 있으면 개구리를 잡으러 다녔는데 맨손 아니면 나무막대기로 잡았다. 그러니 개구리잡기도 힘들었고 상한 개구리는 절반값밖에 치르지 않았다.

영희가 어느새 그걸 알고 이런 신통한 생각을 해낸 것이다.

두메터쫓되는 참대끝에 뽕구쫄문같은 원형철사에 가제주머니를 단 개구리잡이구력은 개구리를 손쉽게 잡을수 있는 훌륭한 것이었다.

부락애들은 영희가 안겨준 구력으로 개구리잡는 것이 재미가 나고 성수가 났다.

영희는 개구리잡이를 통하여 부락애들의 마음을 틀어 잡았다. 그는 개구리잡이를 함께 하면서 애들에게 어머니를 돕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조선말과 글을 배워야 한다고 타일러 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가 잡은 개구리값으로 얻은 돈으로 애들에게 연필과 학습장을 사다주었다. 애들의 마음은 차츰 영희한테로 뭉쳐져갔다.

영희의 개입으로 수출상사놈들이 그전에 애들을 속여넘기고 리득보는 일들이 없어 졌다.

그는 개구리잡이를 조직적으로 구를 있게 진행하였다. 오가는길도 조선노래를 부르며 줄 지어 행진하였다.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망탕 놀아치며 어머니들의 속을 썩이던 어린이들의 행동은 앞선 길잡이 기러기를 따라 줄지어 날으는 기러기떼처럼 질서정연해졌다.

그들은 집체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대렬을 지었다. 조용하지만 영희의 말은 군대 지휘관의 명령처럼 드팀이 없었다.

어느새 골목골목이 말쑥해졌고 지저분하게 늘어졌던 오물장은 정사각형으로 모나게 정돈되었다. 애들의 글 읽는 랑랑한 목소리는 노래가락처럼 울리었고 어린이들의 외모 또한 금방 목욕을 한듯 깨끗해졌다.

어머니들은 어린 영희한테 옛말에 나오는 어떤 마술사처럼 숨겨 있는듯 신비롭게 여기었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자식들의 심한 장난과 말쑥에 한결같이 애간장을 태워 온 부모들이였기에 며칠새에 지독스런 장난군들을 순한 양처럼 다루는 영희가 부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였다.

리명석은 영희의 담임이 아니였기에 학교내에서는 그의 존재가 낮등처럼 희미했는데 외지에 나와보니 그의 존재가 야밤중의 전등처럼 밝게 보이었다.

그는 영희의 모습에서 민족교육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는 영희가 고마웠고 공작사업에 대한 신심이 솟구치었다.

그는 마치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배를 만난듯한 심정이였다.

리명석은 심한 피로로 무겁게 감겨지는 눈을 비비며 학생들의 잠자릴 돌아보려고 골목길로 나섰다. 쟁반같은 보름달이 밝은 빛을 대지우에 쏟아붓고 있었다.

집집의 달빛비친곳은 흰도금을 칠한듯 반들거리고 그 반대편은 먹물을 칠한듯 어둡컴컴하였다.

개구리합창이 푹 몇자 고요가 부락에 깃들었다.

달이 밝을수록, 밝이 환할수록 집안은 굴속에 잠긴듯 컴컴해 보였다.

리명석이 팔목을 에돌아서는데 유독 한집에서만 불빛이 흐르고 있었다.

한밤중에 무슨 급한일이 생겼는가?... 그는 의문을 품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으로 한발한발 다가갔다.

관자문을 조심히 열고 집안에 들어선 그는 앉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쪽잠든 영희를 보았다.

얼마나 곤했는지 영희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지경이었다.

리명석은 자기일을 돕느라고 지친 영희를 보니 마음이 측은하였다. 그는 걸려있는 파란 작업복을 벗겨 애정어린 미소를 던지며 영희에게 덮어주고 전기불을 끄려다 책상우에 펼친채있는 자그마한 학습장에 눈길이 갔다.

그것은 영희의 일기장이었다.

리명석은 호기심에 끌려 깨알같은 글자를 천천히 읽어갔다.

《아버지, 그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나의 일과생활을 아버지앞에서 총화짓는 마음으로 이 일기를 적습니다. 그러느라니 내가 이곳으로 떠나기전날밤에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과 모습이 눈에 삼삼 떠오릅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체의 일기에는 그날밤의 정경이 눈에 선하게 안겨오게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날 곁에 앉혀놓고 차근차근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영희를 리명석선생님의 <보좌관>으로 파견할걸 조직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한다!》

《알았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 <보좌관>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넌 그 뜻도 모르면서 빈대답부터 먼저 하는가?...경솔하게...》

《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옳다는것을 지난 생활을 통하여 잘 알고있기에 무조건 따르는것입니다.》, 《옳은것이니 무조건 따르냐? 핫핫핫... 내가 되려 한फल 먹었구나. 옳은걸 무조건 따르는건 좋은 일이지...그래그래. <보좌관>이 뭔가고 했지? 어떻게 말하면 잘 알수 있을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한참만에 아버지는 《그렇지, 그렇지.》하고 혼자 긍정하면서 말을 이으셨다.

《보좌관이란 쉽게 말하면 반침대, 지지대나 같은 것이다.》, 《반침대, 지지대요?!...》, 《영희야, 넌 그날을 잊지 않았겠지, 아버지가 총련지부위원장으로 갓 선거되어 그 믿음이 하도 고마와 밤낮을 가리지않고 애국사업에 전심하다가 쇠약중에 걸려 그날밤 집문전에서 쓰러졌던 일을...그때 너와 너의 어머니가 나의 양어깨를 받들어 병원에 후송하여 위급한 순간에 소생시켰던 일을... 그날의 너와 너의 어머니가 나의 반침대, 지지대였지. 그렇게 리명석선생을 도우라는거다. 다만 그날과 다른것은 선생님이 쓰러지기전에 좋은 반침대, 지지대가 되라

는거다. 또한 이번은 아버지만을 위했던 그날과는 달리 나하나만이 아닌 우리 동포들을 위한 반침대, 지지대가 된다는것이다. 이제 알만하냐?》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정 참뜻을 알겠어요.》 나는 이렇게 소리높이 대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알았더니 고맙다.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총련일군으로 일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 고마운 은덕에 보답하려면 조선학교를 하루빨리 증축하여 동포들과 자녀들을 모두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야 한다.》

지금 아버지는 몸이 두개, 세개가 되었으면 한다. 영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날 대신하여, 조직을 대신하여 리명석선생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너야 총련지부위원장의 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에는 딸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짙게 어려있었다. 나는 요즘 정력적인 활동으로 피로해하시는 선생님을 보면 가슴이 막 옥죄여든다. 아버지말씀을 지켜 내가 더욱더 분발하여 선생님을 잘 도와 주어야 한다. 반침대, 지지대 ...반침대, 지지대...

리명석은 선자리에 화석처럼 굳어졌다. 익은 사과알처럼 홍조편 영희의 잠자는 얼굴이 물속에 잠긴듯 얼른거렸다.

불덩어리처럼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쭈우욱 치밀었다. 반침대, 지지대란 글발이 리명석의 심장같이 새겨졌다.

가재천을 구해온날 밤의 영희의 어엿한 모습이 눈앞에 삼삼 떠올랐다.

아버지와 딸사이에 그런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었구나. ...나어린 내가 명색이 선생이란 나보다 몇급절 정신세계가 높고 장하고 아름답구나. 영희야, 고맙다. 내가 구실을 못해 봄날의 새움같은 부드러운 네 가슴에 근심을 던지다니... 용서해라. 내 한몸이 쓰러진다해도 고상한 부녀의 고운 마음에 받들리워 동포들의 가슴에 민족의 님과 슬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정력을 다 바치리라. 정말 고맙다! 이렇게 굳게 속다집하는 리명석의 빛나는 눈에 맑은 눈물이 그렇그렇 고이였다.

심산속에 남몰래 곱게 피는 한뼉기 도라지꽃처럼 영희의 모습은 아름답고 정갈하였다. 어머니젖품같은 인정 뜨거운 지부위원장의 자애에 넘친 너부죽한 얼굴이 리명석의 눈앞에 우뚝이 솟아올랐다. 그의 뇌리에 문득 빛나는 보석없이는 살아도 뜨거운 인정없이는 못사는것이 인생이다라고한 어느 소설에서 읽은 인상깊었던 한구절이 생생히 떠올랐다.

지부위원장의 후더운 인정의 덩어리가 밤하늘을 훨훨 날아와 제몸을 덥혀주는듯 하여 리명석의 온몸은 불처럼 달아올랐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한층 생기를 내뿜는듯 눈이 부시였다. 자리에 누울수 없는

여름의 아름답고 활력 넘친 달밤이었다.

(생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억센것인가! 아...나는 선생이며 공작대란 임무감에 앞서 부락동포들의 진정한 친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리명석은 속다짐하였다.

그날부터 리명석에겐 집집의 문턱이 없어졌다.

그는 부락동포들과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한식술로 되어갔다. 그는 밤을 잇고 부락동포들의 말아들이 되어 어렵고 힘든 일에 서슴없이 어깨를 들이밀었다. 마을어머니들은 리명석을 제아들 대하듯 하였다.

김치며 콩나물이며, 순두부이며 고추장할것없이 어머니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리명석의 밥상우에 날라왔다. 비록 소박한 음식이었던만 그속에 담겨져있는 혈육의 정은 불보다 뜨거운것이었다. 리명석은 서로 위하면서 나누어먹는 남새는 서로 미워하면서 먹는 진수성찬보다도 훨씬 낫다는 생활의 진리를 가슴 뿌듯이 간직하였다.

어느날 저녁 첫날 찾았던 앞집어머니가 김이 문문나는 흰밥에다가 뿔건 고추장을 가져왔다.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명길한테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 속대우던 흰밥이 웬일입니까? 어서 도로 가져다 명길에게 먹이십시오. 이러면 안됩니다.》

《그러지 마시오. 어찌다 삼촌댁에서 얻어온 쌀로 밥을 지어 명길이 녀석한테 먹으라고 하니 그 녀석이 선생님과 영희누나가 먹기전엔 안먹겠다고 폐를 쓰는게 아니겠소. 그녀석이 선생님과 영희누나를 따라다니더니 철이 들었지요. 녀석이 자기는 고구마가루떡이 더 맛있다는거요. 참, 녀석도 ...》

어머니는 그러면서 자식이 철드는것이 기뻐서 소매깃으로 슬그머니 눈물을 찍었다.

리명석은 눈물이 펴 돌았다.

눈굽이 불판에 지지운듯 따갑거렸다.

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다운 마음인가!...

《문공대》가 첫 공연을 하는날 저녁이었다.

분회장내 두칸방 미닫이문을 터놓은 공연장소는 꽤 넓었지만 송곳꽃을 째도 없이 사람들이 가득차서 뒤창문까지 뻗내여 청년들은 창밖에서 구경하였다.

리명석은 어린애들과 늙은이들을 앞자리에 편히 모시느라 부지런히 움직이었다.

그는 로인들을 한사람한사람 친절히 손잡아 자리를 잡아주었다.

동포들의 눈에는 한결같이 호기심과 기대가 잔뜩 어려있었다.

이런 공연은 부락이 생긴이래 처음이었던것이다.

수많은 눈길이 무대우에 집중된속에서 드디어 알락달락한 무지개빛 색동저고리를 감쩍스레 입은, 까만 눈이 새별처럼 반짝이는 아홉살되나마나한 귀여운 처녀애가 관중들앞에 나섰다.

처녀애는 관중들을 향하여 공손히 큰 절을 올리

었다.

순간 장내가 터져나갈듯 우렁찬 박수가 터졌다.

《아유-귀엽기도 해라!》, 《어린애들에겐 색동저고리만한 고운옷이 없다니!》

이런 말들이 너인들속에서 물결처럼 흘러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여러분! 우리는 조선학교에서 달려온 <문공대>원입니다. 우리는 이 역땅의 갓은 천대속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과 용기를 안겨주려는, 조선사람의 슬기와 자랑을 안겨주려는 한가지 생각을 안고 조선의 노래와 춤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선민족의 춤과 노래는 어느 나라 그 어떤 춤과 노래보다도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서툴지만 힘껏, 정성껏 공연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헤아려주시고 맘껏 즐겨 주십시오!》

귀여운 처녀애의 소박하고 진정넘친 인사는 동포들의 가슴을 쳤다.

손이 아프도록 박수치는 동포들의 눈에는 벌써부터 구슬같은 눈물이 맺혔다.

장중한 기악중주에 맞추어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공연의 막은 열렸다.

고향과 조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장내에 물결인양 소용돌이 쳤다.

새소리없는 수풀인양, 꽃이 없는 들판인양, 노래없는 생활인양 쓸쓸하고 외롭던 부락이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듯 활기에 넘쳐났다.

뒤이어 영희의 독창이 무대에 울랐다.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전주가 울리며 장내는 잔설에 덮인 땅을 뚫고 돌아나는 새싹의 소리마저 들릴듯한 고요가 깃들었다.

가끔 열린 뒤창문으로 어느 풀썩에선지 청아하게 우는 벌레소리가 간간히 흘러들었다.

푸른 산 저 너머 멀리보이는  
새파란 고향하늘 그리운 하늘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 때면  
저 산너머 하늘만 바라봅니다...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영희의 청고운 고음이 언제나 고향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동포들의 가슴가슴을 흔들며 고향으로 고향으로 이끌어갔다.

관중들은 모두다 저저마끔 두고온 눈에 삼삼한 고향산천, 남겨둔 그리운 부모처자들, 눈물로 헤여졌던 다정한 이웃들과 친근한 벗들을 눈앞에 그리고 그리며 향수에 푹 젖어들었다.

너인들의 들릴듯말듯한 잔잔한 흐느낌소리가 합쳐져 나무아지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마냥 설레이었다.

이국땅 망국노의 설움에 절고절어 시든 사과알처럼 쪼드라진 로인들의 얼굴에 눈물이 반짝이었다.



고향이며, 부모형제들이여, 벗들이여, 우리 기어  
이 어머니조국의 품에 다시 안기리라. 살아서 못간  
다면 뉘이라도 훨훨 날아 어머니대지에 포근히 묻  
히리라. 부디 잊지말고 두팔벌려 기다려다오! 고향  
이여, 조국이여...

《총련은 동포들의 어머니품》, 《모두다 조선학  
교에서 공부하자》, 《우리는 조국의 해외공민》,  
《조선학교건설은 동포들의 힘으로》 등등...합창시,  
짧은극, 노래이야기, 춤들은 진실성과 민족성, 높  
은 형상성으로 하여 대절찬을 받았다.

부락동포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감격에  
넘쳤다.

너인들은 걱정을 누를길없어 서로 옆사람의 손목  
을 뜨겁게 맞잡곤했다.

마지막공연종목인 《조선민요련곡》은 민족적색  
채가 짙은것으로, 동포들의 사상감정에 꼭 맞는것  
으로 흥분의 절정을 이루었다.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뽕따리  
가세》 등등... 유구한 민족전통이 구현된 우리 겨  
레의 사상생활감정을 훌륭히 형상한 민요들은 동포  
들의 가슴을 휘저어 흥취를 한껏 돋구었다.

동기당동기당 장교의 멋들어진 장단은 사람들의  
오락을 들썩들썩 돋구었다.

너인들이 하나둘 일어서서 으쓱으쓱 어깨춤을 추  
기 시작하자 《중-다! 중구나!》하고 로인들도 소  
리높이 웨치며 무릎을 찰싹찰싹 치며 춤판에 끼여  
들었다.

장내는 샅시에 춤판으로 변했다.

리명석도 너인들에게 잡아끌리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고되고 쓰라리고 외로운 이국살이에 발고랑같은  
주름살만 패였던 동포들의 얼굴은 오늘따라 보름달  
처럼 류달리 환해졌다.

분회장인 류동기도 함께 넘실넘실 춤추며 이런  
희한한 일이 있는가? 하고 거듭 생각하였다.

지난날 분회모임을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  
들었는가. 어찌다 몇몇 모여앉아도 신세타령이나  
하고 한숨만 지으며 서로 침침한 얼굴만 쳐다보다  
가 헤어지기 일쑤였다.

슬픔에만 잠기고 근심에만 시달려 그늘아래 심아  
대처럼 시들었던 동포들이 오늘은 어찌되어 양춘아  
래 피어나는 봄꽃처럼 환해져 웃고 법석이고 흥겹  
게 춤추고 푸른기운에 넘쳐났는가. 참으로 경이적  
인 일이었다.

이런 명랑하고 락천적이고, 정력적인 겨레들과  
한마음한뜻이 된다면 두려울게 무엇이며 주저할게  
무엇이며 못할게 무엇이라. 분회장은 소심해져 겁  
부터 먹고 기가 죽어 허둥지둥하던 지난날의 자신  
을 돌이켜보며 후회가 컸고 그럴수록 《문공대》의  
놀랄만한 선동력과 그를 이끌고 자래워온 나이 젊  
은 리명석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이 두터워졌다.

리명석은 방바닥이 꺼질듯, 천정을 뚫을듯 사기

충천한 마을사람들을 보니 《문공대》련습을 위하  
여 정열과 땀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 지새운 수많은  
나날들이 되새겨져 감개무량하였다.

부락동포들은 한결같이 《우리 선생님》하고 즐  
거 부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공연이 있는 다음날에 벌써 적지않은 동포들이  
《우리가 굶는한이 있더라도 자식들을 조선학교에  
서 공부시키겠소!》하고 결의해 나섰다. 그리고는  
조선학교건설을 적극 지원할것을 호소하였다.

공작중간쯤된 일요일에 지원차로 몇몇 조청원들  
이 부락에 도착하였다.

지부위원장이 직접 조직한것이였다.

리명석은 어렵게만 생각하던 공작사업이 땅짚고  
헤엄치듯 자신심이 생겼다.

그는 조청원들한테서 지부위원장의 격려의 편지  
를 받았다.

《수고가 많겠소. 이곳 상공인들과의 사업은 잘  
돼가고 있소... 영희에게 무슨 일이라두 시키라구.  
성차진 않겠지만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질 않소.  
보석처럼 아름다운 마음은 언제나 심장속깊이 박혀  
있는 법이요. 나는 좋은 우리 동포들의 심장속엔 반  
드시 보석같은 민족의 넋이 숨어있다고 굳게 확신  
하오. 그 귀중한 마음은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지  
만 심장을 바쳐 다가서는 사람에겐 종당엔 량심의  
대문을 활 열어주기마련이요. 나는 선생이 조선청  
년으로서, 숭고한 우리 민족의 당당한 교육자로서  
마을사람들한테 심장을 바치리라는것을 조금도 의  
심치 않소. 성공의 날 기쁘게 만나기요. 영희를 잘  
키우라구! 이젠 제팔 훌륭하게 키울려는 이 아버지  
의 욕심이기전에 조국의 딸로 훌륭하게 키우려는  
한 일군의 요구요.》

틀이 없고 격식없고 미사려구가 없는 짧은 글이  
지만 천아버지와 같은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넘쳐  
흐르는, 뚫어오르는 동포애와 강철도 녹여낼듯한  
열렬한 조국애가 넘쳐흐르는, 정의와 진리에 대한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넘쳐흐르는 불길과 같은  
편지였다.

리명석은 편지의 구절구절을 심장깊이 새기며 자  
기의 인생이 바야흐로 금빛 노을같은 성지를 눈앞  
에 두고있다는 생각이 마음 한귀에서 물결처럼 일  
렁이는것을 가슴벅차게 느끼었다.

그 길은 무한한 헌신성을 요구하는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조선청년들이 반드시 억세게 걸어가  
야할, 영광넘친 겨레와, 민족과 조국과 굳게 이어져  
있는 성스러운 길이란것을 심장으로 뜨겁게 감득하  
였다.

그는 몸은 여기 부락에 있지만 조직의 사랑과  
믿음속에, 조직의 신임과 보살핌속에, 동포들의  
크나큰 기대속에 있다는 긍지와 행복감으로 새힘  
이 용암처럼 부글거렸다.

그는 조청원들과 힘을 합쳐 별빛이 흐를때까지  
동포들의 돼지우리를 모조리 찾아내어 번듯하게 수

리해 주었다. 조청원들은 돼지우리를 수리하면서  
너인들과 동포들을 힘차게 선동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어주신 총련의 두리에 뭉친  
다면 일본땅에서도 두려울것없고, 외로울것없고,  
푹지못할 난판이 없다는것을 쉬운말로 알기쉽게 차  
근차근 일깨워 주었다.

너인들은 버림받은 이역땅의 이름없는 이 허줄한  
부락에 동포바람, 고향바람, 조국바람이 불어왔다  
고 웃음꽃을 피웠다.

사시절 엄혹한 겨울속에서처럼 떨기만 하던 가련  
한 부락이 활력넘친 왕성한 계절의 따뜻한 품에 안  
긴듯 활기에 넘쳐났다.

리명석과 조청원들은 낮의 힘겨운 로동의 피로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할일에 대하여, 공작의  
성과적인 마무리에 대하여 밤깊도록 열정적으로 토  
론하였다.

...조청원들이 잠든 다음에도 리명석은 미흡한 점  
이 없는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알찬 열매를 거두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여 사색의 바다를 펼쳐갔다.

나무잎에서 굴러떨어지는 물방울소리마저 들릴  
듯한 고요가 깃들었다.

티티티... 티티티... 드센 금속성의 마찰음인듯한  
잡음을 요란스레내던 반도체라지오에서 갑자기 비  
상경보를 보도하였다.

《초저녁 오오이기와상류에서 내린 300미리이상의  
무더기비로 강물이 범람하여 하류로 밀려가고  
있으니 그 주변 주민들은 급히 대피할것!》

반도체라지오는 당장 터져나갈듯 떨며 비상경보  
를 거듭 반복하였다.

리명석의 가슴은 널뛰듯 활랑거렸다.

그는 강한 용수철에 튕기듯 훌쩍 일어섰다.

《동무들, 어서 일어나오! 홍수가 들이닥친다고  
하오!》

리명석은 이렇게 고향치며 조청원들을 흔들어 깨  
웠다.

조청원들은 리명석의 다급한 고향소리에 벌떡벌  
떡 일어났다.

《동무들은 빨리 부락사람들을 깨워 제방쪽으로  
피신시키라구. 박동문 학생들을 피하게 하라구. 나  
는 마을청년들과 돼지를 구출하겠소. 어서, 시간이  
급하오!》

여기저기에서 탕탕 문두드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  
뜨리며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잠시후엔 골목골목에서 어지럽고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사람찾는 청높은 소리가 흘러넘쳤다.

부락은 삽시에 벌동지를 쭈서놓은듯 법석 끓었다.

이곳저곳에서 화불이 타올랐다. 리명석이 화불을  
들고 마을청년들과 함께 께썩거리는 돼지들을 제  
방쪽쪽으로 런속 몰아가는데 강웃쪽에서 사품치는  
누르런 강물이 밀려오고 있었다.

강 한복판의 물살은 달음박질치듯 빨랐다. 노호  
하는 강물소리가 지심을 울렸다. 다행히도 강 한켠

구석 약간 중대높은 부락엔 물이 서서히 불어나고  
물살은 거의 없었다. 허나 수위는 시시각각 높아만  
갔다.

리명석과 조청원들의 결사적이고도 민첩한 활동  
으로 부락사람들과 학생들은 무사히 제방쪽으로 피  
신하였고 거의 백마리넘는 돼지도 한마리의 손실도  
없이 구출되었다.

리명석이가 한 청년과 마지막 돼지 두마리를 몰  
고가는데 《사람 살려요!-》하는 비통한 목소리가  
부락끝쪽에서 울려왔다. 목소리와 더불어 두팔을  
머리높이 들고 수면에 솟았다잠겼다하는 어린애의  
모습이 저 멀리 물안개속에 희미하게 보이었다.

《돼지를 부탁하오!》 순간 리명석은 어린애쪽으로  
로 달려가며 청년에게 소리쳤다.

강물은 그의 가슴을 넘고 있었다.

발버둥치는 어린애는 차츰 급류쪽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급류에 휘말려들면 생명이 위협하였다.

리명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물살은 울부짖는 맹수처럼 더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는 위기일발의 순간을 몸서리나게 감축했다.  
그는 앞뒤 가릴새없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자유  
형헤엄치기로 최대의 속도를 내었다.

통나무며 나무판자 지어는 양복장들까지 물살에  
감겨 떠내려왔다.

통나무가 그의 옆구리를 드세차게 들이받았다.

순간 숨이 뚝 막힐듯하여 정신이 아찔하였다. 눈  
앞에서 별무리들이 흐르고 손발이 숨처럼 나른해져  
기운이 쑥 빠져갔다. 그는 제몸도 지탱하기 어려웠다.

《마을사람들한테 심장을 바쳐야 하오! 바쳐야 하  
오! 바쳐야 하오!》

지부위원장의 쩡쩡한 목소리가 련발사격소리처  
럼 리명석의 심장을 때렸다.

순간 그는 두눈을 번쩍 떴다.

(내가 죽는한이 있더라도 동포의 자식을 기어이  
건져내야 한다!)하는 한가지일념에 불탔다. 그는  
불사신처럼 물결을 헤쳤다. 그는 급류를 5메터가량  
남기고 끝끝내 소년의 몸을 와락 끌어안았다.

안도의 숨이 파래진 입술사이에서 바람처럼 새어  
나갔다.

그가 안간힘을 다하여 가까스로 제방쪽을 툭아오  
르는데 조청원들이 먼저 달려오고 뒤따라 마을사람  
들이 오구구 모여들었다.

리명석은 기절한 아이를 잔디우에 바로 눕히고  
열성적으로 인공호흡을 시켰다. 함뿔 물젖은 그의  
온몸에 진땀이 솟았다. 거의 20분만에 아이는 노란  
물을 육육 토하고 제정신이 들어 영-영- 울었다.

《동남이가 살았구나!》, 《쫓쫓...천만다행이구  
나!》, 《무시무시한 그 물속에서 선생님은 어찌  
면... 그리도 고마운지!》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사하며 기뻐하였  
다.

《동남아!》 정신없는듯 제자식을 찾아 헤매다가 돌아온 분회장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었다.

동남은 가는 두팔로 분회장의 목을 껴안고 쿨쩍거렸다.

분회장은 이어 동남의 옆에서 두다리를 쭉 펴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리명석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감탕물이 게발린 리명석의 얼굴이며 목, 팔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광란적인 물살을 타고 들이닥친 통나무에 굽힌 상처자리에서 나는 피였다. 리명석의 얼룩진 얼굴을 보는 분회장의 가슴은 몽클하였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 애는... 우리 동남은... 선생님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분회장은 걱정예 복받쳐 말을 더듬거리며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었다.

부락동포들도 한결같이 눈시울을 적시었다.

《분회장동지, 그리지 마십시오. 우리야 생사운명을 함께 할 한피줄이 아닙니까.》

×

《문공대》 사업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리명석의 마음은 날듯 싶었다.

홍수의 피해가 심하기는 했지만 모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부락을 새로 일떠세웠다. 아울러 그들 모두는 조선학교를 새로 짓고 자녀들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시키겠다고 하면서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 돼지를 팔았다. 동포들의 가슴속 깊이 고인 민족의 넋이 그의 온몸에 뜨겁게 타올랐던 것이다.

리명석은 아침노을 물든 영희의 얼굴을 뒤돌아보며 정답게 말했다.

《영희야, 이 선생한테 네가 집으로 들어서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인사를 들어보겠니?》

《...》 영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말없이 고운 눈을 휘둥그레 떴다.

《위원장동지, 선생님의 받침대, 지지대는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

영희는 흑보석같은 빛나는 눈으로 리명석을 뵈히 지켜보았다.

진주보석같은 고운 마음에서만 뿜어나올수 있는 더없이 아름다운 눈빛이었다.

《놀라긴... 좋은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알수록 좋아! 핫핫핫...》

리명석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제방둑길을 스치며 붉게 타는 하늘가로 울렸다.

영희가 방긋 웃었다.

리명석의 눈에는 멀어져가는 초라하고 키낮은 《조선인 부락》이 그 어떤 대도시보다도 높고 웅장하게 보이였다.

그렇다. 일제가 제아무리 발악하여 우리 조선동포들을 《조선인 부락》이 아닌 더한 시궁창에 몰아넣는다 하여도 채일동포들의 가슴속에는 동포애, 민족애, 조국애의 불길이 저 불타는 노을처럼 더더욱 붉게붉게 불타오르리라! 이런 생각으로 리명석의 가슴은 바람그득찬 풍선처럼 부풀었다. 하늘은 피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부락사람들의 열렬한 애국심처럼 ...

## 가사

# 꿈인가 싶어

최충웅

북방의 농장벌에 눈오던 저녁  
장군님 우리 집에 찾아 오셨네.  
새집이 보고 싶어 왔다 하실 때  
인사드릴 생각도 그만 못했네  
꿈인가 싶어 꿈인가 싶어

방안이 크고 넓어 좋다 하시며  
장군님 더없이 기뻐하셨네  
전기난방온돌우에 앉아 보실 때

방석 드릴 생각도 그만 못했네  
꿈인가 싶어 꿈인가 싶어

우리와 사진도 찍어 주시고  
장군님 밤길로 떠나 가셨네  
잘 있으라 손까지 저어 주실 때  
축원의 인사도 그만 못했네  
꿈인가 싶어 꿈인가 싶어

## 깊이 더 깊이 외 3편

리연희

80 메터 굴길에서  
100 메터 편도에서  
우리는 물었다  
그들은 어디서 일을 하는가고  
  
누구보다 먼저 만나고싶은 그들  
누구나 만나면 자랑하고싶어하는 그들이었다  
그들은 깊이 더 깊이  
그들은 제일 앞장선 굴진소대라고

우리는 걸었다  
전기를 아껴쓰느라 인차에서 내려  
걸어서 출근한 그들의 자욱  
그래도 탄차가 벗어설 때면  
손으로 어깨로 떠밀어간 그 자욱자욱

누구보다 앞장서간 그들이였기에  
누구보다 난관도 많았던 그들  
허나 그들에겐 모자라지 않았다  
없는것이 없었다

레루도 동발도 전동기도  
  
120 메터 150 메터...  
참으로 험치 않은 이 길  
허나 누구도 도피하지 않은 이 길  
드세찬 발파소리 번쩍이는 탄맥앞에  
그 모든 시름과 힘겨움 그리고 그 모든것  
한꺼번에 잊을수 있는 그들이였기에

250 메터...  
우리 더 묻지 않았다  
땅속 깊이깊이 들어서며  
그 마음속 깊이깊이 들어서며

위훈이 높을수록 깊이 더 깊이  
어려운 때일수록 깊이 더 깊이  
보석처럼 량심을 묻으며 사는 사람들  
우리는 보았다  
지하수천척 이 땅의 가장 한끝에서  
조국의 성실한 아들들을

## 밤하늘의 처녀들

반짝이는 별빛인가  
불꽃을 날리며날리며  
전차들이 오르네  
수천척 땅속에서 이 땅위로  
저 하늘높이 쌓은 석탄산으로

전차마다 가득히 석탄을 싣고  
머리위에 불꽃을 날려가는 처녀들...  
이 밤엔 별들도 많네  
탄전의 밤하늘엔 별들도 많네

반짝이는 별들과 꼬리잡이하는가  
아득히아득히 오르는 불꽃  
좌르르 검은금 저 하늘에 쏟고서  
류성처럼 즐겁게 땅속으로 흘러드네

기특한 처녀들

눈동자 별빛같은 그 얼굴들  
내 보고싶어 만나고싶어  
로적봉을 올라 청년갱으로  
석탄산으로 올라서니

어느새 잠들었는가  
밤새 동무하여 빛나던 별들  
처녀들도 수집은듯 땅속깊이 사라지고  
멀리 가까이 비껴오는 노을  
아 눈부신 새벽 번쩍이는 석탄산!

처녀들 안아올렸네  
땅속의 검은금  
이 하늘아래 이 땅위에  
모두 안아내렸네  
저 하늘의 별들도... 별들도...

## 너의 한줌

고난이 첩첩  
어둠처럼 막아서는 여기  
무죄의 바줄도 진하여 벗어나고  
바람마저 공기마저 들어서기 주저하는  
지하 수천척!

여기엔 있었다  
타오르는 화불처럼  
돌과구의 앞장에  
마음의 억척동발처럼 세우며 가는  
붉은기!

여기엔 있었다  
우렁찬 적기가 노래와 함께  
착암기소리, 발파소리...  
순간도 멈출줄 모르는 함마소리...

한치한치  
열어가는 자욱자욱

번쩍인것은 탄맥뿐이었던가  
석탄, 너는 먼저 타고있었다  
땀줄기로 번쩍이는 가슴들앞에  
돌진돌진을 웨치는 그 눈빛속에

석탄!  
너의 한줌 귀히 쥐여본다  
평범한날엔 대수로이 밟을수도 있었던 이 한줌  
가슴에 안아본다  
탄부, 그대들의 땀배인  
혁명앞에 지닌 고귀한 량심의 무게

그렇게 솟구쳐오르고있다  
지하 수천척으로부터 이 땅우로  
하늘을 들며 석탄의 산악으로!  
그렇게 다져진다  
세기의 창공높이 더욱 힘차게  
천리마로 힘차게 내려쳐오를 이 땅의 도약대는

## 메아리

한걸음 두걸음  
제 발자욱소리에조차 놀라며  
지하의 이 세계에로 들어선것은  
바로 이태전

억만갈피로 다져진 지층의 역사를  
한장한장 교과서처럼 번지며  
한마디한마디 지하의 말마디를  
배워온 청년

땅우에서 산 나이 서른해  
땅밑에선 이제 겨우 두살잡이  
오늘은 서있구나 전설의 거인인양  
어깨우에 크낙한 산악을 떠이고서  
둥근 이 지구에 통구멍이라도 낼듯 발밧을  
굽어보며

《삼각천공법》 《쇄기식동발》  
전혀 새로운 그의 말마디  
오늘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천년지심이 외우고 있다

비로소 첫말을 댔 어린애마냥  
서로 다투어 울리는 암벽  
번쩍이며 받아외우는 탄벽  
수억만년 하늘의 천둥에도 침묵으로  
묵묵히 대답않던 지심이 메아리친다

착암의 메아리로 발파의 우뢰로  
수천만년의 이 지구를 흔들며  
청년은 나아 간다  
강행군의 돌과구를 열어 래일로  
새 세기의 주인은 나아간다

## 논둑에 대한 생각

림병순

나는 토지정리전투가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천벌 한복판에 서서 눈앞의 놀라운 전변에 넋을 잃고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어렸을 때 떠나온 고향벌이었다.

그 옛날 지각의 변동으로 서해가 생겨나고 반도가 형성되면서 나지막한 산지들과 분지들이 논벌로 변해버렸다는 이 벌에는 류달리 다랑이들이 많고 보도랑들이 거미줄같이 얽혀져 둘러 보면 시야에 안겨 오는것은 크고작은 논둑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 논둑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벌을 통체로 대패질한듯 넓고 반듯한 규격포전들이 벌 한가득 펼쳐졌다. 바라보면 후련한 한가슴에 흐르러진 벼이삭들이 설레이는 풍요한 대지가 안겨오는 듯... 벌은 벌대로 넓어지고 가슴은 가슴대로 커지는 오늘의 고향벌이었다.

양수장이 있던 새터주변에서 여러대의 불도젤들이 모여 들어 거센 보습날로 논둑을 깎아내고 있었다. 벼들숲이 우거져 사철 들새들이 깃든다던 새터는 내가의 큰 방축이었다. 다랑논들이 합쳐져 규격포전으로 변하고 큰둑밀의 보마저 묻히어 포전으로 되었으니 새터의 옛흔적이란 무너져내린 그 논둑의 잔해들뿐이었다.

그것을 나는 레사로운 눈으로 볼수가 없었다.

오랜 세월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여지고 다져진 논둑이었다. 그 논둑을 어찌 단순히 지리적개념이나 자연적인 의미로만 대할수 있을것인가?... 이 땅에 소유가 생겨나면서 처음으로 툇도 생겨났고 수수백년 흐르면서 그것은 마치 가치를 치듯 논두령을 따라가며 땅을 갈라놓고 사람들을 갈라놓았다.

거기에는 땅에 대한 세기적숙망과 함께 물에 대한 오랜 갈망이 스며 있었고 벌에 뿌려진 그네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돌기돌기 깃들어 있었다.

정녕 그 논둑은 대대손손 이 벌을 가꾸어 온 고향사람들의 넋이 어려 있는 논둑인 동시에 력사의 증견자였다

어느덧 나는 그 논둑이 던진 추억의 파문에 실려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내 마음의 논둑길을 헤치었다.

수수대끝에 삼각을 메워 잡자는 잡자리를 쫓던 동요시절의 나의 푸른 논둑은 향촌에 대한 애뜻한 동경의 세계였다.

...

여라문에 하나- 어허-

여라문에 둘ைய이요 - 세잇- 또 한배미

넋이니 얼른 한배미 적서 보세-

세임수를 노래하듯 톨조를 길게 띄워 뿔아내는 아버지의 드레소리는 비를 주지 않는 하늘에 대한 향소의 부르짖음이였고 서글픔과 소원의 세계였다.

그러나 불벌에 땀을 철철 흘리며 온 여름 논둑밀에서 물을 퍼올리였지만 논판은 거북등 같이 갈라지고 벼포기들은 새들새들 타들어 갔다. 논둑에 주저앉아 한숨짓던 아버지가 지주놈의 등쌀에 못이겨 고향을 떠나갈 때 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리어 마지막으로 걸어가던 저 새터의 논둑은 어린 가슴속에 처음으로 새겨진 원한과 울분의 세계였다.

그 논둑들에 서리였던 설움과 원한이 가서 진것은 언제였던가?...

세월은 흘러 몇차례의 혁명의 폭풍이 논벌을 휩쓸며 논둑을 지나갔다. 해방의 환희속에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이 실현되었다. 사람들은 논둑에 퍼터앉아 제이름이 새겨진 표말을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었고 억제할수 없는 고마움에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팽과리에 맞춰 춤을 추고 《반만년 처음 보는 우리의 자랑 발가는 농민에게 토지를 주고...》하며 노래를 부를 때 세기를 두고 서렸던 원한은 다 가서 지고 논둑에는 해벌에 무르녹는 봄빛과도 같은 행복만이 어렸던것이다.

그러나 논둑은 제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고 농민들의 마음에 쌓여진 논둑도 사라진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땅을 애무하여 논둑을 더 높이 쌓았다. 하기에 논둑을 사이에 두고 때로는 물싸움, 동싸움도 벌어지고 행복에 취하여 나라를 생각하는 고마움이 더더욱 커진것이 아니었던가?...

협동화의 종소리가 들에 울리고 수리화의 세찬 동음이 논둑마다에 울려퍼질 때 사람들은 다랑논에 흘러드는 논물에 발을 잠그고 깊은 주름살을 한껏 퍼고 하늘을 향해 큰 웃음을 던지였었다.

기계들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모를 내고 김을 땔 때 그들은 한생 굶어졌던 허리를 쭉 펴고 새터에 모여들어 그 전변을 두고 황홀한 꿈이야기를 나누듯 외이고외이였었다.

하기에 모진 광풍이 몰아치는 어려운 행군의 나날에도 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벌을 가꾸었

고 다랑이에 손모를 내면서도 조금도 힘든줄을 몰랐으며 허기지고 피멍이 진 가슴들을 달래며 웃으며 준엄한 시련의 언덕을 헤쳐왔던것이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는 기계들도 논다랑이에 걸려 농민들의 고된 로동을 다 대신할수 없는것을 못내 마음쓰시며 논둑들을 허물고 다랑논과 버덩들을 깎아 바다와 같이 펼쳐진 새벌을 안아 오실 구상을 펼치시였으니 실로 그이께서 지니신 인간애는 얼마나 뜨겁고 담력은 얼마나 굳고 거창한것인가!

오늘의 전변은 상상할수 없는 꿈이었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수세기를 두고 변하지 않던 고향벌이 불과 반년사이에 몰라보게 변하였으니 그 말은 우리 시대에 와서 비로소 뜻을 잃은 한갓 낡은 속담으로 되어 버린 것이다.

새터가 없어지고 크고작은 논둑들과 다랑이들이 모두 하나와 같은 규격포장으로 변해버린 내고향 동천벌이었다.

이 벌에서 다랑논과 함께 그네들의 마음속 논둑도 영원히 사라져 버리었다. 벌은 벌대로 넘어지고

사람들의 가슴은 가슴대로 커졌으니 벌의 정취 역시 변한것이다. 끝없이 펼쳐진 규격포전들과 곧바로 뻗어간 물길을 보느라면 한없이 끼끗하고 호연스러워 절로 시련의 행군길에 땀이었던 마음의 아픔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탁 트인 한가슴에 랑만과 희열이 뿌듯이 안겨와 나는 온 누리를 둘러보며 신심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외이었다.

벌은 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 벌에 차넘치는 정서는 정서대로 모두 우리 시대의 기상을 닮아가는 내 고향의 동천벌이라고...

나는 상념에서 깨어나 부드러운 흙살에 발목을 이으며 현연한 고향벌의 정취에 한껏 취하여 걸고 또 걸었다. 발길을 막아서던 올망졸망한 논둑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걸음 역시 거칠것이 없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옷자락을 날리었다. 그러나 나의 가슴은 혼풍을 안은 돛폭처럼 한없이 부풀어 올라 하늘과 벌이 잇닿은 아득한 지평선을 향해 걸어갔다.

## 대흥단의 미소

(총련)리순옥

잘 가라 손 흔드는

대흥단 처녀들

감자밭 저 멀리서 바래줄 때

맑고맑은 그 미소앞에

내 눈시울 뜨거워지네

그 맑은 미소는

어이하여 그리도 따뜻한지

어이하여 그리도 가슴속 피 끓게 하는지

내 눈을

마음의 눈을 띄워 주네

한포기 풀, 한줌의 흙

눈부신 햇빛과 산들바람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설레이는 보리밭은

처녀들의 저 미소에 어린 조국의 품치

아, 희망도 꿈도 많은 꽃나이청춘

대흥단에 바치여 깨끗한 그 미소

고향을 떠나 수천리

백두벌을 적신 구슬땀 방울방울

어머니앞에 순결한 그 마음이

대흥단의 미소로 피였네

잘 있으라

내 차창너머 손을 흔들며

다시 또다시 바라 보니

대흥단의 그 미소가

그 미소가 햇빛으로

하늘땅에 가득 찼네

# 고향아 나의 고향아 외 1 편

리동후

고향아  
나의 고향아  
밤마다 꿈결에도 너는 실려 와  
이 마음 다잡고 놓지를 앓아  
내 오늘 다시 왔노라  
태를 묻은 산촌마을 정든 고향아

구름 피는 아아한 마식령 넘어  
산그늘 길게 드리운 양지풀 어구  
눈부신 창문들이 반겨 웃는데  
목 메이게 풍겨 오는 산열매의 향기  
칭칭 실가지 드리운 버들방천에  
도란거리는 맑은 내물소리

때이른 흰서리 귀밑에 비끼여도  
사랑의 정은 늙지를 앓아  
그 누가 탓하랴 소꿉시절 그때처럼  
애술 푸른 언덕에서 마구 덩군들  
종개잡이 손 더듬어 해 가는줄 모르던  
저 실개천에 침병 뛰어 든대도

고향아  
나의 고향아  
마시며 자라온 청신한 정기와 웅달쌈  
이 몸에 살이 되고 피로 뿜지 앓았다면  
내 어이 결사의 각오 안고  
전화의 불비속을 내달을수 있었으랴

어데를 가나 외롭지 앓았노라  
떨어져 살수 없는 런던파도 같이  
걸음걸음 따르며 포근히 나를 안아  
어려우면 내 마음 주눅들세라

순결한 신념의 나래를 달아 준  
소중한 네 품이 있어

그 품이 그리워 내 진정 못잊노라  
꿀맛같이 달고단 고향의 민요가락  
수리봉 여울목에 발전기 동음 타고  
집집에 피어나는 정겨운 웃음소리  
산마다 보물산 인심도 후한 고향  
퍼내고퍼내여도 밀창을 모르는 인정의 《호수》

사랑도 기쁨도 우정도  
풍요를 자랑하는 환희로운 삶도  
줄줄이 나의 시행에 담아  
한생토록 노래한들 끝이 나랴만  
이 밤만은 감회깊이 회포를 나누어 보자꾸나  
탁배기로 얼근히 흥취를 돌구면서

고향아  
나의 고향아  
너는 내 운명과 하나로 이어져  
세상을 통채로 다 준대도 아니바꿀  
피어린 계급의 유산이여서  
잠시라도 마음의 탕개를 풀수 없는  
나는 영원한 그대의 아들

어느때나 아름다운 절경을 펼쳐놓고  
어서 오라 반기는 사랑의 요람이여  
죽어서도 못버릴 어머니품이여  
너와 함께 있어라 내 언제나  
너와 함께 살리라 내 영원히  
아, 고향아 나의 조국아!

## 사랑의 메아리

### 1

젖빛안개 서서히 걷히는  
아늑한 산촌의 새벽  
밤새 땀골집 창가에 불빛이 흐르더니  
고요한 정적을 깨치며  
새 탄생의 고고성을 터치는  
아기의 울음소리  
경사로운 그 기쁨 제 먼저 알았노라

어느새 담장우에 날아 올라  
긴목을 빼들고 뺨을 지며 꼬끼오-  
요란스레 내뿜는 수탉의 결대청  
-세쌍둥이 낳았어요!  
이때라 반가운 그 소식 집집에 전하자고  
연해연송 거끔내기로  
온 마을이 들썩하게 화답하는 결대청  
참으로 호기차고 조화롭게 잘도 어울려  
경쾌한 취주악의 가락인들



이처럼야 청아하고 류창하랴  
 제대군인 새 가정의 경사  
 내 고향의 만복을 함뻍 떠실고  
 끝없이 울려 퍼지는  
 아, 산촌의 메아리 축복의 노래여

## 2

매봉산 구름봉이 하도나 높고높아  
 아침해 중천에 떠 오르는 한낮  
 산까지 무리지어 지붕을 넘날으며  
 온 마을이 분주하게 깍-깍-  
 그 무슨 연고로 저리히도 들보채는가  
 세쌍둥이 아버지 제대군인청년  
 프락또르 멈추고 시창밖에 귀 기울이니  
 멀리서 우릉우릉 울려 오는 동음소리

집집마다 문을 치고 프락으로 나서는데  
 -비행기가 날아 와요!  
 제 먼저 보았다고 아이들은 떠들썩  
 하늘에 날아 돌던 직승기 한대  
 샘골집 마당가로 서서히 내려 앉자  
 환호를 터치며 흐느끼는 고향사람들  
 그 옛날 함정갈던 불우한 이 골안에  
 문명의 해발은 따사로이 비끼여  
 위대한 사랑의 새 전설이 태어났거니  
 귀여운 옥동자의 밝고밝은 미래 위해  
 아, 장군님 열어 주신 사랑의 하늘길로  
 산골마을 감사의 마음도 함께 실려 갔어라  
 매봉산 저 너머 그리운 평양으로-

## 출근길에서 외 1 편

김진주

눈부신  
 해빛 넘치는 거리  
 흥성이는 사람들의 출근길 물결은  
 끝없이 흘러가고

희망 가득찬 열정 속에  
 나도 청신한 아침 출근길 나섭니다  
 그러면 길가에서 자주 만납시다  
 유치원으로 가는  
 얼굴고운 처녀애와 총각애를

무엇인지  
 자량이 넘쳐  
 쉽없이 속살거리는 모습  
 아 너무도 너무도 귀여워

가던 길 바쁜 걸음 멈추고  
 나는 물었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고  
 몇살인가고

금시

내 마음도 아이가 된듯  
 하냥 가벼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천진한 눈동자 맑은 목소리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더 많은 더 좋은 일을  
 끝없이 하고싶어집니다  
 잠도 없이 휴식도 없이

얼마나 소중한니까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아름답게  
 티없이 자라나는 저 아이들이!  
 바로 이들을 위해 우리 뛰고뛰는것 아닙니까  
 바로 래일을 위해 우리 웃으며 일하는게 아닙니까

출근길에서  
 나는 매일 그애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애들은 방긋 웃고  
 나의 걸음은 더 빨라지고  
 강성대국- 그 희망찬 래일은  
 우리의 힘찬 출근길에서  
 더 빨리 다가옵니다

## 어머니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어머니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나를 낳은 사랑입니다  
 온몸에 흐르는 피를 모아  
 내 숨결 내 생명을 낳아준  
 아 너무도 순결한 사랑입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사랑입니다  
 나를 키운 사랑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잊으신듯  
 온몸을 깎아 나에게 바치신  
 아, 너무도 크나큰 사랑입니다

새날은  
어머니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어머니체온같은 더운 밥을  
즐거이 먹으며 출근길 나섭니다  
길거리엔 드바쁜 사람들의 발걸음  
어머니 사랑으로 물결칩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오직 출렁이는 기쁨속에서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거기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문밖에서  
멀어져가는 자식을 말없이 바라우는...

나는 보았습니다  
고난의 나날  
건설장에서도 개간지에서도

사람들의 열기찬 모습속에  
어머니가 비껴있는것을!  
그 무한한 헌신과 사심없는 진정을  
남모르게 바치고 있는

진정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나라위해 충성하는 자식을 소원하며  
온생을  
깡그리 바치려 태어나신듯  
이렇게 이렇게 늙었습니다

내 뜨거운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니  
아, 가득히-  
온 세계를 짊 채우며  
가장 아름답게 가장 거룩하게 보여옵니다  
허나 어머니 그 이름은 사랑이라고  
이렇게밖에 부를수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 비키라!

### 최순철

찬바람 몰아치는 숙영의 한밤  
우리 중대의 만형 중대장동지  
천막의 맨끝에 잠자리를 정하며  
말하더라  
-비키오 이자린 내 자리요

기다리던 새 영화 온 날  
우리 중대 만누이 정치지도원동지  
직일병의 위치에 들어서며  
말하더라  
-비키오 어서 가서 영화를 보오

우리의 미더운 지휘관들  
좋은 자리엔 전사를 세워주고  
힘찬 일 어려운곳에 자기가 들어서며  
혈육의 정 담아 말하더라  
-비키오 여긴 내 자리요

생사를 판가름하는 그 순간  
단 한발자욱 옮기면 살수 있어도  
그 죽음을 맞받아  
동지들을 위해 한몸을 바치며  
불덩어리같은 심장으로 웨치더라  
-비키라!

우리의 병사들을  
장군님 가장 가까이 세워주며  
마지막으로 웨치던 그 구령  
-비키라!

이 구령속에  
우리 장군님과 더 가까이  
심장의 박동 함께 하는  
뜨겁고 열렬한 동지에 뿜어넘치고  
원썹들의 흉탄도 비켜섬이 없을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도 솟아올라라

## 마지막 《배우수업》

강귀미

《우리 아버지 제일이야!》

아래방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애의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울리고 그에 호응하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 왔으나 박록산은 자그마한 한장의 그림을 손에 들고 옷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여보, 왜 여기에 계세요?》 하며 안해가 방으로 올라 왔다. 그의 눈에는 질책과도 같은 빛이 어렸다.

그렇만도 하였다. 오늘로 말하면 다부작에 출연화 《민족과 운명》에 출연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박록산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배우칭호를 수여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된 날이었던 것이다.

온 가정이 명절처럼 기뻐하는데 본인만은 그 기쁨에 섞이지 않고 혼자 앉아 있으니 안해가 질책할 만도 하였다. 그러나 록산이 들고 있는 그림을 보자 흠칫 몸을 떨며 《여보, 이런 기쁜 날에까지 왜...》 하고 말을 더 잇지 못하는 안해의 눈에는 금시 물기가 어리었다.

그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이었다. 원화도 아니고 모사품도 아닌 어느 미술잡지에서 떼어내어 액틀에 넣은 그림이었다.

어둑컴컴한 배경속에 람루한 옷을 걸치고 무릎을 꿇은 아들을 아버지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집을 뛰쳐나갔던 방탕한 아들,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두팔 벌려 안아 주었다는 성서의 이야기를 형상한 렘브란트의 이 명화는 워낙 변변치 못한 출판물에서 파낸것인데다가 수십년이라는 세월이 시달려 이제는 아버지의 기쁨에 넘친 얼굴은 커녕 료파조차 알아보기 어렵게 낡고 퇴색되었으나 록산의 부부에게는 언제나 눈물을 자아내는 것이었다.

《여보, 여기 앉소.》

록산은 안해에게 자기옆을 가리켰다. 안해는 어느사이 눈가로 흘러나온 눈물을 훔치며 옆에 앉았다.

창밖의 도로로는 전차와 버스, 승용차들이 련속 달려 가고 달려오는데 그 전조등불빛들과 가로등불빛은 길옆에 담벽처럼 일어 선 대형구호를 비치고 초여름비에 젖은 차도로를 미끄러진다. 흘러가는 불빛으로 하여 도로는 마치도 굽이쳐 흐르는 강물처럼 보인다.

《당신은 이런 날에 왜 하필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데 이런 날이기에 더 그 생각을 하게 되는거요. 우리가 어떻게 그때 일을 잊을수 있겠소?》

안해는 다시한번 눈가를 훔쳤다.

《나도 오늘 그 생각을 했었어요.》

부부는 더는 말없이 손에 든 그림을 내려다 보았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방탕한 자식을 얼싸안고 있는 아버지... 렘브란트특유의 어두운 바탕색을 넘어 그들의 눈앞에는 삼십여년전의 먼 이국땅 일본의 교토거리가 떠올랐다.

교토의 거리도 밤에는 불빛으로 가득차 있었다.

차도로는 무섭게 질주하는 자동차의 불빛으로하여 굽이치는 강물과도 같았었다.

허나 이것은 비애의 강, 절망의 강이었다...

주체52(1963)년 여름의 교토역.

역구내는 조국으로 귀국하는 동포들과 그들을 배려는 동포들로 붐비고 있었다. 손에손에 공화국기발을 들고 흔들며 서로 불안고 돌아가는 동포들속에서는 뜨거운 작별의 인사가 오고갔다.

《잘 가세요. 조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꼭 다시 만납시다.》

력사에 류례없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민족의 대이동》으로 불리운 귀국의 길에 오른 동포들의 흥분과 감격으로 역구내는 파도설레이듯 하고있었다.

그런데 한 중년녀인만은 사색이 되어 사람들을 헤치며 목놓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록산아-! 록산아-!》

녀인의 목소리에 이어 열대여섯살난 총각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형님아- 어디 있니?-》

그들은 바로 박록산의 어머니와 동생이었다. 역구내에서 그들은 록산의 행방을 잃어 버렸던 것이다.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 고조되는 환희와 감격의 웨침에 모자의 애라는 목소리는 종적없이 삼키워 버렸다.

드디어 기차가 서서히 역구내를 빠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달리는 기차는 모든것을 싣고 떠나 갔다. 록산을 안타깝게 찾던 어머니와 동생도 싣고 갔다. 바래워 주러 나왔던 동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역흥도 조용해졌다.

오직 한사람 박록산만이 역흥의 기둥에 기대여 서서 열차가 떠나가 버린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씻고있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록산은 그 다음날 저녁 니이가다의 귀국자숙소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로 어머니의 울먹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록산아, 이제라도 여기 어머니 품으로 오너라.  
귀국선이 떠날 때까지는 늦지 않았다. 급행열차를 타고 오면 된다. 이 땅에서 너 혼자 어떻게 살아 가려고 그러느냐. 제발 오너라.》

록산은 어머니의 애달픈 목소리가 가슴을 허비여 한동안 말을 못했다. 잠시후에야 겨우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난 다르게 할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성공하면 그때에 어머니를 꼭 찾아 뵙겠어요.》

수화기를 두손으로 꼭 부여 잡고 흐느껴 울면서 말하고 있을 어머니의 말소리가 수백리 멀리서 전화줄을 타고 흘러 왔다.

《안된다. 안돼. ... 록산아, 이 땅에서 네 아버지를 잃은것만 해도 가슴 터지는데 너를 여기에 남겨 놓고 어떻게 간단 말이나? 록산아, 우리 다같이 조국으로 가자. 간절한 이 에미의 부탁이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성공한 다음에 다 말씀드리겠어요.》

《록산아!》

《어머니,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록산은 스무살때 가족들과 헤어져 일본 땅에 홀로 남았다.

록산의 희망은 영화배우가 되는것이였다. 어려서부터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안고 놀아도 영화회사근처에서 놀았고 이름있는 배우가 지나가면 따라가서 수첩에 수표를 받곤 했다. 그런 수첩만도 여러개나 되였다. 거리에서 영화촬영을 하는것을 보면 끼니도 잊고 따라다녔다. 한번은 사흘이나 집에 들어 오지 않고 영화촬영하는데를 따라 다닌통에 집에서 대소동이 일어난적도 있었다. 동무들은 그를 《영화미치광이》라고들 불렀다. 그 광적인 《영화열》이 영화회사 사람들의 눈에도 깊은 인상을 남겨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때 그는 영화회사에서 촬영장치들을 다루며 심부름하는 일자리를 얻을수 있었다. 회사의 심부름군중에도 최하급의 심부름군이였으나 그것은 영화배우가 되려는 그의 마음을 더욱 키질해 주었을뿐이였다.

유명한 섹스피어도 처음에는 극장의 문지기였으나 배우로 되었고 후에는 세계적인 작가로까지 되었다지 않는가. 록산이라고 왜 오늘은 심부름군이지만 앞으로는 유명한 배우가 될수 없으리란 말인가.

어느날 록산은 야외촬영장을 꾸리느라고 부지런히 장치물들을 나르고 있었다.

그러는 록산에게서 영화회사의 한사람이 눈길을 멈추었다. 그는 그 영화회사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난 다니가와연출가였다. 다니가와로 말하면 회사안에서는 어지간한 사람에게 눈길도 돌리지 않는 사람이였다. 배우들은 누구나 다 그의 눈에 들려고 애를 썼고 특히 녀배우들은 그의 앞을 지나갈 때는 온갖 교태를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 다니가와가 박록산에게서 시선을 멈춘것이였다.

록산은 하느님처럼 여기던 그의 눈길과 마주치자 그만 얼어버려 망두석처럼 서서 마주 보기만했다. 그가 왜 자기를 그렇게 보는지 록산은 물론 알지 못하였다.

후에 다니가와는 사람들에게 말했었다.

《술진 눈섭은 날아 가는 룡인듯 묘하게 생기고 눈꼬리가 약간 쳐들린듯한 리지적인 눈은 아주 매혹인데다가 준수하게 생긴 코, 굳세게 다물어진 입은 사내다운 기질이 그대로 엿보이는 모양이요. 게다가 쪽 빠진 키와 남성다운 체격까지 그쵸히 갖추었으니 보기 드문 미남자라고 할수밖에 없소. 이런 인물은 일본땅을 다 뒤져도 찾기 힘들거요.》

그는 그때 몇달후에 야심작으로 제작하게 될 큰 규모의 고전영화 주인공역을 물색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니 록산을 보는 순간 속으로 환성을 올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록산은 심부름군으로부터 배우로 될 행운을 얻게 되였다.

얼마후 다니가와는 록산을 단역에 출연시켰다.

영화배우의 희망을 품고 어렸을 때부터 영화의 장면들을 그대로 흉내내어 동무들을 감탄케 했던 록산은 그 단역을 훌륭히 형상해 냈다.

《괜찮다. 잘했다. 더 잘해 보라.》

연출가는 록산이 흠뻑 마음에 들어서 어깨를 두드리주며 칭찬했다.

다니가와는 그후부터 멀리 야외촬영장에까지 그를 데리고다니면서 연기기량훈련을 주었다.

《자감상태에로의 급속한 이전능력이 부족해. 아직 멀었어.》

다니가와와 의 요구성은 상당히 높았고 조금이라도 따라 서지 못하면 욕설과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록산은 그것을 모두 달게 받아 들였다. 쓴 뿌리에서 단 열매가 생긴다지 않았는가. 유명한 영화배우만 될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것도 참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록산의 기량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갔다.

얼마후에는 다니가와연출가의 주선밑에 영화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

록산의 마음은 고무풍선마냥 부풀어 올랐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 온 희망을 실현할수 있는 길이 지금에 와서야 띄우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러한 때 뜻밖에도 자동차운전사를 하던 아버지가 자동차충돌사고로 사망하였다. 록산의 집은 하루아침에 가정의 기둥을 잃어 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할것인가.

어머니는 드디어 귀국의 길을 택하였다. 남편을 빼앗아 간 이 땅에 아무런 미련도 없는 어머니였다. 남편도 생시에 귀국하는것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하였던적이 있었던것이다.

허나 그것이 록산에게는 청천벽력이였다.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될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내 희망은 물거품으로 되고말것이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룡산은 교포역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면서 숨은곳에서 나오지않았던것 이다.

...홀로 남은 박룡산은 다니가와와 먼 친척별이 된다는 한 녀인의 집에서 세방살이를 시작했다.

룡산 못지 않는 《영화광》인 그 녀인은 다니가와로부터 룡산이 앞으로 명작의 주인공으로 출연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지 말그대로 《특별봉사》를 해주었다.

룡산은 세방값이 제일 낮은 다락방을 요구하였으나 그 녀인은 해빛이 잘 드는 남향의 아늑한 방을 내주었고 부자집도런님 대하듯 깎듯이 대했다.

희망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듯 하였다. 룡산은 꿈에서도 명작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온 일본땅 어데 가나 찬탄의 대상으로 된 자신을 보았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드디어 오래동안 준비해오던 고전영화를 제작할때가 닥쳐왔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터졌다. 대본을 받아 밤새우며 완전히 외워 가지고 나온 날 아침 룡산을 맞이하는 다니가와와 눈길은 얼음장처럼 쌀쌀했다. 앞으라는 말도 없이 유심히 그를 보더니 다짜고짜로 이렇게 물었다.

《야마다상, 당신이 조선사람이라는데 사실이야요?》

이때까지 그를 《너》라고만 불렀고 반말을 하던 다니가와였다. 처음은 뜻밖의 경어에 어리둥절했고 다음은 물음의 내용에 가슴이 섬적했다.

그는 대답대신 되물었다.

《누가 그렇니까?》

다니가와와 주머니에서 착착 접은 종이장을 하나 꺼내 놓았다. 투서였다.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야마다 로꾸산(룡산의 일본식이름)은 센징이다. 센징을 내세우고 있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썼을지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었다. 주인공역을 따내 보려고 음으로 양으로 노리던 경쟁자들의 짓일것이다.

다니가와와 투서를 손으로 두드렸다.

《이게 정말이야요?》

룡산은 투서를 노려 보았다. 종이장의 글자들이 두눈을 아프게 찼었다.

룡산은 머리를 들었다.

《아니요! 나는 <센징>이 아니라 조선사람 박룡산이요!》

다니가와와 그의 태도에 저으기 놀랜듯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야마다상도 알겠지만 이번의 영화는 일본의 고전영화요. ...그런데 일본고전영화에... 그것 주인공역에 조선사람이 출연한다는것은...》

이렇게 영화배우가 되려고 하였던 룡산의 푸른 꿈은 물거품으로 되어 버렸다. 영화회사에서도 밀려 났다. 아쉽지도 않았다. 영화배우가 못될바에야 그곳에서 심부름군노릇이나 해서 무엇하랴.

그러나 영화회사에서 밀려 나오자마자 무서운 생활고가 닥쳐 왔다. 영화회사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세방너주인은 즉시 그를 남향의 아늑한 방에서 창고같은 다락방으로 옮기게 하였고 도련님대우가 아니라 제집 심부름군 다루듯이 하기 시작했다. 며칠후부터는 방세를 내라는 독촉이 불같이 하루종일 밖에서 지내다가 밤이 깊어서야 도적놈처럼 다락방으로 올라 가기도 하였다. 일자리를 얻으려고 발이 닳도록 다녔으나 그 차디찬 땅에서는 빈털터리 조선총각에게 그 누구도 결을 주지 않았다. 마침내는 세방에서도 쫓겨 나고 말았다. 얼마 안되는 집들은 밀린 방세로 내놓아야 했고 거리에 나선 룡산은 제 몸뚱아리 하나밖에는 없었다. 당장은 먹는 문제가 야단이었다. 룡산은 설움중에서도 배고픈 설움이 제일 건디기 어렵고 눈물겹다는 인생의 참뜻을 이때 비로써 깨달았다.

그는 길바닥인생이 되고말았다. 갈데도 없는 인생이었으나 동냥만은 할수 없었다.

어느 하루 그는 배고픔에 지쳐 거리모퉁이에 서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여 주고지나 가는것이였다.

놀래여 눈을 뜬 룡산은 그만 소스라쳤다. 고깔모자에 물방울무늬의 어리광대옷을 입고 광고판을 앞뒤에 뻗어 어리광대가 아닌가. 피상한 무늬로 얼굴을 장식한 거리의 최하층인생, 어리광대가 그에게 동냥을 준것이였다.

룡산은 분연히 뛰여 가 그를 붙잡았다.

《이건 뭐요? 난 거지가 아니요!》

룡산은 그의 앞에 돈을 뻗어 던졌다.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던 그는 잠시후에야 자기가 그를 모욕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 역시 인간이 아닌가. 룡산은 그에게로 달려 가 사죄하려고했다.

그러나 어리광대는 도리어 커다랗게 소리내여 웃으며 제 갈데로 가고 있었다. 그가 중얼대는 노래소리가 손에 든 방울소리에 섞여 들리고 있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읽어 주세요 광고판만을

그는 말하는듯 하였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광고판일뿐이라고.

(아, 내가 거리의 어리광대한테서까지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날 저녁 룡산은 자기가 음식점이 줄지어 선 골목을 벌써 몇번째 왔다갔다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

다. 배고픔이 그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발길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였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초밥집》, 《우동집》...

네온등의 간판글발이 어지럽게 번쩍번쩍거렸다.

이 세상의 로리란 로리가 이 골목에 다 모인듯하였다.

록산은 《초밥집》이라고 쓴 식당앞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초밥》이라고 씌여진 검은천의 문발사이로 식당안이 뻥히 들여다 보였기때문이었다. 주방칸에서 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 맨 남자료리사가 날랜 솜씨로 김초밥을 만들고 있었다. 기름이 반질반질 도는 새까만 김을 한장 참대밭우에 퍼 놓는다. 그우에 눈처럼 흰 밥을 주걱으로 한벌 재간스레 깔고는 밥우에 노란 닭알구이, 새파랗게 데쳐 낸 시금치, 오이, 뱀장어구이 등을 줄줄이 놓는다. 참대밭을 날래게 말아 놓는다 했더니 어느새 초밥 하나가 만들어졌다. 칼날이 반타원형으로 된 납작한 칼로 쭉덕쭉덕 썰더니 네모진 하얀 접시에 착착 담아 놓는다...

(아, 저것을 한접시만 먹으면. 아까 어리광대가 주던 돈을 받았더라면...)

입안이 군침으로 가득 차고 배에서는 십리밖에서 지 들릴듯 야단스런 쪼르륵 소리가 울렸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문발을 와락 잡아 찢히었다. 하얀접시의 김초밥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문발제끼는 소리에 머리를 든 로리사의 눈이 화등잔처럼 되었다.

딱 벌려지는 입을 보고 곧 튀어 나올 《도적이야!》 하는 고향말을 록산이 듣는듯한 순간 뒤에서 그의 어깨를 집게처럼 꼭 잡는 손이 있었다.

(잡혔구나!)하는 생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머리속으로는 빵 한조각때문에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평생을 추적 받는 인생이 되었던 장바르장의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 갔다.

그런데 그의 어깨를 잡은 손의 임자는 육설대신 뜻밖에도 《사람두 원. 무슨 문발을 그렇게 제끼나? 안에서 놀라는걸 보라구.》 하고 느긋한 음성으로 말하는것이였다.

《?!》

원살을 훨씬 넘어보이는 늙은이였다. 그는 록산을 안으로 밀고 들어 갔다.

《저기 자리가 있구만.》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신 로리사는 아직도 미심쩍은듯 록산을 아래위로 훑어 보다가 로인에게 물었다.

《같이 오신 분입니까?》

《그렇소. 젊은 사람이라 성미가 급해서...》

록산은 로인이 끄는대로 인형처럼 끌려 가 자리에 앉았고 한동안이 지나서야 겨우 물었다.

《로인님은 누구십니까?》

로인은 빙그레 웃었다.

《젊은이와 같은 조선사람이지.》

록산은 놀랐다.

《제가 조선사람이라는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지경이 되어서도 거리바닥에서 동냥을 하지 않는걸 보고 알았네.》

《거리에서요?》

록산은 거리에서 로인을 전혀 본 기억이 없었다.

《저를 어디서 보셨습니까?》

그때 접대원이 김밥 두접시를 가져다 놓았다.

《어서 들게. 이야기는 차차 하구...》

록산은 어느사이 김밥 한접시를 비웠는지 몰랐다. 로인이 그의 앞으로 밀어 놓은 김밥접시도 단숨에 비워 버렸다.

《이젠 젊은이가 어떻게 그 지경이 되었는지 좀 들어 보세.》

록산은 그에게 자기의 사연을 숨김없이 다 털어 놓았다. 굶어 쓰러지게 되고 교포의 《장바르장》이 될번한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는 고마움도 컸으나 그보다는 자기를 지켜 보는 로인의 잔주름에 묻힌 눈에서 따뜻한 정과 깊은 사려를 본 때문이였고 더우기는 같은 조선사람이라는데서였다.

록산이 이야기를 마치자 로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니 젊은인 당장 갈데도 없는 몸이구만.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인가?》

《...》

로인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잠자코 있더니 눈을 뜨지 않은채로 물었다.

《젊은인 내가 하자는 일을 하겠나?》

《무슨 일인데요?》

로인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다.

《그건 묻지 말게. 도적질도 강도질도 도박도 아닐세. 협잡도 구걸도 아니구... 어땠나?》

로인의 눈을 다시한번 마주 본 록산은 더는 주저 않고 대답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됐네. 오늘밤은 우리 집으로 가세.》

《예?》

《거리에서 썰수야 없지 않나? 여기가 우리 조국보다 남쪽이기는 하지만 집없는 사람에게는 더 춥다네. 그래서 이국살이겠지.》

이렇게 되여 록산은 로인의 집으로 따라 갔다.

자그마한 집에서는 록산이와 나이가 비슷한 딸이 그들을 맞아 주었다.

로인은 딸과 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 집의 벽에 렘브란트의 《돌아온 아들》이 압정으로 붙여져 있었다.

그날밤부터의 시간은 록산에게서 끝없는 놀라움과 기쁨, 부끄러움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다.

처음으로 그를 맞이해 준 놀라움은 로인의 딸로 인한것이였다.

《인사해라. 나와 같이 회사 판매부에서 일하는 젊은이다.》하는 로인의 소개에 머리부터 숙이며 《안녕하십니까? 처음...》하던 딸의 입에서 《어마나!》하는 놀란 소리가 튀어 나왔고 록산의 입에서는 《명미!》하는 부르짖음이 울려 나왔다.

그렇다. 그것은 명미였다. 고등학교시절에 한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명미였다.

명미...그는 록산의 고등학교시절에 유일하게 가까웠던 녀동무였다.

... 그와 알게 된것은 록산이 일본고등학교 2학년에 다닐 때였다.

하루는 한 녀학생이 전학하여 왔는데 빈자리가 록산의 곁에밖에 없어서 나란히 앉게 되었다.

녀학생은 그의 곁에 사뿐히 앉더니 《아깨미(명미)라고 합니다. 많이 도와 주세요.》하고 속삭이듯 말했다. 일본학교여서 원래부터 위분위기에 잘 휩쓸리지 않던 록산인지라 그를 돌아 보지도 않고 고개만 한번 끄덕거리는것으로 대답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영어시간이었다.

영어교원이 급작스레 실력검토시험을 치겠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얼굴은 우거시장이 되었고 교실 여기저기에서 한숨소리까지 새어나왔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학급에서 상적이 제일 우수했던 록산이는 어렵지 않게 시험지가 딱 차도록 충분히 썼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옆에 앉은 명미의 답안을 피땀 결눈질해 보니 답을 다 썼는데 한 단어만 몰라서 안타깝게 입술을 잘근 잘근 깨물고 있었다. 록산은 슬며시 동정이 갔다. 그래서 자기 시험지뒤등에 그 단어의 자모를 써 보았다. 순간 명미의 눈이 반짝 빛나더니 시험지에 제격 단어를 써 넣었다. 그날 시험에서는 35명 학생중에 록산이와 명미만이 완전무결한 점수를 받았다.

수업이 끝나후 록산이 동쪽우로 가방을 돌려 메고 덜렁덜렁 걸어 가는데 《저-》하면서 누군가가 뒤에서 찾으며 따라 왔다. 명미였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다시는 그런 <신세>를 지지 않도록 공부를 잘하겠어요.》

록산은 무뚝뚝하게 《고맙긴.》 하고는 그냥 가던 길을 걸어 갔다. 그가 그러건 말건 명미는 그와 나란히 걸으며 말을 계속했다.

《록산씨는 조선사람이지요?》

록산은 걸음을 멈추고 명미쪽으로 얼굴을 꺾 돌려다. 시시각각으로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숨기고 싶어지는 일본학교에서 공부하는 록산에게는 이 물음이 여간 신경을 건드리는것이 아니었다.

록산은 명미를 쏘아보며 《그러면 어쨌다는거요?!》하고 내뱉듯 말했다.

그러나 명미는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말하는것이었다.

《나도 조선사람이니까요.》

《뭐라구?!》

《만약 록산씨가 조선사람이 아니었다면 난 오늘 시험지를 그냥 내버렸을거예요.》

록산은 그제야 처녀의 얼굴을 다시 바라 보았다. 해맑은 얼굴에 웃을 때면 장난기가 가득 어리어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정기있는 두눈, 코마루는 곧게 서고 입은 웃입술이 약간 도드라진듯 하여 남다른 고집도 있어보였다. 조선처녀라는것을 알고 다시 보니 펍 호감이 갔다.

《우리 힘을 합쳐 일본학생들을 이기자요.》

천진스럽고 명랑하게 말하는 처녀의 행동에는 왜서인지 눈곱이 저절로 더워 올랐다.

이렇게 그들의 우정은 시작되었었다.

명미는 아버지가 어느 회사의 판매부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졸업식이 있는 날, 그들은 함께 그 동쪽길을 걸었다.

《이 길을 걷는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만요.》

록산은 가슴이 알뜰근해움을 느꼈다.

언제나 이 길을 걸을 때면 종달새처럼 끝없이 조잘거리며 말하던 명미였으나 이날만은 그 한마디만 하고는 조용히 걷기만 하였다.

이윽고 동쪽이 끝나고 그들은 갈림길에 이르렀다. 길목에 서있는 두그루 백양나무 설레임소리도 찾아들고 우짚던 새들도 어디론가 날아 가 버렸는지 사위는 고요했다. 마치 그들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려한듯...

명미는 아쉬운지 한숨을 호- 쉬더니 말했다.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구만요.》

《참 그렇군.》

그들의 눈길은 서로 마주쳤다.

열정으로 빛나는 눈동자들에 많은것이 비껴있었지만 그들은 왜서인지 말할듯말듯 하면서도 선풍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서로 마주볼뿐...

명미가 먼저 물었다.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글쎄... 당장은 모르겠소. 그러나 앞으로 꼭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겠소.》

《유명한 영화배우?! ...》

《성공하면 내 꼭 명미를 찾아 가겠소.》

《약속하지요?》

《그럼!》

그들은 이렇게 헤어졌었다.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면 찾아 가마고 처녀앞에 큰 소리쳤던 록산은 이렇게 집도 없는 실업자가 되어 나타난 수치스러움을 이길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리 없는 명미는 반가움에 들떠 연신 말을 꺼내 놓았다.

《아버지, 록산씨는 졸업할 때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같이 일하나요?》

《...》

록산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 가고 싶은 심정인데 로인이 느슨히 웃으면서 말하였다.

《너도 알지 않느냐? 배우가 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게 아니냐? 그래서 록산군은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배우수업을 하려는게다.》

《아이, 그래요?》

명미는 순진하게도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었다. 록산은 수치감과 절망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으나 겨우 안도의 숨을 쉴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겨우 희비극의 첫막이었을뿐이었다...

이튿날 로인이 그를 데리고 간곳은 어느 회사의 판매부가 아니라 집에서 전차를 두번이나 갈아 타야 하는 먼곳에 있는 어느 백화점의 광고부였다.

그들이 들어간 방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이상하게도 벽에 두개의 고깔모자와 두벌의 물방울무늬 어리광대옷이 걸려있을뿐이었다.

록산은 로인이 왜 여기로 데리고 들어 왔을가 하고 의아하여 방안을 둘러 보는데 로인은 아무말없이 입고 온 옷을 벗어 놓더니 그 물방울무늬의 옷을 입는것이였다. 그러더니 《자네도 입으라구.》 하였다.

《예?》

《마침 어리광대를 하던 사람이 얼마전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버렸네. 그래 자리가 하나 생긴걸세.》

《예?!》

그제야 록산은 어제 거리에서 돈을 쥐여 주던 어리광대가 바로 이 로인, 명미의 아버지였음을 깨달았다. 절망과 수치감으로 몸이 떨렸다. 장바르장의 신세를 면했다 했더니 거리의 어리광대의 처지가 앞에 있는것이였다.

《싫습니다! 난... 난... 이런 일을 못합니다! 사ram으로 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고 부르짖던 그는 말을 툭 끊었다.

자기에게 그렇듯 고맙게 하여 준 명미의 아버지를 더는 모욕할수 없었다.

그런데 로인은 표정에서 아무 변화도 없었다. 허허 하고 웃더니 그의 손을 잡아 자기옆에 앉혔다.

《이 사람, 내 이야길 들어 보게. 젊을이나 나나 다른 길로는 갈데가 없네.》

《?》

《젊은이나 나나 같은 운명일세. 나로 말하면 기업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일세. 몇년전에는 총련조직과도 결별했네. 조선사람이라는데 알려지고야 기업도 제대로 할수가 있나?... 그런데 그간 시작했던 일은 망하고 지금은 이렇게 어리광대가 되고 말았네. ...

자네 우리 집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았겠지? 그 그림의 방탕한 아들에게는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얼싸 안아 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는 아버지가 있었지. 그러나 자네나 나에겐 그런 아버지가 없네. 조국은 이 방탕한 아들들을 절대로 받

아 주지 않을걸세. 왜놈들의 악착스런 발톱에서 어떻게 해방을 찾았구 미국놈들과 어떤 피어린 전쟁을 해서 지켜낸 조국인가. 그런 조국이기에 우리를 용서할수 없을거네. 용서를 빌수도 없구... 그래서 나는 이 옷을 입었네.》

로인의 잔주름 덮인 불을 타고 눈물방울이 무겁게 흘러 내렸다.

《사람이 살아 가느라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게 되지. 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조국을 잊어서는 안되는거네. 설사 천만재부나 부귀영화가 유혹하구 눈부신 성공과 명예가 앞에 있다 해도 말이네. 그런것에 끌려 순간이나마 조국을 잊는다면 그건 곧 자기를 낳아준 조국에 대한 배반으로 되고 그런 인생은 진흙탕속에 처박히고 마는거네.》

후회는 항상 때늦게 오는 법이라구 내가 이걸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지, 너무 늦었어. 인생을 다시 살수는 없는거구.

그래서 난 이 옷을 입고 어리광대광고쟁이가 되었네. 사람들앞에, 조국앞에 차마 머리들고 나설수가 없어 이렇게 어리광대옷을 입고 얼굴에는 색칠을 하고...

어쩌겠나. 자업자득이라구 제가 지은 죄인데.》

모든것을 포기한듯한 로인의 목소리는 서글프게 울렸다.

《...》

묵묵히 방바닥만 내려다 보고 서있던 록산은 입었던 옷을 활활 벗어 내던졌다.

《나도 이 옷을 입겠습니다!》

이렇게 록산은 희비극의 두번째 막에 들어 섰으니 최하층인생의 막바지직업인 거리의 어리광대가 된것이였다.

괴상한 얼굴에 물방울무늬옷을 입고 고깔모자를 쓰고 잔등과 가슴에는 커다란 상품광고판을 안고 지고 방울을 흔들며 온 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하루, 또 하루...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으나 닻을 필요도 감출 필요도 없었다. 울긋불긋하게 칠한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지 땀이 흐르는지 누구도 알아 볼수 없었고 알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는 이미 인간이 아니였다. 상품광고판일뿐이였다.

거리의 어느 모퉁이에서 어머니가 불쑥 나타나 《록산아, 이너석아, 이런 어리광대가 되려고 어머니품을 버리고 일본땅에 남았느냐?》 라고 준절하게 꾸짖을듯만 싶었다.

뽀족한 고깔모자에 방울 올리며

물방울무늬의 어리광대옷

우습팡스럽게 거리에 나서면

가로수의 버들가지만이

살짝 불을 어루만져 주네

거리에서 동창생이라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다. 괴상한 칠을 한 얼굴을 알아 불리 없다



는것을 알면서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치욕과 수치로 몸을 떨며 피하느라고 서둘렀다. 그러나 로인은 태연했다. 모든것을 초월해버린 듯한 태도였고 성내는척도 놀라는척도 없었다.

《이 사람아, 저 거리를 걸으며 우리를 비웃고 있는자들도 우리와 다를바가 없네. 저기에 어느 누가 가면을 쓰지 않은 인간이 있는것 같나? 나오지 않는 웃음을 짓고 가장 행복한척하고... 이 얼굴을 부끄러워말라구. 우리는 어리광대가 되었을 때는 사람이 아니라네, 상품광고판일뿐이지. 걸어 다니는 상품광고판이야. 광고판은 성낼것도 슬퍼할것도 없네. 무감정한, 무표정한 배우인 셈이지.》

로인이 잠깐 놀래여 주위에 누가 없나 하여 둘러본것은 록산이가 《따님은 로인님이 이런 일을 하는걸 알고있습니까?》 하고 물었을때 단 한번이었다.

《무슨 소릴 하나? 그 애가 이걸 알게 되면 무슨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네. 그 애가 자살할수도 있네. 나와 약속하세. 그 애한테는 절대 비밀을 지키기루 말일세.》

록산은 그것을 열백번 거듭 맹세하여야 하였다. 그것은 록산의 소원이기도 하였다.

바로 그래서 로인은 명미의 발길이 미치지 않게 집에서 아주 먼곳에 일터를 정한것이였다.

저녁이면 그들은 어리광대의 옷을 벗고 먼길을 걸태연자약함이라는 거짓 《웃》을 입고 명미의 앞에 나타났고 회사일이 어떻느니 하는 거짓대사를 주고받았다.

어느날 로인은 이렇게 물었다.

《내가 자넨 더 고통스러운 일에 끌어 들인게 아닌가?》

록산은 쓸쓸히 웃었다.

《괜찮습니다. 배우수업을 하는셈 치면 되지요.》

《허허.》

《셰크피어는 <인간은 배우이고 세상은 무대일뿐이다.>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

로인은 잠시동안 말없이 걷더니 뜻밖의 말을 하였다.

《난 사람들을 배우로, 세상을 무대로 만들어버린자들을 증오하네!》

모든 일에 태연하던 그답지 않게 모가 선 말이어서 록산은 걸음을 멈추기까지 하였다.

《예?!》

《증오하네. 백번, 천백번 증오하네.》

《...》

아버지로서 집에 돌아 가 딸에게 할 말을 잃어버린 로인, 《거짓말이 제일 나쁜것》이라며 키워온 딸에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불행한 아버지의 분노의 폭발이였다.

그 어떤 배우에게도 연극은 무대에서만 즐거운것이다. 집에 돌아 가서까지 배우로 되어야 한다면,

집까지 무대로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고통일수밖에 없을것이다.

록산은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 로인도 말없이 걸었다.

그런데 로인이 불쑥 입을 열었다.

《한가지 딱한 일이 생겼네.》

《뭔데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나이드 딸애가 있는 집일세. 자네같은 총각이 함께 있으니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달라. 소문도 좋지 않구.》

록산은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 쓴것 같았다. 그는 말까지 더듬거리며 황급히 말했다.

《저-오, 오늘 밤중으로 제방을 구, 구하겠습니다. 이제 당장...》

로인은 허하고 웃더니 허둥대는 그의 팔을 잡았다.

《덤비지 말게. 내 그래서 한가지 방도를 찾았는데 자네가 다른데로 떠나게 나와 딸애한테 서운하거든. 자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그건 그런데... 어떤 방도인가요?》

《자네 아예 우리 집 사람이 되는게 어떨겠나?》

《예? 그건 저 그러니...》

《이런 덜통한 총각봤나? 우리 명미한테 장가들지 않겠나 말일세.》

록산은 우뚝 멈춰 섰다. 이미 가슴속에서 떼어낼수 없게 깊이 자리잡은 명미였다.

《그게 정, 정말입니까?》

《그럼 중단말이지?!》

로인은 껄껄 웃었고 록산도 소리 내어 따라 웃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귀환길에서 소리내어 즐겁게 웃었던 단 한번이었을것이다. 그날 저녁 록산은 다시한번 비밀을 지킬데 대하여 맹세하여야 하였다.

그때로부터 로인은 얼마를 더 살지 못했다. 성례를 치른지 한달후 심장병으로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운명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될줄을 미리 예감하고 딸과 록산의 성례를 그렇게 서둘렀던것인지도 모른다.

자그마한 집에는 그들 부부만이 남았다.

그때로부터 록산의 생활은 더 고통스러운것으로 되어 버렸다.

아침에는 점잔을 빼며 집을 나서고 낮에는 거리의 어리광대가 되어 모욕과 멸시, 수치속을 헤매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거짓말을 꾸며대야 하는 생활, 허나 안해에게 거짓말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장인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다. 안해가 말을 삼가하기도 하였고 장인이 막아 주거나 맛장구를 쳐주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해의 호기심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회사의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꼬치꼬치 캐여 물었고 만족할만한 대답을 듣기전에는 물러 서려고 하지 않았다. 때로는 기분나

쁜 일이 있어 말하기 싫은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픈척하고 입을 열지 않기도 했으나 그것도 한 두번이었다.

한번은 그가 저녁상에 마주 앉았을 때 말뚱말뚱 쳐다 보던 안해가 《당신 귀밑에 그게 뭐예요?》하고 물었다.

《귀밑에?》

거울을 본 록산은 가슴이 철렁했다. 귀밑에는 채지워지지 않은 어리광대의 화장안료가 묻어 있었던 것이다.

《어데서 이런 안료가 묻었어요?》

당황했던 록산은 겨우 대답할 말을 찾아냈다.

《아, 그저로구만. 내 요즘 배우수업삼아 회사에서 판매증진을 위해 하는 소인극출연연습을 하고 있소. 그래서 오늘은 분장을 좀 했더니...》

《그게 정말이에요?》

《허 참!》

《그런데 왜 나한테 한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록산은 짐짓 대범한척하였다.

《그게 무슨 자랑할 일이라구. 이제 본격적인 배우나 되었을 때 다 말해 주려고 했지.》

《아이 그래요? 일도 하고 배우수업도 하고... 그럼 당신의 희망이 성취될 날도 멀지 않았군요.》

순진한 안해는 기뻐서 어쩔바를 몰랐다.

그러나 록산은 안해가 잠들었을 때 누운채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음날부터는 안해에게 소인극의 즐거리를 꾸며서 들려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참으로 간고한 《배우수업》이었다.

이렇게 희비극의 세번째 막이 펼쳐졌다...

《참, 난 그때 당신의 일을 뭐가 뭔지 통 알수 없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무섭기도 하고... 그 등산에 미친 사람처럼 다닐 때엔 더욱 그랬어요.》 하는 안해의 말에 록산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래방에서는 아들딸의 활기찬 말소리가 텔레비존에서 나오는 음악소리와 어울려 울리고 있었으나 그의 생각은 과거로만 흘러 갔다.

과거에로의 여행...등산...

등산은 록산이 아침출근길에 한 동포를 만나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때부터 생긴 습관이였다.

거리에서 록산을 우연히 만난 동포는 그의 손을 와락 잡으며 《여보게, 내 이번에 조국에 갔다 왔네. 그런데 평양에서 자네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겠나?》하고 말하는 것이 었다.

《어머니를요?!》

록산은 그의 손을 그러 쥐었다. 교포역에서 헤어진 때로부터 한시도 잊은적 없었고 피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마음속으로 불러 보던 어머니였다.

《자네의 소식을 몰라서 속을 태우고 있더구만. 당장 편지를 하라구.》

그는 어머니의 주소를 적어 주었다.

어머니의 주소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 안은 록산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것만 같았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미동 25반 6현관 4층 8호실》

(아,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와 동생...)

그는 어머니의 체취가 그대로 풍겨 오는듯한 주소를 읽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삼키었다.

당장 편지를 쓰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쓰랴. 영화배우는커녕 거리의 어리광대, 상품광고판이 되었다고 쓸수는 없었다. 이것을 알면 어머니는 기절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여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할수는 없었다.

그날밤 집으로 돌아 온 그는 창문으로 오래도록 평양이 있을 서쪽하늘을 바라 보았다. 멀리 서쪽에 있는 조국, 어머니가 이 아들을 그리며 계시는 조국...

어린시절 어머니가 불러 주던 노래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 왔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그루 토끼 한마리  
뫼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옛시절 이 동요를 쓴 작가도 아마 이 이국땅에 흘러와 눈물속에 세월을 보내며 멀리 서쪽에 있는 조국을 그리워 했던것이 아닐가. 서쪽나라, 서쪽하늘...

그러나 그가 창문으로 보고 있는것은 평양의 하늘이 아니였다. 그가 있는 교포에서는 평양의 하늘이 보일리 없었다.

그는 지도에서 평양을 찾아 보았다. 어머니가 계시는 서쪽하늘, 평양하늘이 가까이 바라 보이는곳은 어디일가. 그는 운땀 그러한 고장을 찾아 보았다. 평양은 위도 39도선상에 놓여 있었다. 일본에서 그 위도와 비슷한곳을 찾던 록산의 눈은 마침 아끼다현의 혼조라는 지점에 머물렀다.

《바로 여기다!》

조선동해를 옆에 낀 그 자그마한 도시는 거의 평양과 일직선상이 었다.

며칠후 휴식일이 되자 그는 아끼다현의 혼조로 떠났다.

《혼조라니요? 생전 듣지도 못한 그런 고장에 친척도 친지도 없는데 왜 가요?》 하는 안해의 의문때문에 그는 회사일로 간다고만 하였다.

그날 렬차를 타고 아끼다현의 혼조에 이른 그는 산발을 타고 올랐다. 드디어 제일 높은 산봉우리에 올라 선 그는 바다건너에 펼쳐진 서쪽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 바다너머의 하늘밑에는 어머니가 계시는 평양이 있을것이다. 산봉우리에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고 바다와 서쪽하늘을 마음껏 바라볼수 있었다.

《어머니, 이 불효막심한 아들 록산의 인사를 받아 주십시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은것으로 하여 거리의 어리광대로 되어버린 이 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놈이 어떻게 이제 다시 어머니앞에 나타나겠습니까? 오직 마음속으로 어머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용서를 빌뿐입니다.》,

다음번 휴식일에도 그는 혼조로 갔다. 다음번에도 또 다음번에도... 가보지 않고는 적막과 고독을 이길수 없었다. 점점 더 의심을 품고 지켜 보는 안해에게는 혼조의 산발이 몇번 등산해보니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아니? 당신 언제 등산을 해 봤다고 그곳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거예요? 당신이야 등산과 인연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늦바람이 더 무섭다지 않소? 여보, 등산도 배우수업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지요.》

이렇게 태연스레 거짓말을 할수 있는 자기가 록산은 혐오스러웠다.

거리의 어리광대의 생활이 그를 모든것에 태연할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것이 아닌가. 고깔모자를 쓰고 거리를 흔들흔들 돌아다닐 때에도 수치와 모욕감, 절망이 이제는 그렇게 예리하게 느껴 지지 않았다. 인간은 이렇게 한번 빠져 들어간 구렁텅이에서 허우적이다가 한생을 마치는것이나 아닐가...

어느 겨울날 또다시 혼조로 떠나려는 록산을 안해는 필사적으로 막아 나섰다.

《그곳에는 눈이 많이 왔다는데 등산을 하러 가신다는게 뭐예요? 눈사태가 일어나면 어쩔려고 그래요? 등산이 무슨 탐험인줄 아세요? 못가요!》

《탐험,-록산은 껄 웃었다. ?그럼 등산이 아니라 탐험이라고 해주지.》

안해의 눈에서는 언제나 어려 있던 록의 그 장난기가 사라졌다.

《난 당신의 그 웃음이 싫어요. 실성한 사람같은 그 허구쁜 웃음. 제가 어린앤줄 아세요. 산에 혼자 올라 가는 등산이 어데 있어요? 곰이나 범을 만나면 어쩔려고... 안돼요. <등산가협회>에 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닌다면 몰라도.》

록산은 안해의 말에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의 등산목적은 그들과 달라.》

《등산에도 뭐 목적이 다르나요. 그야 다 자연을 즐기고 신선한 공기를 그리고 몸단련도 하구.》

록산은 더는 어쩔수 없어 모든것을 안해에게 털어 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고 안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여보, 그럼 우리도 차라리 귀국하지 않겠어요? 이까짓 땅, 그까짓 회사일에 무슨 미련이 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 하면서도 귀국할 생각은 안해요? 나도 어머니가 보고파요. 난 세상에 나면서 어머니를 잃었기에 아버지하고만 살았어요. 어머니라는 말을 한번만이라도 불러 보고 싶어요.》

록산은 머리를 흔들었다.

《난 못가요. 당신이나 나나... 당신 아버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소? 우리는 조국에 죄를 진 몸이요.》

《...》

안해는 눈물을 닦고 나서 등산복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말머리를 돌렸다.

《그런데 요즘 회사일은 어떻게 되어 가요? 잘된다 잘된다 하면서도 수입은 늘지 않구... 절 속이는게 아니예요?》

록산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무슨 눈치를 챈것이나 아닐가.

《속이다니?그건 무슨 소리요?》

《아니예요. 그저 속상해서 해본 소리지요 뭐.》

록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허나 그무렵 그들의 생활은 바야흐로 희비극의 최후의 막에로 돌입해 가고 있었다.

그날 명미는 가슴이 터질듯한 두가지 기쁨을 안고 집을 나섰다. 평양에 계신다는 시어머니에게 남편 모르게 편지를 띄웠었는데 그 회답을 그날에 받았고 또한 몸이 여러가지로 불편하여 찾아 갔던 병원에서 하나의 기쁜 소식을 받아 안았던것이다. 그 기쁨을 남편과 당장 나누지 않고서는 가슴이 너무도 울렁거리려 견딜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 남편이 일한다던 곳에 이르자 아연해지고 말았다. 그곳에는 그런 회사가 없었던것이다. 그런 회사란 애당초 있어본적조차 없다고 하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거리를 삭갈린것이나 아닐가? 그는 주위의 이 거리, 저 거리를 다 돌아 다녔으나 남편의 회사를 찾아 내지 못하였다. 그런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문득 공포로 하여 멍해져 버렸다.

(유령회사? 그럼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아버지는? 아니 아니, 그럴수 없어. 그러나... 그러나...)

그는 무서운 혼란에 빠졌다. 어찌할바를 모르고 거리에 서있던 그는 한 동창생을 만났다. 그에게서 남편이 아침마다 백화점이 있는 역전거리쪽으로 갔다가 저녁이면 그쪽에서 오는것을 여러번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는 더 짙은 의혹에 빠졌다.

역전거리는 그의 집에서 무척 먼곳이었다. 아버지도 남편도 그 거리의 이름을 입에 올렸던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는 정신없이 전차에 올라 그 거리로 향하였다. 백화점과 가게방들이 문어의 흡반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역전거리...

뻘죽한 고깔모자에 방울 올리며

물방울무늬의 어리광대옷

우습강스럽게 거리에 나서면

어느 다방에선가 애절한 너가수의 노래가 레코드판에서 울려 나오는데 그 노래에 맞추어 걷는듯 잔등과 가슴을 광고판속에 묻은 어리광대가 흔들흔들

돌아 다니고 있었다. 우습강스러운 옷차림과 얼굴… 명미는 저도 모르게 그를 한동안 지켜 보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제얼굴을 버리고 저런 인간 아닌 얼굴을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사람들의 비웃음 어린 시선을 받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얼굴을 저렇게 피상하게 만든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도 자기를 몰라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저 사람의 마음은 항상 쥐구멍을 찾고 있으리라.

한무리의 아이들이 어리광대를 둘러 싸고 빙빙 주위를 돌아 가며 놀려대고 있었다.

춤을 춰라 어리광대  
노래해라 어리광대  
어리광대 어리광대

네발 짚고 춤을 춰라  
두발 짚고 뛰여봐라  
어리광대 어리광대

어리광대는 그들의 놀림쯤은 습관이 되어 버린 듯 주의도 돌리지 않고 흔들흔들 걸기만 한다. 모욕과 조소에도 습관되는것이 인생일가?

명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리광대의 행동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 났다.

흔들거리며 걸어 오던 그가 갑자기 불에라도 덴 듯 뿔 돌아서서 달려 가기 시작한것이였다.

《와!-》

거리의 아이들이란 강아지무리와도 같아 도망치는 자를 무작정 쫓아 가는 추적본능이라는것이 있다. 아이들은 고향을 지르며 어리광대의 뒤를 쫓아 갔다. 쫓아 가며 돌맹이며 썩은 도마도, 빈쥬스통들을 집어 던졌다. 도망치듯 달려가던 어리광대가 짙은 뒤통을 돌아 본다. 그 순간 모난 쇠불이가 날아 가 그의 이마를 때렸다.

《앗!》

명미는 이마를 찌른 그에게로 달려 갔다. 아이들은 산산이 도망쳐 버렸다. 이마를 찌른 어리광대의 손가락사이로는 피가 흘러 내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피가 나와요!》

그의 이마는 7자로 터졌다.

그러나 그는 아픔이라는것조차 못느끼는 인간인 듯 앞에 와 선 명미를 본척도 않고 휘적휘적 제갈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리광대는 듣지도 못하는듯 돌아 보지도 않았고 방울을 펄렁펄렁 흔들며 대더니 느릿느릿 노래를 부르며 사라져 버렸다.

꽃나이 어리광대 광고판 어리광대  
만단사연 서리서리 엉켜 있지만  
여러분들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읽어 주세요 광고판만을

그의 뒤모습을 눈물 어린 눈으로 지켜 보던 명미는 석양이 닥쳐 옴을 느끼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섰다.

어두워서야 집에 돌아 온 명미는 자기가 왜 집을 나섰던지도 망각한채 무서운 의혹속에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일도 할수 없었고 까닭없이 공포와 불안만이 스며 들었다.

남편은 늦게야 돌아 왔다. 게다가 술에 억병으로 취해 있었다. 이제껏 술이라곤 입에 대지 않던 남편이였다. 그러나 명미를 기절할 지경으로 놀라게 한것은 남편이 술에 취했다는것보다 이마에 동여 저 있는 봉대였다.

《여보, 이게 웬일이예요?》

그는 이리비칠 저리비질하는 남편을 부축하여 방에 데려다 눕혔다.

《여보, 어디서 이렇게 다쳤어요?》

《으응, 다, 다친게 아니야… 그저 동여 댔지.》

《예?》

《오, 오늘은… 이마를 다친… 역을 했던 말이요… 응, 그렇지… 배우수업… 그래서 동여 맨채로…왔지… 멋있지? 응?》 하고 손을 허우적대던 남편은 손이 이마에 닿자 신음소리를 냈다.

《거짓말 마세요!》

명미는 이마의 봉대를 와락 풀었다. 이마가 드러난 순간 명미는 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7자로 터진 상처, 상처주위에는 채 지우지 못한 안료자욱이 남아 있었다.

《아!-》

명미는 앞으로 폭 꼬꾸라지고 말았다. 세상이 다 빙글빙글 돌아 가는것 같았다. 아, 그 어리광대가 바로 남편이였다. 그는 명미를 본 순간 놀래여 도망치려고 했던것이였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도 역시 어리광대였던 말인가. 눈앞이 캄캄해진 그는 남편을 마구 잡아 흔들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당신이 그 어리광대란 말이예요? 그러니 당신이 말하던 그 회사 판매부고 배우수업이고 하던것이 바로 그 어리광대였던 말이예요? 예? 말하랴요! 어서 말하랴요.》

《…》

(아, 이젠 모두 끝장이로구나!)

안해가 모든것을 알게 되었음을 깨닫자 목산의 취기는 싹 가셔 저 버렸다. 그러자 절망의 끝없는 심연이 평-하고 그의 눈앞에 입을 벌렸다.

안해는 목놓아 울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껏 날 속였군요. 회사고 배우수업이고 다… 다… 거짓말이었군요! 아, 난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목산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절망의 심연밖에는 앞에 없었다. 이

제는 더 그것을 피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자 그사이 체질처럼 되어 버린 자포자기가 살아났다.

그는 안해가 흔드는대로 머리를 건둥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배우수업이지… 배우수업이었던 말이야… 마지막배우수업 응? 그렇지 않소?》

《그러니 당신은 날 첫날부터 숙여 왔군요. 아버지도 날 숙이구! 이 세상이 몽땅 날 숙였어요… 숙였어요… 난 죽고 말겠어요!》

록산은 그 말에 크게 놀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죽음이라는것이 그 무슨 놀라운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누가 말했던가. 사람이 태어나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사람이 죽는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그건 그렇고 죽는것과 사는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유명한 배우로 되겠다고 어머니까지 버리고 섬나라땅에 남았던 박록산, 그런 인간이 참으로 살아 있기는 하였던가. 그는 극도의 자포자기상태에서 중얼거렸다.

《속인제 아니지. 배우수업이었지. 모든것이…이 세상이라는게 워낙 되어 먹길 그렇게 되어 먹었으니까. 세상은 무대고 인간은 배우일뿐이란 말이야. 그러니 사람 사는거야 다 배우수업이 아니고 뭐야? 젠장! 저건 또 뭐고? 저것도 무대인가?》

열려있는 방문앞의 마루는 정말 무대처럼 보인다. 금시 연극을 시작할듯 막을 활짝 열어 놓은 무대이다. 그런데 그 《무대》중간으로 웬 줄이 쭉 건너갔다. 저놈을 치워야 연극을 시작할게 아닌가.

그는 허청허청 마루로 나갔다. 손에 쥐여 보니 안해가 매놓은 빨래줄이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할 바를 깨달았다. 빨래줄을 잡아 채어 끊은 다음 문설주에 한끝을 매고 다른 끝에는 울가미를 지었다.

《배우수업이라? 그래 마지막 배우수업이지.》

그는 울가미를 쳐들었다. 마지막 배우수업.

전에 읽은 어느 책에 《마지막수업》이라는 글이 있었지. 《마지막수업》에 나오는 로교원은 프로시아에 병합되어 민족어를 잃게 된 알사스의 소년들에게 《프랑스 만세!》라는 글발을 남기고 《…돌아들…가거라.》 하는것으로 자기의 마지막수업을 하였다. 그러면 이 박록산은 마지막배우수업을 무슨 말로 맺어야 하는가. 문득 장인의 말이 귀가에 울린다. 《이 세상을 무대로, 사람들을 배우로 만들어 버린자들을 나는 증오하네. 백번, 천백번 저주하네!》

나도 증오한다. 이 세상을 무대로, 사람들을 배우로 만들어 버린자들을 백번, 천백번 저주한다!

그는 울가미를 목으로 가져갔다. 순간 안해의 몸이 와락 그에게 매달렸다.

《여보, 왜 이래요? 어쩔려구 이래요? 날 혼자 두고 어디로 가려는거예요? 난… 난… 이제는 혼자 몸이 아니예요!》

《?!》

록산은 멍하니 안해를 내려다 보았다. 암담한 절망이 그를 휩쌌다. 이제는 죽을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저 태동을 시작한 새 생명을 거리의 어리광대의 자식으로 되게 하여야 하는가?…

《여보! 우리 귀국하자요. 예? 조국으로 가자요!》

《귀국?》

《오늘 평양에 계시는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걸 보세요.》

록산은 눈물에 젖어 흐릿해진 눈으로 어머니의 편지를 읽어 내려 갔다.

《아들아, 돌아 오너라. 교포에서, 니이가다에서 애절한 목소리로 아들을 찾던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이라는 크나큰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 오너라.》

이 어머니는 며칠전에 영광스럽게도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다. 귀국동포들을 만나주신 자리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들이 거처른 이국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겠는가고 하시며 꼭 찾아서 데려 오자고, 조국으로 데려와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배우로 키워 주자고 말씀하시었다.

아들아,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모든 아들딸들을 가림없이 품어 주는 어머니의 품이다. 돌아오너라. 이 어머니품은 좁아도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넓고도 또 넓으니 어서 돌아 오너라.》

록산은 편지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

창문아래의 차도로는 여전히 전조등불빛이 질주하고 가로등불빛들이 흘러 내린다. 마치 굽이치는 강물처럼 보이는 넓은 길, 그것은 그대로 기쁨의 강, 감격의 강이 아닌가!

《여보!》

록산은 창문앞에서 돌아 섰다.

《이 그림속의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돌아 온 방탕한 아들을 두팔 벌려 안아 주었고 제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었다고 하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박록산을 조국으로 데려다 영화배우로 키워 주시었고 혁명적대작에서의 주역배우로 내세워 주시었고 오늘은 배우로서의 최대의 영예를 안겨주시었소. 이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해줄수 있었겠소?》

안해는 대답대신 눈가의 눈물방울을 훔치었다.

《아버지! 어머니! 야-정말!》

딸애가 기다리다 못해 안타까운 소리를 터치며 방문을 열었다.

《아직 과거에로의 려행이 안끝났어요?》

록산은 창가에서 물러나 딸애에게로 향했다.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요?》

팔에는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고 쳐다 보는데 텔  
레비존에서 나오는 우렁찬 합창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제일이야 제일이야

아- 제일이야

뒤이어 합창단의 우렁찬 웨침이 록산과 그의 안  
해가 아들딸들에게 해 주고 싶었던 말을 대신하듯  
왕-하고 터져 올랐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 가사

# 함께 있네

(총련) 정유실

오늘은 별을 보며 시를 지으면  
래일은 하늘 보며 노래 부르리  
아 시속에 노래속에 함께 있네  
영원히 번영하는 나의 조국

믿음의 정을 동지되어 나누면  
맹세의 눈물 한뜻되어 흘리네

아 믿음속에 맹세속에 함께 있네  
날 안아 키워 주는 어머니조국

래일의 꿈을 안고 같이 가는 곳  
칠십만 소원 안고 날아 가리라  
아 꿈속에 환희속에 함께 있네  
행복의 꽃이 피는 통일조국

# 재부

조청운

## 1

충주의 달천강지류를 타고 가느라면 기암절벽이 병풍을 둘러놓은듯 우뚝 솟아있는 탄금대라는 곳이 있다.

탄금대위로 30리가량 추산마루턱을 따라 오르면 나지막한 분지가 나오는데 자그마한 동네가 오뎝이 자리잡고 있다. 수집호의 농가가 처마를 맞대고 촘촘히 들어 앉았는데 앞에는 거울처럼 맑은 시내가 도란도란 흐르고 뒤에는 무성한 송림이 우거져 있다. 웃음소리, 노래소리 랑랑하던 이곳에 지금은 불빛 한점 불수 없고 괴괴한 정적만이 무겁게 감돌고 있었다. 이따금 울리는 풀벌레울음소리만이 한때는 여기도 인적이 드문했다는것을 회억하게 할뿐이다.

새벽별들이 하나둘 기운을 잃고 스러져가던 무렵이었다.

음침하게 감도는 정적을 깨뜨리기 저어하듯 가벼운 말발굽소리가 간간이 들려 왔다.

마을한복판에 실오리를 늘어놓은듯한 행길로 집을 그들먹이 실은 말한필을 앞세운 세사람의 그림자가 불쑥 솟아났다.

맨 앞장에는 체소한 몸집의 사나이가 무거운 짐에 겨워 허리를 구부정하고 걸어가고있었고 뒤에서는 어린 아들의 손목을 잡은 녀인이 바빠 종종걸음을 다그쳤다.

푸르스름한 달빛에 사나이의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동그스름한 귀인성있는 얼굴을 구레나룻이 보기 좋게 감싸고있는 30대의 젊은 사람이다. 눈꼬리가 상큼하게 일어난 부리부리한 두눈은 밤새 잠을 못이루었는지 시뻘겋게 충혈되어있는데 인중에서 짧게 끊긴듯한 코와 목직한 턱에 빗장을 가로지른듯한 입술은 휘여잡기 어려운 완강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는 충주사고 참봉 한촌이었다.

한촌은 서른다섯해 인생행로를 특별한 곡절없이 조용히 걸어온 사람이다.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의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다.

하루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안해가 따뜻이 맞아주었고 어린자식의 귀여운 재롱을 보면서 온갖 시름과 걱정을 털어놓곤했다.

이렇듯 웃음속에 생활이 흘러 가던 그의 아늑한 보금자리에는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다. 생활의 애뜻한 봄꿈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서슬푸른 댕기만이 뼈속깊이 스며들었다.

임진년전쟁이 일어났던것이다.

20여만의 왜놈들이 바다를 건너와 무시무시한 전쟁의 불을 질렀다.

무서운 전쟁의 불구름은 한촌의 머리우에까지 드리웠다.

어제 충주싸움에서 실패이 거느린 팔천의 우리 군사들이 모두 탄금대앞 달천강에서 전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촌은 딥고선 발밑이 송두리채 꺼져버린것만 같았다.

밤을 꼬박 뜯눈으로 밝힌 한촌은 가장집물을 대충 꾸며가지고 피난가기로 결심하였다.

벌써 동네사람들은 모두가 남부녀대하여 피난집을 싸들고 북쪽으로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정든 고향집을 떠나는 한촌의 가슴은 몹시 아팠으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을 헤치고 동구밖 느티나무밑에 다달은 한촌은 더 가지 못하고 멈추어섰다. 충주사고에 보관되어있는 력대왕대실록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것이다.

한촌이 어찌할바를 몰라 망설이는데 아들에게 잠투정을 하며 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몇걸음 걸어나가던 한촌은 흠칫 놀라 멈추어섰다.

아서라, 나라에서 맡겨준 중책을 저버리고 목전에 박두한 제 한몸의 위기만을 생각하겠는가.

과도처럼 밀려드는 후회와 죄의식에 얼굴이 붉어진 한촌은 급히 말등에서 짐을 내리었다.

《짐은 왜 내리시는가요?》

한촌의 처가 깜짝 놀라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내 아무래도 사고가 걱정되니 먼저들 가요. 사고에 보관된 실록을 옮긴후 인차 뒤따라가겠소.》

《그 많은 책들을 혼자서 어떻게?... 저라도 따라가서 돕겠어요.》

걱정스럽게 따라나서는 처를 밀막으며 한촌은 말을 끌고 돌아섰다.

한촌이 멀어질 때까지 그의 안해와 아들은 못박힌듯 서서 바래왔다.

《아버지, 빨리 갔다오세요.》

한촌은 멀리서 웨치는 아들의 청아한 목소리에 손을 흔들어보이고는 다시 걸었다.

기운을 잃은 별무리가 푸르스름한 새벽안개속에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다.

×

재빛 바다물은 잠에 취한듯 무겁게 흔들거리고있었다. 이따금 가벼운 바람이 물으로 바다물결을 물

아가려다가 기운이 진했는지 맥빠진 숨을 몰아쉴뿐이었다.

잔잔한 파도위에 무겁게 몸을 실은 거대한 다락선이 물결우를 가벼이 미끄러져나가고있었다. 수많은 채색등롱과 연등을 층층마다 달고있는 거선이건만 조용히 물결우를 달리였다.

선창우에는 한명의 사나이가 배전에 부딪치는 잔물결을 내려다보고있었다.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에 뻘뻘히 짙은 대머리가 드러났다.

무겁게 몸을 일으킨 그 사나이는 잠시 어둠속을 주시하고는 선창우를 거닐기 시작했다.

갹갹한 그의 얼굴에서는 음흉한 기운이 떠날줄 모르고 감돌고있어 보는 사람들의 등골에 서늘함을 줄것만 같았다. 살찐 몸뚱아리를 감싼 시꺼먼 장삼도 그의 몸에서 수시로 풍기는 전란의 풍파에 씻기운 군인특유의 살기를 감추지 못하였다. 그가 바로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심복부하인 안국사 중혜경이었다.

근 100여년간 온 일본땅을 휩쓴 전란도 평정되어 부귀와 공명의 절정에 올랐던 혜경이 어찌하여 생사를 가늠할길없는 전쟁판에 또다시 뛰어들게 되었는가.

그가 조선출병의 명령을 히데요시로부터 직접 받은것은 달빛이 무르녹은듯한 새벽안개가 누리를 감도는 이른 아침때였다.

달콤한 잠자리에서 세상모르게 꿀아떨어졌던 혜경은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한채 히데요시의 관저로 불리워졌다.

죽음에 취해 터져나오는 하품을 간신히 참아내며 히데요시앞에 나타난 혜경은 일시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희미한 초불에 비친 히데요시의 눈동자가 사납게 회번덕거리고있었던것이다. 수십여년간 전쟁의 피바다를 헤쳐오면서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긴 혜경이었지만 불안과 공포에 오금이 저려들었다.

《명년봄 조선출병에는 너도 참가하여 한몫을 맡아야겠다.》

히데요시의 씹어서 내뱉는듯한 목소리에 혜경은 소스라쳐 놀랐다.

히데요시는 반대파세력을 짓부시고 일본전국을 타고났지만 그에게 있어서 근심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히데요시를 따라다니며 전장에서 피를 흘린 부하놈들에게 마땅히 많은 토지와 재물을 안겨주어야했지만 이 비좁은 일본땅에서는 승냥이같은 그놈들의 욕심을 채워주는것이 막연하였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부하놈들의 불만소리는 더욱 높아 졌으며 반대파세력은 기회를 엿보며 대가리를 쳐들었다.

이때 혜경이 조선출병으로 히데요시를 적극 부추겼다. 그러나 혜경은 자기가 직접 위험한 전쟁판에 뛰어들고싶은 생각이 꼬를만큼도 없었다. 안국사를 비롯한 수많은 절간과 토지를 이미 세손아귀에 틀

어쨌든 지금에 와서 죽음이 언제 덮쳐들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사지판에 뛰어들단 말인가. 조선출병에 기어코 자기를 밀어넣으려는 히데요시의 흉칙한 심사를 알아차린 혜경은 내심으로 까무라치게 놀랐으나 겉으로는 태연한척하였다.

《내가 이번에 너를 조선에 보내려는것은 여러 제장들을 잘 감시하여 소소한 기미라도 나에게 보고해달라는것이다. 도무지 그놈들은 믿음이 가질 않거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히데요시는 하던 말을 끊고 혜경을 지그시 노려보았다.

혜경은 등골로 땀이 줄지어 흐르는것을 감촉하며 히데요시의 기색을 살폈으나 병색이 짙은 그의 종제비상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찾아낼수 없었다.

《소신이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조선에 가서 왕대실록을 직접 네손으로 가져오라.》

혜경은 그제야 히데요시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의 국보적인 책을 보물중의 보물로 여기고 있었다. 더우기 조선보다 문화가 훨씬 뒤떨어진 일본의 역대 관백들과 령주들은 진귀한 조선의 책을 손에 넣으려고 무진애를 썼으나 그 누구도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였다. 조선에 아무리 기름진 땅이 있다하여도 그것은 부하놈들의 아가리에 처넣을 고기덩이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니 히데요시가 탐내는것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조선의 보물이었다. 실로 조선력대왕들의 실록은 국보중의 국보가 아닌가.

침침한 방안에 유독 밝은 빛을 뿜어주던 초불이 마지막숨을 몰아쉬듯 탁탁 불꽃을 사방에 날리다가 곧 사그라져버렸다...

이윽고 달빛은 점차 스러져가고 동녘하늘이 환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으시시한 새벽기운에 몸을 웅크리며 왜병들이 선창우로 꾸역꾸역 기어나왔다.

아득한 저 멀리 지평선너머에서 조선이라는 땅덩어리가 안개를 헤치며 서서히 자태를 드러냈다.

혜경은 막대한 보물이 가득찬 미지의 땅을 바라보며 희심에 찬 미소를 입가에 띄웠다. 지금 저기서는 전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고 있을것이다. 그러니 자기는 그 불길에서 다 익은 밤송이를 주으면 될것이었다.

《조선은 잠자는 범이다. 자는 범의 머리를 베어오는것도 무서운가?!》

어디선가 히데요시의 호언장담이 귀가에 들려오는듯싶었다.

×

한층은 구름우를 뚫고 떠다니는 환각에 빠져있었다. 새털처럼 가볍게 미풍에 실려서 어디로인가 끝없이 날고있었다.

갑자기 태양이 머리위에 나타나 그를 사정없이 내려지시켰다. 타는듯한 갈증과 숨막히는 열풍에



몸부림치던 한춘은 천길나락속으로 떨어졌다. 섬찍한 공포가 삼시에 그의 온몸을 감싸안았다. 아득한 심연속에서 불길의 거세차게 타번진다. 삼시에 온 천지가 불길속에 휩싸여버렸다. 입천정이 말라들고 온몸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불길에 휩싸인 몸뚱이는 수천, 수만개의 바늘로 쿡쿡 찌르는듯이 아리었다.

한춘은 악소리를 내 지르며 환각에서 깨어났다.

뽕양게 앞을 가리운 안개같은 장막이 서서히 걷히었다.

들큰한 풀냄새와 씩씩한 초약냄새가 코를 찌르는 속에 한춘은 가까스로 두눈을 떴다.

으시시한 새벽기운에 몸을 떨며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뼈마디를 꺾는듯한 아픔이 그를 내려놓았다. 누군가 한춘의 곁으로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한쪽무릎을 꿇고앉아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오십이 넘은 중늙은이의 파리한 얼굴이 희미한 광술빛에 창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측은한 눈길로 한춘을 굽어보았다.

《가만 누워있게. 자네를 달천강에서 건져낸지 열흘이 넘었다네. 이제 좀 정신이 드는가?》

한춘은 입가에 맥없는 미소를 띄우고 그에게 눈인사를 보냈다.

늙은이는 그의 몸에 낡은 흠이불을 덮어주었다.

한춘은 바짝 말라든 입술을 혀로 추기고나서 물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곰티재일세. 그런데 자네는 어찌다가 그리되었나?》

그제야 한춘은 자기가 겪은 괴로움을 생생히 재생해낼수 있었다.

사고에 불을 지르고 너털웃음을 터뜨리던 왜놈의 상통, 거세차게 타오르는 불길, 바람에 날리는 재... 한춘은 두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던동이 틀 무렵에 사고에 도착한 한춘은 사고에 보관되어있는 실록을 꺼내어 마당에 무쳐놓았다. 왜적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므로 한시바빠 서둘러야만 하였다. 그러나 수십바리에 달하는 그많은 서적을 나른다는것은 한춘에게 있어서 너무도 아픈 일이었다.

《조선봉건왕조실록》은 리씨왕조의 조정에서 있는 일과 나라에서 일어난 사변, 사건들을 매일 기록한 역사기록으로서 조선봉건국가는 처음부터 《조선봉건왕조실록》의 편찬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1413년에 《태조실록》이 편찬완성된후부터 《조선봉건왕조실록》은 각 왕대별로 편찬되었다.

조정에는 전문사관이 있어 사관은 자료를 기록하고 수집정리하여 초고가 떨어지는 족족 춘추관에 원고를 입고시켰다가 임금이 죽으면 즉시 《실록청》이라는 임시기관이 발족하여 실록편찬에 착수하였다.

실록이 일단 완성되면 모든 초고들을 없애버렸으며 실록을 사고에 넣고 봉인한후에는 3년에 한번씩 종이에 종이 쓸지 않았는가를 검열하며 특별한 리유가 없이는 그 누구의 열람도 금지하였다. 지어는 임금도 그 규칙은 절대로 어길수 없었다.

실록은 모두 네곳에 분장보관되었는데 내고로 불리우는 서울 춘추관사고와 외고로 불리우는 충주, 성주, 전주사고에 보관시켰다.

한낮이 되어 피약별이 따갑게 내리쪘었다.

광야를 감도는 바람이 누런 황토먼지를 뽕양게 말아올려 사고로 몰아왔다.

봄철을 한껏 즐기며 머리를 쳐들었던 새싹들이 애처롭게 말라버렸다.

한춘은 줄지어 흐르는 땀을 팔소매로 연신 닦으며 실록을 늙은 암말의 잔등우에 올려놓았다.

주변에는 유지로 꼼꼼히 싸고 노끈으로 묶어놓은 실록이 차곡차곡 놓여있었다.

명종이전의 리씨조선 200년력사를 서술기록한 방대한 량의 실록을 유지에 정히 싸고 노끈으로 묶다보니 벌써 한낮이 되었던것이다.

이때 아득한 저멀리 광야에서 먼지구름이 자욱히 서리었다. 시꺼먼 복장차림의 왜놈들이 말을 타고 촌살같이 달려오고있었다.

한춘은 가까이에서 말발굽소리가 울려서야 정신을 차렸다. 흉악한 왜놈들의 상통이 코앞까지 다가온것이였다. 다리땀이 일시에 빠진 한춘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말았다. 끝내 저 야수와 같은 왜놈들에게 이 귀중한 책들이 더럽혀진단말인가. 한춘은 너무도 무기력한 자신을 원망하여 주먹으로 땅을 쳤다.

말에서 뛰어내린 왜놈들이 칼을 뽑아들고 그에게 우르르 달려들어 무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실록무지를 발로 걷어찼다. 피상망측한 옷차림을 한 왜장놈이 손짓하자 몇놈이 텅 빈 사고안으로 뛰어 들었다.

이놈들은 부근마을에 로략질나온 놈들이였다.

말잔등마다에 갖가지 잡동사니들을 그들먹하게 실은 꼴이 비적떼 같았다.

사고안에서 뒤집을 하던 왜놈들이 빈손으로 기여나왔다. 으리으리하게 높이 솟은 사고의 합각지붕을 먼발치에서 바라보고는 그 무슨 보물고인줄 알고 줄달음쳐왔던 왜장놈은 화가 동했는지 손가락으로 실록무지를 가리키며 줄개놈에게 껌 소리를 질렀다.

《저놈들이 혹시?...》

한춘은 가슴을 조이였다.

한춘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황급히 어디로인가 달려갔던 줄개놈들이 가져온 나무뭉치에 불을 단 왜장놈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사고에 불을 질렀다.

《이 무도한 왜놈들아-》

한춘이 노호성을 터뜨리며 왜놈들을 뿌리치고 달려갔지만 바짝 마를대로 마른 사고는 어느새 삼단 같은 불길에 휩싸였다. 한가닥 미친바람이 썰 불어와 감돌고 지나가자 더욱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에 사고는 금시에 재더미가 되었다.

한춘은 너무도 억이 막혀 땅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참혹하게 변한 사고를 바라보았다.

매개한 연기가 코를 찌르는속에서 망연자실해있던 한춘은 서서히 몸을 돌렸다.

왜장놈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실록무지에 천천히 불몽치를 가져다댔다.

이때 별안간 한춘히 왜장놈에게 와락 달려들었다. 창졸간에 당하는 변이라 왜장놈은 미처 칼도 꺼내보지 못하고 땅에 나뒹굴었다.

다시 왜장놈에게 달려 들던 한춘은 무지막지한 줄개놈이 내리 치는 칼등에 뒤통수를 얻어맞고 매캐한 재투성이 흙속에 머리를 짓조았다...

그가 정신을 차린것은 혼들거리는 말잔등우에서였다. 온몸을 바짝 죄이는 포승줄의 매듭에 의해 저려드는 아픔을 참으며 간신히 눈을 들었다.

쌩싸우듯 웅성거리는 왜말을 듣고서야 자기가 왜놈들에게 끌려간다는것을 느꼈다.

남쪽에서는 따뜻한 살랑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는 봄철의 마지막을 장식하듯 햇살같은 흰구름이 몽게몽게 피어올랐다. 한창 자라는 새싹의 싱그러운 냄새가 여기저기에서 봄바람에 실려왔다. 기름진 흙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수천년동안 선조들이 가꾸어오고 그들의 피와 땀에 절대로 절은 저 넓은 땅야에 지금이면 한창 농민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건만 적막한 그곳에서는 오직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귀가에 어렴풋이 들려올뿐이다.

어느덧 달천강이 눈앞에 나타나 기슭을 훑으며 흘러간다. 충주 탄금대가 물안개속에서 서서히 룡파를 드러냈다.

한춘이 어렸을 때 때없이 올라가 광막한 산밭과 전야를 바라보며 어린 꿈을 키워보던곳이 아니던가. 허나 지금은 무려 팔천에 달하는 의로운 군사들의 비통한 넋이 사무쳐 물결도 흐느끼며 흐르는곳이 되었다.

한춘은 아래입술을 감쳐물었다.

내 나라의 국보를 지켜내지 못하고 왜놈들의 더러운 손에 죽을수는 없다. 죽더라도 저 탄금대아래서 순국한 충의렬사들의 뒤를 따라가리라.

그는 왜놈들이 손쓸새없이 말잔등에서 굴러내려 강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달천강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유히 흘러갔다...

피로운 상념에서 깨어난 한춘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로인님, 생면부지인 저를 살려준 그 은혜를 뼈에 새기고 잊지 않겠소이다. 허지만 저는 서울로 한시바삐 올라가야 합니다.》

늙은이는 황급히 두손을 저었다.

《임자, 정신있는가. 서울은 벌써 왜놈들이 타고 앉았네.》

나리님은 멀리 북쪽으로 피난가시고 수백년 종묘 사직이 더러운 왜놈들의 발밑에 무참히 짓밟혔네구려.》

한춘은 온몸의 기운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는듯한 허탈감을 느꼈다. 어딘가 깊이와 끝을 알수 없는 미궁으로 빨려들어가는것만 같았다.

가까스로 문지방을 넘어선 한춘은 차거운 밤공기에 몸을 떨며 힘겹게 정처없이 걸어나갔다.

무수한 등불을 켜놓은듯 반짝거리는 별무리를 올려다보는 한춘의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끝내 저 무도한 왜놈들에게 이렇게 망하고마는가. 강포한 오랑캐놈들이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 살륙하고 조상의 뼈가 묻힌 이 땅을 짓밟고서 우리를 제놈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미쳐날뛰는데 내구차스럽게 자기일신을 위해 살지 않으리라.

한춘의 가슴은 울분과 허탈감, 자기자신에 대한 무기력, 왜놈들에 대한 증오로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있었다. 애지중지 품어온 마음의 기둥이 뿌리채 뽑혀진것만 같았다. 봄날의 따뜻한 햇빛으로 아롱거리는것만 같은 생활의 꿈이 깨어져나가고 충충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고 부서져버린듯했다. 마치도 아득한 절벽우에서 끝없는 심연의 골짜기를 내려다보는것 같은 망설임과 조바심이 그에게 한없이 괴로움을 주었다.

어린 가슴을 갈가리 찢어놓는듯한 아픔속에 몸부림치던 한춘은 자리를 차고 일어 섰다.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이른 지금에 와서 이렇듯 한탄만 하고있겠는가. 한춘은 실록을 지켜내는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중임을 다하는 길이며 국치를 씻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내 비록 원쑤의 칼에 죽더라도 기어이 실록을 구원하리라.

자박자박 강변의 자갈을 밟으며 덧옷을 손에 든 늙은이가 다가왔다.

한춘은 등뒤에서 울리는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딘가 어둠속의 한점을 바라보고있었다.

늙은이가 보기에는 한자세로 그린듯이 서있는 그의 모습은 인간의 생기가 전혀 없는 사람같이 보였다. 엄하게 가로 질러간 이마의 주름살은 더 깊이 패인것만 같았다. 아래입술을 지그시 파고드는 이 발은 그 어떤 공포감을 주었다. 동그스름한 귀인성 있는 얼굴이 하루밤사이에 아주 줄어들었다. 그러나 깊숙이 패여들어간 눈자위에서는 그어떤 비장한 결심을 품은 눈동자가 번뜩이었다.

## 2

새벽이 되어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설레이며 동쪽으로부터 시꺼먼 비구름을 덮치듯이 몰고왔다.

수백년 사직이 깃든 대도시 서울은 무거운 어둠속에 깊숙이 잠겨버렸다. 이맘때면 서울장안 모든

곳에서 아낙네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연기를 굴뚝으로 내밀어보낼 때건만 죽음속에 잠긴 악몽의 그곳처럼 불빛한점 볼수없다.

야경군의 딱따기소리도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들리는것은 쌍스럽게 지껄이는 왜놈들의 악청과 이따금 골목안을 누비는 기마병들의 말발굽소리뿐이었다. 대낮에는 미치광이처럼 발광하며 그 어디라 할것없이 불뭉치를 들고 돌아치던 왜병들도 전란의 도가니속에서 심신이 몹시도 지친듯 잠자리로 기여들어가버렸는지 조용하다.

비구름은 점점 서울장안을 더욱 무겁게 내려누르더니 마침내 줄소나기를 쏟아붓기 시작했다. 골목안을 돌아치던 몇놈의 왜병마저 꺾꺾 재채기를 하며 제소굴로 황급히 들어가버렸다. 으시시한 봄철의 첫 소나기가 무섭게 노호하며 온 서울장안을 사납게 두드렸다.

삼라만상도 다 잠들어버렸건만 아직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안에 갇힌 맹수처럼 군막안을 맴도는 장대한 체구의 사나이가 있었다. 박박 짝은 머리로 보아 중이 분명한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구의 체격에 음침한 좁쌀눈은 등잔불의 그림자속에서 살기를 품고있었다.

안국사 중 혜경이었다.

전쟁을 일으킨지 한달도 못되어 이 나라의 수도 서울을 타고갔었으니 마땅히 승전의 기쁨에 도취되어야 하겠으나 그의 눈에서는 오직 차거운 살기만이 풍겨나올뿐이다.

혜경은 방금 충주에서 올라오는 길이다. 피비린내나는 전장을 헤쳐오면서 혜경이 일심전력하여 노린것은 조선왕대의 실록이었다. 그러나 황홀한 꿈속에 사로잡힌 혜경의 눈앞에는 제족속들이 불태워버린 재더미만 나타났다. 급히 말을 달려 서울에 올라와보니 창덕궁, 창경궁 등 대궐이 모조리 불타버렸고 홍문관, 춘추관의 서적들이 깡그리 재더미가 되어 그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니 결국 부하놈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한발 늦게 바다를 건너온것이 이처럼 막중한 후회를 초래한것이였다.

화가 울컥 치밀어오른 혜경은 칼을 뽑아들고 눈을 희번덕거리였다. 불행하게도 아직도 창대로 타다남은 재더미를 뒤적거리던 줄개놈의 대가리가 재등결속에 나뉘고있었다.

《무식한 밥버리지들같으니...》

혜경이 아무리 입에 거품을 물고 미쳐날뛰어도 행차뒤 나발이였다. 혜경은 골치가 아픈지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조선왕의 실록을 가져오지 못하면 네 목을 내놓아야 한다.》

히데요시의 음험한 목소리가 구석에서 울려나오는듯싶었다.

혜경의 입에서는 꿈꿨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피롭게 모대기던 혜경은 선불맞은 범처럼 후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음흉하게 번쩍이던 좁쌀눈을 감췄던 거적같은 눈시울이 번쩍 트이였다. 전주 사고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쳤던것이다.

내심의 소용돌이를 누르며 장막안을 오락가락하던 혜경의 눈에는 줄개놈들이 략탈하여 바친 금부처가 그를 거룩하게 내려다보는 모양이 띄웠다. 신비한 웃음을 입가에 띄우고있는 금부처는 마치 살아움직이는것만 같았다.

혜경은 갈구리같은 손가락으로 넘주를 주무르며 중얼거렸다.

《언제면 조선의 보물이 모두 내손아귀에 들어올것인고...》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직도 사위는 새벽의 정적을 털어버리지 못했는데 도성의 남대문이 웅글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시꺼먼 사람들의 무리가 돌구멍안에서 우르르 밀려나왔다. 전라도로 쳐들어가는 왜놈들이였다. 이슬맺힌 길가의 풀대들이 왜놈들의 발밑에 무참히 짓밟혔다.

×

경기전(태조 이성계의 화상을 안치한곳) 참봉 오희길은 왜놈들이 전주로 쳐들어온다는 흉흉한 소문을 들은후로는 며칠째 잠을 못이루고있었다.

전주는 리씨왕조의 발상지(조선봉건국가를 성립한 태조 이성계는 전주 리가이다.)이므로 경기전을 두어 리성계와 각 왕들의 화상을 안치하였고 그옆에 사고를 지어 실록을 비롯한 귀중한 책들을 보관하였다.

만약 악착한 왜놈들이 전주로 달려든다면 이 모든것을 어떻게 보존한단말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쉬며 옆으로 돌아누웠다.

답답한 심사를 누를길 없어 뒤척이는데 창밖에서 다급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오참봉, 어서 문을 좀 여시우.》

누가 이 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는가.

희길은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문을 열었다.

누구인가를 등에 업은 장신의 사나이가 불쑥 들어왔다. 불을 들어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을 비쳐보던 오희길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태인사람 손홍록이었던것이다.

원래 손홍록과 오희길 그리고 몇해전에 당파싸움에 몰려 전주로 략향하여온 전 전적(성균관의 정3품벼슬이름) 리정란은 당시의 문인으로 이름높았던 리일제의 문하에서 동문수학했었다. 리일제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손홍록을 따를 사람은 없었다. 리정란과 오희길은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홍록은 벼슬에 전혀 마음을 두지않았다. 홍록의 뛰어난 재능을 잘 알고있는 리일제는 루차

과거에 응시할것을 권고하였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리일제의 집에 젊은 재사로 이름 높았던 류성룡이 찾아왔다. 일제와 성룡이 사랑방에서 한담을 나누고있을 때 홍록이 불쑥 나타났다.

《집에서 어머니가 앉으시면서 저를 부르신다는 기별이 왔기에 그만 환향할가 하옵니다.

그간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많이 받은 저로서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앓사오나 일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리일제는 서운한 기색으로 물끄러미 그를 내려다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어머니의 병구완을 마치고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어떠냐? 너의 그 재주로써는 능히 세상을 건질만한데 내 말대로 하거라.》

홍록은 발끝만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다.

리일제는 긴 한숨을 내시며 성룡을 돌아보았다.

《나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유독 저에만 이 학문의 리치를 깨달았구려. 그래서 루차 벼슬길에 나서기를 권고했지만 어디 내 말을 들어주어지지. 서애가 한번 타일러보우.》

성룡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홍록에게 이렇게 일렀다.

《지금 세상이 어수선했어서 소인들이 날뛰는 때인것만큼 조정안에는 대바른 기둥이 절실히 필요하네. 그러니 자네도 스승의 말씀대로 어서 그리하게.》

성룡의 말이 떨어지자 이때까지 잠잠하던 홍록이 머리를 들었다.

《대감께서는 황새와 조개이야기를 들으셨소이까?》

《응?! 황새와 조개이야기라니?》

느닷없이 꺼내는 홍록의 말에 류성룡은 멀떠름해졌다.

《외람된 말이오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어느날 조개가 모래기슭에 나와 별을 쪼이고있었다. 이때 하늘을 날던 황새가 그 광경을 보고는 이게 웬떡이나 하고 내려와서는 조가비를 벌리고 있는 조개의 속살을 바라보고 진부리를 쑥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놀란 조개는 황급히 조가비를 닫으며 황새의 부리를 짹 물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황새는 조개에게 제발 잘못했노라고 빌었지만 조개는 조개대로 고집을 부리며 끝내 놓아주지 않았지요. 결국 나중에는 바다가에 나온 어부에게 둘이 다 잡혀갔다 하옵니다.》

리일제와 류성룡은 얼굴이 붉어짐을 느끼며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홍록이 어부지리의 고사를 꺼낸 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는 조정안의 대소

관리들의 무지막지한 당파싸움을 빗대고 말한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동인파의 우두머리격인 류성룡의 귀빰을 홍록이 호되게 때린셈이다.

성룡은 멀어져가는 홍록의 뒤모습을 점도록 바라보며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정말 욕심이 나는군. 벼슬에 오르면 조정의 대바른 기둥이 될터인데...》

손홍록은 권력다툼과 파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서로 물고뜯으며 추악한 개싸움질을 벌리는 량반사대부들의 더러운 꼴을 보기 싫어서 고향에서 산수를 벗하여 조용히 살아왔다. 그후 십여년의 세월이 흘러 오희길의 벼슬이 낮아져 경기전 참봉으로 내려왔고 또 리정란이 당파싸움에 몰려 락향하여왔다. 홍록이 예견하였던것처럼 당파싸움에 나라의 운명이 기울대로 기울어졌고 왜놈들이 그틈을 노려 쳐들어왔던것이다. 결국 어리석은 황새와 조개처럼 무지한 싸움을 벌리던속에 리를 본것은 왜놈들이 아닌가.

왜란이 일어난후로 희길의 홍록을 본것은 오늘이 처음이였다.

《홍록형이 여기에는 어떻게 오셨소?》

그제야 홍록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이야기를 꺼냈다.

《왜놈들이 전라도로 쳐들어온다는데 어디 집에서 발편잠을 잘수 있던가. 내 그래서 정란형과 자네를 만나 앞일을 의논하려고 여기 전주로 올라왔네. 그런데 듣자니 감사가 먼저 성문을 열고 뺨소니켰다면서?》

희길은 한숨을 내 쉬며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그런가 보우. 오늘날에도 성안의 관속들이 성문이 미여질듯 도망치는가 뵙디다. 그런 놈들은 모조리 몽둥이로 때려죽여야 시원하겠소. 그런데 저 사람은 뉘시오?》

희길은 손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가리켰다.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네. 자네 집으로 오던 길에 사고를 지나왔는데 그앞에 저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업고 왔지. 자네가 의술을 좀 아니 구완해주게나.》

희길은 그 사람에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산산이 흩어진 머리칼을 조심히 쓸어올렸다. 유심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희길은 흠칫 놀라 일어섰다.

《아니 이럴수가 있나? 이 사람은 충주사고 참봉한춘이라는 사람이웨다. 그런데 어떻게 예까지?》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본데 어서 살려내야지.》

홍록과 희길은 정성껏 한춘을 간호하였다.

날이 밝을무렵에야 그들은 의식이 돌아선 한촌에게서 무지한 왜놈들의 손에 충주사고가 붙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과 성주의 사고도 왜놈들의 무도한 손에 재더미가 되였는가 봅니다. 제가 나라의 사고도 지켜내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어찌 씻겠소이까. 여기 전주에 왜놈들이 들어오면 반드시 분탕질을 할것이니 전주를 지켜내야 합니다.》

한촌의 행색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웠다. 머리칼은 산산이 헤쳐져 어깨를 덮었고 온몸은 험한 가시발을 헤쳐오느라 온통 피투성이다. 의복마저도 갈기갈기 찢어져 걸인같았다.

홍록은 그의 장한 의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런 충의지사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어찌 왜놈들에게 짓밟힐수 있으랴. 이런 장한 의기를 가진 백성들의 힘을 믿고 국력을 강화했다라면 왜놈들이 이 땅을 감히 탐내겠는가.

《고맙소. 여기서 왜놈들도 물리치고 나라의 국보도 지켜냅시다. 그대와 같은 충의지사들이 펼쳐나선다면 그까지 왜놈들이 무엇이겠소?》

《예로부터 뜻이 맞으면 하늘도 이긴다고 하지않았소.》

홍록은 한촌의 부르르고 갈라진 험한 손을 뜨겁게 잡았다. 회길도 다가와 그들과 손을 굳세게 맞잡았다. 세사람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피가 하나로 굽이쳐 격량을 일으키고있었다.

×

어둠은 소리없이 밀려와 삼라만상을 조용히 감싸안았다. 어딘가 아득히 먼곳에서 이따금씩 시퍼런 번개불이 하늘을 가르며 번쩍이었다. 그때마다 어둠과 정적속에 잠겨있는 산천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보이군하였다.

사위는 물뿌린듯 조용했다. 주위의 넓은 대지를 압도하듯 우뚝 솟아있는 전주성만이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성곽 여기저기에서 무수한 화불들이 타오르고있었다.

전 전적 리정란은 장대우에서 성안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아래쪽에서는 장정들이 옷동을 벗어던지고 신바람이 나서 메를 휘둘러대고있었다. 새로 임명된 오장들은 대오를 정돈시키고 군사훈련을 주느라 바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성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작거리고있었다. 모두가 싸움준비에 바빴던것이다. 사람들이 돌과 깨진 기와장을 가지러 밑으로 우르르 밀려내려가자 성우는 조용해졌다.

정란은 추연한 기색으로 장대우를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과연 일개 유생에 불과한 자기가 사람들을 승전으로 이끌수 있겠는가. 성안에는 군사는 몇

안되고 대개가 병장기 한번 잡아보지 못한 농군들이었다. 그나마 태반은 늙은이들과 부녀자, 어린이들뿐이었다.

정란은 긴 한숨을 내쉬며 깊은 어둠속에 잠긴 전야를 바라보았다.

날이 밝으면 수만의 왜적이 이리떼마냥 달려들것이다. 이 한몸을 바쳐서라도 전주성만 지켜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싸우다 죽어도 전주성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그의 뇌리에는 손홍록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귀가에서 떠날줄 몰랐다.

《정란형, 왜놈들은 무고한 백성들을 마구 살륙하다 못해 나라의 귀중한 실록까지 불태웠답니다. 우린 모두가 죽어도 그 무도한 왜놈들에게 전주성을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되오!》

다년간 성군관에서 학문을 닦은 정란은 실록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것은 후세에 길이 전할 국보중의 국보였던것이다.

웅령과 리치를 지켜나섰던 우리 군사들이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고 왜놈들이 파죽지세로 전주로 밀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전라감사이하 성안의 관속들은 성문을 열고 도망쳤다.

이때 리정란이 의병투쟁의 기치를 들고나섰다.

리정란이 의병투쟁의 기치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전주의 민심이 삽시에 그에게로 확 쏠렸다. 하늘만 쳐다보며 장탄식을 하던 사람들과 피를 뿌리며 통곡하던 사람들, 두주먹을 비비며 욕버르던 사람들 할것없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정란은 군기고를 헤쳐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대오를 짰다.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돌과 기와장을 성우에로 날랐다. 모두가 전주성을 끝까지 사수할 결의로 충만되었던것이다.

조용하던 성루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옷동을 벗어던진 장정들이 무거운 무쇠가마를 목고하고 어기영어기영 성루에로 올라온다.

정란은 그들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굳어져버렸다. 충주사고 참봉 한촌이 목고체에 어깨를 들이밀고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 올라오는것이 아닌가. 불빛에 적동색으로 물들여진 한촌의 얼굴에서는 굵은 땀이 줄지어 흘러내린다.

이를 악물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내짚는 한촌의 모습을 보며 정란은 가슴이 후터워졌다. 충주사고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던 한촌의 비통한 모습이 떠올랐다. 수백리 험한 길을 오직 실록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처자를 버려두고 달려온 그의 부르르고 찢쩍 갈라진 손이 눈앞에서 떠날줄 몰랐다.

충주사고의 실록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그를 추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는 그 머나먼 험

난한 길을 헤쳐 여기 전주로 달려왔다. 전주성을 사수하는 길이 실록을 지키는 길이기엔 저렇듯 발뚧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나선 것이었다. 평범하고 소박하게만 느껴지는 저 사람에게서 어디서 저런 힘이 생겨났겠는가.

정란의 눈앞에는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제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 황급히 도망치던 량반사대부들의 물결이 떠올랐다.

지어 왕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말아야 할 춘추관의 기사관들인 조존세, 김선여, 임취정, 박정원 등 네 사람이 임금을 따라 피난가던 도중에 력사초고책을 태워버리고 달아났으니 더말해 무엇하랴. 바로 그것이 평소엔 충신인노라 자처하던 량반사대부들의 진모습이었다.

(저 한춘의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춘은 무거운 짐에 눌리워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한계단, 두계단 성루로 올라섰다. 성루에 짐을 내려놓은 한춘의 두눈에는 따뜻한 빛이 담백 어리었다. 그것은 바라본 것을 얻은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눈빛이었다.

그의 가슴속에서 웅숭음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직 나라에 충성다하려는 강한 의지와 조상들이 창조하여 물려준 이 땅에서 이룩된 그 무엇도 침략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 나라 백성들의 소박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송죽의 절개는 거울을 당하여 알고 충신의 절개는 란시를 당하여 안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 나라의 충의로운 백성들이 모두 펼쳐나선다면 왜놈들은 기필코 제소굴로 쫓겨가지 않을 수 없다.

정란은 북쪽하늘을 바라보며 가볍게 부르짖었다.

《전하! 신은 기어이 왜적을 물리치고 전주를 사수하여 나라의 국치를 씻겠소이다.》

쿵쿵 병쟁기 버리는 소리가 어둠속에 잠긴 광야에 울려 퍼졌다.

날이 밝아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드디어 왜놈들의 대군이 산과 들을 덮으며 새까맣게 밀려들었다. 웅령과 리치에서 심대한 손실을 당한 왜놈들은 어떻게 하나 그 패배를 만회해보려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으나 리정란의 지휘 밑에 한결같이 단결된 성안의 힘을 꺾을 수는 없었다.

성밖의 백성들까지 모두 펼쳐나서서 가짜군사들과 기발들을 산에 가득히 늘어세우고는 밤중이면 무수한 화불을 들고 함성을 울려 적의 기세를 압도했다. 왜놈들은 여러차례 성을 공격했으나 그때마다 많은 주검을 남겨놓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왜놈들은 기어이 전주성을 함락하려고 미쳐날뛰며 남은 병력을 모조리 굶어모아가지고 최후의 공격전을 진행하였다. 조총소리가 물방으로 터지는속에

왜놈들이 긴칼을 휘두르며 성으로 달려들었다. 악착한 왜놈들은 제놈들의 시체로 사다리를 쌓으며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이때 놈들의 뒤에서 무수한 기치창검이 불쑥 솟아났다. 전주를 구원하려고 달려온 의병장 홍의장군 박재우의 의병대였다.

앞뒤에서 된타격을 받은 왜놈들은 패잔병을 수습하고는 황급히 도망쳤다. 이리하여 하삼도에서는 오직 전라도만이 보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싸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왜놈들과 싸우던 리정란이 그만 날아오는 적의 홍탄에 맞아 쓰러졌다. 쓰러진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의병들과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정란형, 왜놈들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보이시우? 우리가 이겼소. 이렇게 가면 우린 어찌라오. 어서 눈을 뜨시우.》

손홍록이 정란의 몸을 잡아흔들며 애타게 부르짖었다. 여기저기에서 비통한 울음이 터져나왔다.

고통으로 이그러진 얼굴을 실룩거리며 정란이 가까스로 두눈을 떴다. 뽕양계 앞을 가리운 안개를 헤치듯 손을 더듬어 자기를 안고있는 홍록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는 남은 한손으로 또 누군가를 찾으며 안타깝게 모대기였다. 홍록이 머리를 들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한춘을 불러앉히었다.

정란은 떨리는 손으로 두사람의 손목을 잡고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귀를 실룩거렸다. 퍼렇게 색이 죽은 입귀에서는 가느다란 피줄기가 방울져 흘러내려 시뻘겋게 젖어드는 가슴으로 점점이 굴러내렸다. 정란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가까스로 붙잡고서 안간힘을 쓰나 웅얼거리는 소리만이 새어나올뿐이다. 홍록이 그의 심중을 짐작하고 정란을 안심시켰다.

《정란형, 걱정마시우. 실록은 우리가 꼭 지켜내겠소.》

정란은 그제야 입가에 맥없는 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두눈을 감았다.

전주성싸움후 손홍록과 한춘은 경기전 참봉 오희길을 배길로 먼저 의주에로 떠나보냈다. 마음같아서는 실록을 배에 싣고 모두가 함께 가고싶었지만 근 50여바리에 달하는 그 많은 실록을 옮길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것이다.

오희길은 힘한 사지판에 그들만을 남겨놓고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손홍록과 한춘의 간절한 청에 못이겨 눈물을 머금고 길을 떠났다.

천여리 머나먼 배길을 헤쳐 간신히 의주에 도착한 희길은 곧장 행궁에 가서 화상과 신주, 위패 등을 바쳤다.

임금과 조정의 대소관리들은 태조의 화상과 신주 앞에 향불을 피워놓고는 엎드려 대성통곡하였다. 새삼스럽게 자기들의 처지가 슬픔을 자아냈던 것이다.

그후 오희길은 조정의 지시대로 태조의 화상과 신주, 위패 등을 묘향산의 불영암으로 옮겨갔다.

### 3

검붉은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절걱거리는 쇠붙이소리, 고향소리, 북소리...

그 누군가의 검은 그림자가 온마당을 뒤덮고 귀신의 날개처럼 너풀거렸다.

악마구리 들끓듯 소란한속에 끌려온 춘추관기사관 임취정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내짚었다. 징그러운 축수가 사방에서 뻗어나와 온몸을 칭칭 동여매는듯했다. 먹장구름속같은 어둠속에서 음산하게 울부짖는 바람소리에 맞추어 우줄우줄 춤추는 화토불의 그림자에 고통색으로 물들여진 무시무시한 도깨비화상들이 눈에 띄었다. 질겁한 임취정은 비명을 지르며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뒤에서 따라오던 왜병이 사정없이 그를 걸어쳤다. 예리하게 버려져진 섹한 쇠끝이 임취정의 드러난 목을 건드렸다. 삽시에 차거운 전율이 그의 온몸을 훑어내려갔다. 임취정은 다리를 펴고 간신히 일어섰으나 새파랗게 질린 그의 얼굴은 방금 지옥에라도 끌려들어온것만 같았다. 누르르레하게 타래를 지어 우로 솟구쳐오르던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자 대청우에 틀스럼게 틀고앉은 왜놈중이 눈에 띄었다.

시꺼먼 장삼자락속에서 삐죽이 삐여져나온 갈구리같은 손가락은 설새없이 넘주를 매만지고있었다. 표독스러운 두눈에서는 소름끼치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국사 중 혜경이었다.

...임금의 행차를 수종하던 도중에 력사초고책을 부엌아궁에 불태우고 도망친 기사관들이었던 조존세, 김선여, 박정권, 임취정 등은 어느한 마을에서 서로 앞일을 의논하였다.

조존세는 양덕이나 삼수같은 심심산골에 들어가서 전쟁의 불길이 좀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임취정의 생각은 달랐다. 그가 조존세와 김선여를 따라나선것은 란리통에 생사를 모르는 처자를 찾아가지고 어느 산속으로 은신하려는 생각에서였다.

임취정은 김선여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경기도에 있는 처가로 바삐 걸음을 다그쳤다. 온 천지가 인종의 파도로 뒤설레는속에서 형형색색의 피난민들의 흐름을 거슬러 남의 눈을 피해 남쪽으로 걸음을 서둘렀다.

간난신고끝에 경기도지방에 들어선 임취정은 왜놈들의 손에 사로잡히고말았다.

공교롭게도 임취정을 붙잡은 왜놈들은 혜경의 부하들이었다.

전라도의 길목인 응령과 전주성에서 대참패를 당한 혜경은 어떻게 하나 실록을 제 손아귀에 넣으려고 더욱 미쳐날뛰었다.

전라도로 쳐들어갔던 고바야가와대군의 반수가 넘는 놈들이 무주고혼이 되었으니 이 참패를 어떻게 씻을것인가. 전라도를 타고갔지못했으니 결국은 제놈들의 수륙병진기도가 한갓 물거품처럼 되었다.

본토에 틀고앉은 히데요시의 불같은 독촉에 귀가 맴 지경이다. 가슴속에서는 불길이 자글자글 피어올랐고 온몸의 피가 꺼꾸로 솟는것만 같았다.

혜경은 실록을 단념할수 없었다. 단념하기에는 실록의 가치가 너무나도 컸기때문이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혜경은 로회한 책략가답게 권모술수를 꾸미기 시작했다. 개구리가 움츠리는것은 앞으로 뛰어오르자는것이 아니겠는가.

혜경은 우선 사방에 간첩을 들이밀어 실록의 행처를 수소문하였다. 한편으로는 히데요시의 지시대로 조선의 이름있는 기술자들과 수공업자들을 붙잡아 배에 실어 일본으로 건너보냈다.

그의 타산대로 부하놈들이 정보를 물어들었다. 드디어 혜경은 실록의 위치와 그를 구원하려고 펼쳐나선 사람들의 래력까지도 짱그리 알아내었다. 봄이 오면 깊은 산속으로 실록을 옮기려는 그들의 계획까지도 예민한 후각으로 감각하였다.

더우기 춘추관 기사관인 임취정을 붙잡은것을 알게 된 혜경은 패재를 올렸다. 일이 되려면 거짓말처럼 맞아떨어진다더니 하늘이 정녕 나를 도우시는것이 분명하다. 력사책을 편찬하던 사람을 붙잡았으니 실록은 손아귀에 든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혜경은 임취정을 제 검은 손아귀로 아귀차게 틀어잡았다.

### X

봄이 왔다. 따사로운 해별이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진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언덕의 양지쪽에서는 해묵은 풀잎들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왔다. 봄빛이 완연한 숲속 나무줄기들마다에는 알릴듯말듯 초록색이 돌았고 싱싱한 봄바람에 가지들이 흐느적거린다. 시내물은 두텁게 덮였던 얼음장들을 떠시고 강으로, 바다로 쉽없이 줄기차게 흘러간다.

전쟁의 두번째 봄이었다.

봄풀이 새파랗게 살아오른 청새재를 넘으면 충청도 아산만이 나진다. 청새재우에서 아득히 바라보는 지평선에는 뽕안 젖빛안개가 은은히 감돌았다.

푸른 숲사이로 들쭉날쭉 뽕나무들이 솟은 언저리에는 한창 피어오르는 연분홍색 진달래꽃이 열기설기 앉았고 아지랑이가 자욱히 피어오르는 풀 안에서는 새들이 목청을 돋구어 지저귀었다. 훈훈한 봄바람을 타고 겨울을 이겨낸 해초냄새가 차분히 섞인 맑고 씩씩스레한 바다바람이 가볍게 불어왔다.

한춘은 봄기운에 들떠서 흐뭇한 기분으로 무변광대 한 대지를 굽어보았다. 이제 아산만에서 배를 타고 후방으로 실록을 옮기면 한춘의 어깨에 천근만근으로 무겁게 내려누르는 짐을 벗어놓게 된다.

그 얼마나 가슴조이며 지켜낸 책임가.

눈앞에 펼쳐진 정다운 산천을 바라보며 취한듯한 흥분의 깊은 밀바다속에서 갑자기 생생한 상처의 아픔이 살아올랐다. 가슴을 훑어내리는 짜릿한 아픔을 느끼며 주위를 거닐었다. 불현듯 생리별당한 처자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던 것이다.

한춘은 맑고 화창한 봄날이 오면 언제나 처자를 데리고 봄맞이를 진행하곤하였다. 아들의 손목을 잡고서 따듯한 해빛이 부드럽게 내려쬐이는 해묵은 풀이 덮인 들판을 꿈꾸듯 걸어갈 때 얼마나 좋았던가. 정찬 눈매로 자기를 바라보며 생글생글 웃는 안해의 이쁘장한 모습이 가슴을 쿡 찌른다. 목마를 태워달라고 졸라대던 귀여운 아들의 눈동자...

한춘은 지긋게 갈마드는 회상에서 미처 깨어나지 못한채 서글픈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후-살아있으면 언제든 만나련만...》

한숨을 길게 내쉬는 한춘의 가슴은 애수가 불덩이처럼 화끈 치밀어올라 한줌의 재로 되는것만 같았다.

한춘은 저멀리 지평선가장자리아래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바다에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실록을 옮긴다음 생사를 모르는 처와 아들을 꼭 찾아내어 끊어진 생활의 실오리를 다시 이으리라 생각하였다.

일행은 말파리들을 끌고서 고개를 내려 숲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숲속에 들어선 한춘은 물씬 풍겨오는 답답한 흙냄새를 맡고는 활기를 띠고서 팔을 우로 뻗쳐 참나무가지를 하나 꺾었다. 가지의 밤색색은 봄철의 달콤한 물로 봉긋이 부풀었고 알릴듯말듯 풍기는 향기는 무한한 삶을 약속하는듯하였다.

한춘은 나무가지를 코에 갖다대고 정겹고 달콤한 향기를 폐부가 터지도록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눈물이 어리어 뿌어진 눈으로 봄바람에 설렁거리는 주위의 나무우듬지들을 눈부리가 아프도록 올려다보았다.

...임취정은 공포와 죄의식으로 소용돌이치는 무거운 머리를 감싸쥐고 몽롱한 바위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향기론 채취를 날라오는 훈훈한 봄바람도 정답게 속삭이듯 설레이는 숲의 음향도 모든것이 귀찮았다. 그의 가슴은 복치듯 두근거렸고 손과 발이 얼어들었다.

이제 멀지 않아 실록을 실은 말파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야수와 같은 섬오랑캐놈들이 덮쳐들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결하고 깨끗한 이 나라의 장한 아들들의 피가 숲을 적실것이다.

아, 정녕 내가 반역의 길을 걷는단말인가.

왜놈들이 실록을 강탈하는 음모에 자기를 끌어넣으려는것을 알게 된 임취정은 눈앞이 아득해졌었다. 나라에는 불충하고 제일신만 먼저 생각한 결과가 이런것이었던단말인가.

음흉한 왜놈들은 그의 처자를 인질로 붙잡아놓고 취정을 반역의 길로 내몰았다. 왜놈들의 검은 손아귀에 깊숙이 들게 된 취정은 영원히 씻을수 없는 치욕의 길, 배신의 길을 걷게 되었던것이다.

피로움에 몸부림치던 취정이 후다닥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피가 철철 흐르는 얼굴로 자기에게 손을 뻗치고 다가오는 한춘의 모습이 떠올랐던것이다.

임취정은 실록을 지켜나선 사람이 다름아닌 제송아지적 동무였던 한춘이라는것을 알고는 경악질색하였었다. 그는 한춘의 됃됨을 그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별로 눈에 띄우는데도 없는 온화한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누구도 쉽사리 휘어잡기 어려운 완강함이 있었다. 대바르고 강의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한춘은 죽어도 실록을 지켜내는 길에서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절개를 지키는 일이라면 칼날우에도 서슴없이 올라설 대쪽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춘과 자기사이에는 넘어 설수 없는 아득한 심연이 가로놓였다. 아니, 하늘과 땅사이의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이 임취정은 더러운 제 한목숨과 처자를 위해 친우의 가슴에 칼을 박는 만고역적이 되지 않았던가.

임취정은 화살같이 날아와 박히는 살기편 시선을 느끼고는 바위에 머리를 짓조으며 흑흑 흐느끼었다.

이윽고 자박자박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저기에서 왜놈들이 기여나왔다. 훈훈한 봄바람이 감돌던 숲속의 공기는 다치면 터질듯 팽배해졌다. ...

숲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올수록 한춘은 어떤지 불안해졌다. 전쟁이 일어난후로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어왔지만 이때처럼 가슴이 불안으로 떨린적은 없었다.



침침하고 음산하게만 느껴지는 숲속의 공기에 저  
우기 불안을 느낀 한춘은 흥록에게 다가갔다.

《흥록형, 어쩐지 가슴이 불안스럽구려. 미상불  
준비를 해야 될가 봅니다.》

일행은 저마다 몸에 병쟁기를 지니었다.

한춘은 바짝 말라드는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고  
나서 재빨리 주위를 일별하였다. 길가에서 벗어져  
나와 나무들사이로 조심조심 발을 땀다. 발밑에 밝  
힌 마른작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신경을 자극했다.

나무뿌리에 발을 걸쳐여 비틀거리던 한춘은 불길  
한 예감에 머리카락이 쭈뼛이 일어섰다. 등뒤에 화  
살처럼 날아와 박히는 남의 시선을 느꼈던것이다.

가슴속으로 얼음덩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듯한  
선뜩함을 느끼며 재빨리 돌아섰다. 참나무뒤에서  
쏸살같이 튀어나오는 피한의 손에서 번쩍이는 칼날  
을 보았다. 불의지변을 당하는 일이라 오른팔에 칼  
을 받고 땅에 나딩굴었다. 한춘은 칼에 찔린 아픔을  
느낄새도 없이 손으로 땅을 더듬어 주먹만한 돌을  
집어들고 재차 덮쳐드는 왜놈의 상통에 휘뿌렸다.  
얼굴을 싸진 왜놈은 뒤로 별령 나가넘어져 피이한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길 양쪽에서 왜놈들이 칼을 머리위로 추  
켜들고 일행에게 달려들었다. 숲의 정적을 깨뜨리  
며 처절한 비명소리와 칼날이 부딪치는 날카로운  
쇠소리가 메아리쳤다. 열결에 일을 당한 사람들은  
왜놈들의 칼에 쫓겨 뒤걸음치다가 곧 영문을 알아  
차리고는 맞받아 병쟁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선  
지피가 사방에 휘뿌려졌다. 땅을 짚고 가까스로 일  
어선 한춘은 나딩구는 칼을 집어들고 얼굴을 두손  
으로 싸쥐고 비명을 지르는 왜놈의 가슴에 들이쫓  
았다.

불의의 습격을 피했던 왜놈들은 형세가 불리해지  
자 차츰 물러서더니 황급히 내빼기 시작했다.

손흥록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노  
들을 쫓아 달려갔다.

무의식중에 그들을 따라 몇걸음 달려가던 한춘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상처가 저려들자 나무줄기에  
등을 대고 스프르 주저앉았다. 옷옷에 흠뻑 젖어드  
는 땀건 피를 보았다. 상처를 싸매기 위하여 옷옷을  
찢었다.

순간 눈앞이 확 밝아지며 길가에 서있는 실록을  
실은 말파리들에 불화살들이 날아들었다. 놀란 말  
들이 발을 구르며 히히거렸다.

숲속에 숨어있는 남은 왜놈들이 혜경의 마지막지  
시를 수행하였던것이다. 혜경은 왜놈들을 떠나보내  
면서 실록을 정 탈취할수 없으면 불태워 재가루로  
만들어버리라고 지시를 주었던것이다.

날아든 불화살들이 유지에 썬 실록에 떨어져 마  
른 숨처럼 확 불길이 당겼다.

이 모든것은 눈깜짝할사이에 벌어졌다.

벌떡 땅을 차고일어난 한춘은 불 붙는 말파리로  
뛰어갔다. 이때 땅- 귀청을 켜는 한방의 총성이 대  
기를 흔들었다. 한춘은 등뒤에 불꼬치가 날아와 박  
히는 아픔을 느끼며 땅에 쓰러졌다.

악마디진 손가락으로 안타깝게 땅을 허비었다.

무서운 아픔이 무쇠덩어리처럼 그의 머리를 때렸  
다.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려고  
무진 애를 썼다.

매캐한 종이라는 냄새에 정신을 차린 한춘은 한  
치한치 가까스로 기어 가기 시작했다. 년전에 충주  
사고가 불타던 광경이 뇌리를 치며 떠올랐다. 한춘  
의 두눈이 부릅떠졌다.

한춘은 피가 숨새여 나오는 이새로 절규하였다.

《안된다! 이놈들, 실록은 절대로 못다친다.》

이를 악물고 수레채를 잡고서 일어섰다. 열기가  
확확 풍겼다. 한춘의 얼굴이 순식간에 고동색으로  
타들었다. 입안에서는 역스러운 그을음냄새가 났고  
목구멍과 폐는 불이 붙는듯했다. 피가 머리로 거꾸  
로 솟아올랐고 지어 연기조차 뻘겋게 보이였다. 한  
춘은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불길우에 서슴없이 몸을  
던졌다.

엷은 구름장사이로 피빛의 노을이 붉게 타 오르  
기 시작했다.

공포와 경악에 질려 갈팡질팡하던 임취정은 뒤로  
돌아서서 정신없이 달렸다. 바위쪼에 발을 걸쳐여  
앞으로 꼬꾸라졌다. 이마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천근만근의 무게로 짓누르는  
죄의식에서 한시바삐 벗어나고싶었다. 아직도 그의  
눈앞에는 손가락으로 땅을 후비며 한치한치 기어  
가던 한춘의 모습이 떠날줄 몰랐다.

숲속을 빠져나온 취정은 풀뿌리가 드러난 흙속에  
머리를 틀어박고서 비명을 질렀다.

어느새 서쪽하늘가로 미끄러져 가던 저녁해가 두  
터운 재빛의 구름장속에 숨어버렸다.

임취정은 깎아지른듯한 벼랑우에 서서 점차 사그  
라져가는 노을의 여광을 바라보았다. 바위에 밀려  
와 부서지는 파도소리는 숨넘어가는 짐승의 울부짖  
음처럼 그의 심장을 굵어내렸다. 마파람이 불어와  
그의 온몸을 쿡쿡 쑤셔댔다.

임취정은 맥이 진한 몸뚱아리가 무거운 연덩이처  
럼 아득한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환각에 사로잡혔다.  
순간 시퍼런 불길이 펄펄이는 한춘의 무서운 눈길  
이 취정의 눈앞에 나타났다. 낮색이 질린 취정은 정  
신없이 뒤걸음쳤다.

《자네를 죽인건 내가 아닐세. 왜놈들이 자네를 죽였네. 아-》

그는 두손을 허우적거리며 숨넘어가는 비명을 질렀다. 무의식중에 벼랑을 향해 한걸음, 두걸음 다가간다는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마침내 공포에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의 죄많은 몸뚱이는 천길나락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

어느덧 전쟁의 여섯해가 흘러갔다.

《화평담판》의 막뒤에서 재침의 칼을 버리던 왜놈들이 정유년 봄에 근 17만의 침략무리를 들이밀어 또다시 거대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묘향산 불영암에 자리를 잡고있던 경기전 참봉 오희길은 실록의 운명이 걱정되었다.

오희길은 조정에 실록을 불영암으로 옮겨오자고 제의하였다.

부패무능한 정부에서는 그제야 손홍록과 한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해 이미 타버린줄 알았던 실록이 구출되었다는것을 알았다.

실록은 그들의 손에 의해 충청도 아산만을 거쳐 배길로 황해도 해주에 가져 갔다가 다시 강화도로 옮겨 졌던것이다.

실록을 묘향산 불영암으로 옮기라는 조정의 지시문을 가지고 오희길이 강화도로 찾아왔다.

간난신고끝에 실록은 장한 인간들의 애국적소행으로 끝끝내 전쟁의 참화를 피할수 있었다.

손홍록은 오희길과 함께 실록을 배에 싣고 닻을 올려 강화도를 떠났다.

손홍록은 선창우에 서서 바다기슭을 바라보았다.

촉촉히 젖은 모래불에는 해초가 잔파도에 밀려나 흐느적거리었다. 후미진 물곶에서는 부지런한 녀인들이 흰 종아리를 물에 잠그고 조개를 캐고있었다. 녀인들이 조개를 모래불에 던지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그것을 정히 다래끼에 담았다. 거울처럼 맑은 물속에 몸을 잠그고 조개를 캐어들고는 어린애들마냥 깔깔거리는 녀인들의 티없이 순진한 모습은 마치 한쪽의 그림과도 같았다.

그들의 청아한 웃음소리에 섞여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달콤한 정을 함뱍 담고 울려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님네 가신곳이  
몇백리나 되웁긴데  
한번 가면 못오시나

산이 높아 못오시면  
봉봉이 쉬여오고  
물깊어 못오시면  
배를 타고 오시련만  
어찌 그리못오시나

손홍록은 불시에 설음이 북받쳐오름을 느꼈다.

멀고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애써 노래를 듣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노래소리는 파도마냥 밀려와서 그의 가슴에 메아리쳤다. 장렬하게 희생된 충주사고 참봉 한춘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던것이다.

아마도 한춘의 안해와 아들도 그 어디선가 저 바다가 모래불의 녀인들처럼 생사를 모르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릴것이다. 티없이 깨끗한 마음속 한구석에 무겁게 감도는 불안을 애써 웃음으로 감추고 애간장을 태우리라.

그러나 한춘은 그리운 처자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수 없는 몸이 되었다.

한춘은 홍록의 품에 안겨 이런 말을 남기었다.

《홍록형에게 무거운 짐을 떠맡기고 나는 이렇게 가는구려. 실록을 끝까지 지키자고 맹세를 다졌건만... 아, 정말 한스럽기 그지없소.

부디 내뿜까지 합쳐서 기어이 실록을 지켜주시우. 전쟁이 끝나 실록이 복각되는것을 보고싶소.》

한춘은 이 말을 남기고는 홍록의 곁을 영영 떠나갔던것이다.

홍록은 배전에 몸을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배는 포구를 떠났다. 바람을 받아안은 돛목이 한껏 부풀었다.

저 멀리 지평선너머에서는 하얀 구름이 몽게몽게 피어오른다. 바다우를 날아에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멀리로 메아리쳐간다. 하늘, 바다, 지평선, 해빛에 아물거리는 아지랑이-이 모든것이 푸르게 물들여졌다.

드디어 임진조국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피와 목숨을 바쳐 이 땅의 귀중한 모든것을 지켜냈다. 정든 산천, 대대로 살아오는 고향마을, 사랑하는 사람들,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귀중한 재부...

이 모든것도 귀중하지만 자기의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소중한 모든것, 지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친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지사들의 그 마음이 더더욱 고귀한것이 아니겠는가.

# 광주이후

김 오(남조선)

광주이후

그 폭풍같은 항쟁의 불길이  
아우성치며 불붙어 가고  
죽음의 육탄들이 넓혀 간  
자유의 들판이 끊어 진  
그 이후

광주이후

독재의 하늘을 불사른  
민주의 려명이 다시 총칼에 찢기고  
이 땅우를 굴러 간 외국제 땅크의  
무한게도에  
겨레의 붉은 피가 질벽하던

광주이후

오, 그 잊지 못할 자랑과 원한의  
사람마다 영웅이던 영광의 도시  
그 처절하고 성스러운 전장  
광주이후  
그것을 짓밟고 일어 서는것은 무엇이나

계엄의 철쇄로 더욱 《한국》을 옥죄이고  
모조리 체포, 투옥, 처형하고  
무대기로 쫓아 내고 목을 자른 뒤  
이 피비린 암흑의 땅우에  
일어 서는것은 누구의 왕국이나

서 있지 못하리라 암흑의 망령  
독재의 파쑈왕국은  
세계를 뒤흔드는 《한국》의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다  
폭발을 멈춘 화산은  
다시 더 격렬한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

불길은 더 넓게 더 세차게  
가슴들마다 《한국》의 구석들마다 불붙어 갈  
보이지 않는 비수와 총구들이  
용서할수 없는 적을 노리고 있나니

광주이후

그 이후도 광주  
그리고 불붙는 온 《한국》  
일어 서는것은 파쑈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 왕국

울창한 민주의 수립이리라  
내 땅을 적신 민중의 피는  
오직 자주, 민주의 수목만을 가꾸나니  
결코 식민독재의 거름으로 되지 않으리라  
그 뿌리는 불타고 줄기는 말라 죽으리라

상식

## 집 씨

집씨란 일정한 거처지가 없이 집단적으로 떠돌아 다니며 사는 하층의 사람들을 말한다. 처음 인디아에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퍼졌다.

집씨란 말은 16세기 영국사람들이 처음 나타난 그들을 예짚트사람인줄 잘못 알고 부른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원래고향은 인디아의 북서부지방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며 살다나니 유럽지역에 많이 흘러들었다. 집씨들은 몇개의 가족을 단위로 하여 풍을 친 마차에 가장집물들을 싣고 정처없이 류랑의 길을 이어 가면서 농촌마을이나 도시에 이르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판을 벌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별이를 하여 그날그날의 생계를 유지한다. 최근에는 정착하여 사는 집씨들도 있다. 손재간이 있는 집씨들은 수공예품들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자유분방한 성격적특질, 독특하면서도 열정적인 노래와 춤으로 하여 집씨들은 일찍부터 유럽사람들, 특히 이름있는 문호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래서 유럽의 문학작품들에서는 집씨들의 생활이 많이 취급되었다.